새로운 봄(見), 본질적으로 새로움과 나음을 위하여

A NEW SEEING FOR A TRANSFORMATION, FUNDAMENTALLY NEW AND BETTER

By

BANG, HONG SEOK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Ridgewood, New Jersey

2007

ABSTRACT

A NEW SEEING FOR A TRANSFORMATION,
FUNDAMENTALLY NEW AND BETTER

BY

BANG, HONG SEOK

The christianity history of Korea is short, but the Korean church has accomplished miraculous growth for its comparatively short time period.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is approaching fifty million, and one quarter of Koreans are Christians. This is a surprising aspect for Korea, a country in which Christianity is not a national religion. However, the Korean church has another hidden aspect. It bears many scars because it has only focused on church growth in terms of quantity. The church has divided so diversely that we may call the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a history of division. The individual church divides into two or three, and an individual denomination divides into two or three more, and in some cases hundreds, resulting in countless different denominations in Korea. This division has ultimately weakened the church. When an individual church or denomination divides, it harms another church, and fights or arguments about whose way is the right one always ensue. Great pain is suffered as churches are expelled, excluded, or denounced. Physical hurt should be healed. Although we may look outwardly healthy, living with hurt means being inwardly ill. Eventually, we will become sick and tremendous problems can arise. Therefore, we need fundamental healing. The author wrote the following dissertation with this goal in mind: how can we fundamentally heal those hurt in the church?

This dissertation attempts to make those who live with hurt, anger, and *Han* realize that their anger, hurt and *Han* is not real but factional.

Thus, it aims to help them see that the world God created is a good one, just as God said it was after He created it, or to help them see the kingdom of God in the world.

To know factional anger, hurt and Han, we must clearly understand our situation. To see clearly is to see anew; it is to see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It is to see with born-again eyes, as Jesus said, without born-again, we can never see the kingdom of God. The author's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help those who live with the bondage of anger, hurt and Han, and as a result, their lives are captured, disintegrated, and bind. It attempts to give them new eyes, to see anew. Therefore, this theology is a theology of seeing. With this new seeing, all humankind can live well in the world God created.

The first question for this project dissects whether there is reason to be angry. People who live with anger, hurt and *Han* do not see the issues realistically. They see only from their own perspective, and from their pre-existing thoughts. Their thoughts have been formed by tradition, by habit and by learning. Thought becomes a paradigm working for all occasions. For example, if one has a rectangle paradigm, he always sees from the vantage point of a rectangle, and interprets every issue as rectangle. Conversely, if one has a circle paradigm, he interprets every event as circle. It becomes difficult to truly *see* occasions as they are because of the preoccupied paradigm. And the problem does not end here. If people interpret situations by their own paradigm, their lives are subsequently affected since they live according to their (own) interpretation of the world. Therefore, we should see and listen correctly. We should not see, listen and interpret an event through our own private paradigm of thought; rather, we should attempt to see problems as they truly are. This transcends paradigm

and individual thought.

The second question involves knowing "who I am."Generally, we are defined by 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Who am I? I am whose husband, whose wife, whose daddy, or whose son? If a person goes to school, he or she is a student. If doing business, a person is a businessman. All this is determined by relationships. We are made through these relationships. I, who am made by such relationships, am EGO. EGO exists only in the relationship. EGO is not true self. EGO changes constantly. Consider an individual who is married and later divorces. EGO changes following the changed relationship. Something that changes is not absolute truth. Truth cannot be changed; it is absolute. The author of this dissertation seeks a self that is unchanging. That which is not changed is not EGO, but SELF. Therefore, this dissertation begins with the question: Where and how can we find our true SELF? To look for true self, I ask a question: Where am I now? This question does not ask about EGO, something made by relationships. When we ask this question, people always answer from their hurt, and tell their pain from the hurt. However, even if the relationship ends, the hurt continues; anger and *Han* remain. It may end temporarily, but not permanently. When EGO, a relatively situational being, surrenders and the being of true SELF is discovered, we can correctly answer the question, "Where am I now?"

The true SELF is a primitive self that has never been hurt, never been born, never studied, and never married. The moment I find SELF and realize SELF, all anger and *Han* disappears, as the dark cloud lifts. Change does not occur following my desire to change. If that were true, change is false. True change happens automatically. Change occurs when we see the event as it is and when we realize who we are. Through

change, the schism that resulted from anger and *Han* is purified. In other words, change is not only for me, but also a systematic change for the world. The author envisions the changed world through this true SELF-discovery. Hoping for that world, the author worked through this project.

이 논문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헌정(獻呈) 합니다.

감사의 글

무엇을 위한 뜀박질이란 말인가?

내게 다가왔던 순간순간의 시간들 속에서 내 속에 계속해서 되뇌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아니 또 다른 뜀박질을 위해서 출발선에 서 있다고 해야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 동안 뜀박질하며 땀을 흘릴 때마다 그 땀을 씻겨주고, 피곤한 어깨를 두드려주고, 목마른 내 목을 축여주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언제나 부모님처럼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박보범목사님 또한 용기와 도움을 준 친구 박희춘목사 또 주변의 많은 선배, 동료, 후배 동역자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계속해서 보내주었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도에서 포기하고자 할 때 다시금 뜀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Michelle Lim Jones(임성신)교수님, 그리고 그 배려가 시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Lester Edwin J. Ruiz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 이국땅에 자식과 손주들을 보내고 언제나 안절부절 염려와 걱정으로 시간 시간을 보내신 아버님, 어머님(장인 장모), 또 철없는 막내 동생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해 준 형님과 누님들 가정의 사랑은 평생을 두고 갚아야 할 사랑일 것입니다.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무엇이든 서슴지 않고 동분서주 뛰어다니며 눈물 흘린 아내 성현의 사랑 그리고 아빠를 위해 자신들의 모든 환경을 뒤로 하고 여기까지 따라와 준 승혁이와 혜령이의 그 깊은 사랑은 논문의 그 어떤 가치보다 더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 그 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며 남은 생애 그 사랑 갚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연초록으로 물든 뉴저지 리지우드에서 방홍석 목사

목　차

제 1 장
서론 및 문제제기

분노와 한의 감정은 교인들을 과거와 미래의 틀 속에 갇혀 살게 하여 현재 주어진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어떻게 하면 기억과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와 지금 주어진 삶을 자유하게 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에 사람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물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1] 성경은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2]고 말한다.

이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3]고 한다. 그리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그곳을 떠났다. 그때 예수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4]

사람들은 간음한 여자를 그 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조건이나 틀을 가지고 보고 있다. 그래서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인이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이나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자신들 안에 형성되어 있는 틀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규정된 틀로 여자를 보지 않는다. 그것을 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섞지 않은 상태 즉 있는 그대로의 여자를

---

1) 요한복음8장4-5절.(이하의 모든 성경 번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대한성서공회의 한글개역성경을 따른다.)
2) 요한복음8장6절.
3) 요한복음8장7절.
4) 요한복음8장10-11절.

본다는 것이다. 그것은 틀을 깨트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은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의 입장이 아닌 자기의 기준, 감정, 생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이래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 동안 자기 안에서 형성된 기준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태, 가령 "기쁠 때" "슬플 때" "화날 때" "억울할 때" 등의 상태 그리고 그 동안 자신이 학습되어온 배경에 의해서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는 사람들이 데리고 온 여자를 향해서 그런 기준, 감정, 생각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 본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 여자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즉 "나는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용서의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용서의 개념이 없다는 것은 예수가 이 여자를 죄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죄인으로 보는 틀에 갇혀서 사랑해야 할 동족이고, 어머니고, 아내고, 누이고, 딸인 한 여자를 보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봄(見)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봄(見)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동시에 예수는 그런 그들의 고정된 틀로 인해 상처를 받고 죽음의 위기까지 몰렸던 여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안겨주고 있다.

본 연구자의 논문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게 할 까?"에 관심을 갖는데서 출발한다.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옭아매고 있는 밧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한다. 그 원인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나 또 문제라고 보는 사람 모두가 그 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된 생각이나 감정 혹은 학습되어온 틀로 인해 생긴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틀을 깨트려 버릴 수 있을까? 즉 그 틀을 깨트리는 방법에 논문의 포인트를 두었다. 결론적으로 그 틀을 깨트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의 봄(見)을 이룬다는 것이다. 또 이 봄(見)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다.[5]

그러나 본 연구자의 연구는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분노와 한의 문제를 다루기

---

5)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보다는 개인적인 봄을 통한 개인적 치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개인의 깨달음이요, 깨어남이요, 거듭남의 차원이다. 안타깝지만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분노와 한의 문제는 차후에 계속해서 연구할 부분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본 논문을 전개하였다.

첫째 제 1장은 서론과 함께 논문을 전개하기 위한 문제를 제기하며 논문을 쓰고자 하는 이유를 언급했다.

제 2장은 논문의 배경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언급했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 상황과 교회의 역사적 상황 그리고 교회가 처해있는 문제에 대한 상황을 지적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 3장은 연구를 위한 질문을 시도하였다. 첫 번째는 신학적 질문으로 "분노와 한의 감정은 실제에서 오는가? 아니면 허상에서 오는가?"의 질문과 "ego를 넘어설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는 분노와 화의 문제를 신학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의 질문이다. 두 번째는 성서적 질문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가?" 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씨름하였다. 진리에는 분노와 한이 있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진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지의 세계가 아님을 성서적 차원에서 질문하며 분노의 문제와 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다. 세 번째는 정의적 질문이다. "이 땅에 약자는 누구며 강자는 누구인가?" "강자들을 강자로 또 약자들을 약자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는 강자와 약자의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강자와 약자의 구조를 만들어서 분노를 일으키고, 한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분노와 한의 문제를 그러한 차원에서 분석해보고 해결해 보고자 시도했다. 네 번째는 문화적 질문이다. "문화적 요인은 분노와 한의 감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특히 한국사회는 유교 봉건주의적 사고와 전통이 지배적이다. 이런 전통과 사고가 지배하는 문화적 요인들이 어떻게 분노와 한의 감정과 연관되어 있는가를 연구조사며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했다.

제 3장은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분노와 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것에서 내 안으로 끌어옴을 통해서 분노와 한으로 인해 생긴 각각의 틈새를 정화시킴을 통해서 새롭고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시도다.

제 4장은 실제 및 평가로서 본 연구자의 프로젝트를 실제로 시행한 내용과 결과를 언급하였다. 여기에는 목회학박사 논문의 이론과 실제의 구성 중에 실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의 내용과 이를 시행한 모든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다.

제 5장은 목회 유능성 개발 부분으로 본 논문을 위해 함께 수고한 site team의 평가를 통해서 본 연구자의 유능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제 6장은 연구자 스스로 모든 평가를 근거로 어떻게 나의 유능성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7장은 논문에 대한 본 연구자의 마지막 결론으로 모든 내용에 대한 정리와 함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였다.

오늘 한국교회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들에 의한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가령 각 지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 혹은 목회자와 평신도 또 평신도와 평신도 간에 말과 행동으로 인한 감정적인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후 본 교회에서 나타나듯이 교회가 분열되고, 교인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예수가 외쳤던 사랑의 세계, 복음의 세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 더불어 예수가 마지막으로 명령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명령도 이룰 수가 없게 된다.

예수가 원했던 새로운 세상은 건강한 사람 또 건강한 교회가 이룰 수 있는 세상이다. 건강한 사람, 건강한 교회란 상처가 없는 사람이고 교회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서 교회가 안고 있는 또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이 안고 있는 상처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그런 건강함을 가지고 예수가 원했던 사랑의 세계, 복음에의 세계, 참 자유의 세계를 이루고자 한다.

제 2 장

배경 소개

1. 교회가 위치한 지역 상황

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오금동 지역은 서울특별시의 남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좌로는 강남구와 우로는 강동구 또 북으로는 광진구와 성동구, 남으로는 경기도 하남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송파구의 관내(官內)에 속하여 있다. 또한 이 지역은 북쪽으로는 한강이 직면해 있고, 남쪽으로는 남한산성이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유행의 첨단이라고 하는 강남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중부 고속도로가 곧바로 연결되어 있어 지방과의 연계도 매우 용이(容易)한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와 지방, 현대와 과거, 부와 빈 등 모든 면에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오금동의 면적은 1.65㎢이고 인구는 2001년도 현재 3만 9310명이다. 오금동이 속해 있는 송파구는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신흥 발전지역이고 세수(稅收)가 가장 많은 자치단체 중에 하나다. 이 지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고서 부터이다. 이 때 올림픽 경기와 이에 상응하는 선수촌과 올림픽 공원이 조성됨을 통해서 환경이 좋은 지역이라는 인프라가 형성됨과 함께 이후 계속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고, 또 현재도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잠실에 형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롯데 백화점이라는 대형 유통업체와 롯데월드라는 놀이동산이 들어옴으로 교통이 복잡해지고, 많은 수의 유동인구를 만들게 되었다.

현재 잠실의 대단지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감에 따라 많은 인구가 타지로 이사를 간 상태다. 그러나 재건축이 고층아파트로 지어지기 때문에 재건축이 끝나는 향후 5년 어간에 지난 과거보다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오금동은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말까지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에 속하였고, 1914년 자연마을인 오금골, 웃말, 아랫말, 건너말, 안골, 눈머리, 신금리, 개룡리의 일부를 합하여 오금리라 하였다. 1963년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편입되면서 오금동으로 바뀌었고, 1975년 강남구, 1979년 강동구를 거쳐 1988년 송파구 관할로 되었다.

송파구는 서울에서도 부촌에 속한다. 방위(方位)로 본다면 강남일부와 강동지역에 해당된다. 강남지역은 서울에서도 가장 급변하고, 유행의 출발점이며,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을 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많은 펀드가 집중하고 있고, 또 신세대 문화가 가장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6] 그러나 오금동이 위치한 지역은 강남보다는 강동 쪽으로 강남에 비해서 상대적 빈촌에 해당된다. 특히 오금동과 연계해 있는 마천동과 거여동은 서울 청계천 개발 때 강제 이주한 사람들로 구성된 지역으로 일부 지역은 속칭 달동네가 형성되어 있어 송파구 관내에 지역 불균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송파구 관내에서는 이 지역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많은 세수(稅收)를 동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서울시에서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지역이 해당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들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강남도 아니고, 마천동이나 거여동도 아니다.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틈새에 위치하고 있어서 강남의 경제 문화적으로도 소외를 당하고, 마천동 거여동의 개발지역에서도 소외를 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위치적 배경으로 인해 교회 구성원도 양쪽에 해당되는 부류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부촌에 속한 교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학력도 높은 편인데 비해, 빈촌에 위치하고 있는 교인들은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학력도 낮은 가운데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본 교회의 어려움은 공동체가 형성된 이래 계속해서 담임목사가 바뀌었다는 것과 그에 따라 교인들이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의 활동 참여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것이다.

---

[6] 이 지역의 문화를 강남구 압구정동을 빗대어 압구정문화라고 한다. 압구정 문화는 신세대의 첨단문화를 의미한다.

2. 교회의 역사적 배경

본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1988년 9월에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윤종옥 준목(현재 수석 장로의 부인이다)이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 후 5년만인 1993년 10월에 윤종옥 목사가 사임을 하였다. 윤종옥목사의 사임이유는 남편이 장로이고, 시아버지가 장로인 가운데 부인인 담임목사가 당회를 이끌며 목회를 하는데 공적(公的)인 일과 사적(私的)인 일의 분간이 애매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로 더 이상 목회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같은 교단에서 김요한 목사가 부임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목사와 교회 개척자들과의 갈등으로 4년이 지난 후 1997년 6월에 김요한 목사가 사임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교회의 이미지를 변화하려는 노력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아닌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의 조용태 목사를 청빙하여 새로운 교단으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해 11월,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로 교단을 옮겼다. 새로 부임한 조용태 목사는 교회가 교단도 옮기고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결단으로 생각하고, 교회의 전반적인 일에 관여를 하며 개척교회를 하는 심정으로 목회를 하였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활성화가 되었다. 이에 조용태 목사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교회의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였다.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활성화 되자 교회의 주도권은 교회를 개척한 개척세력으로부터 새로운 목사에게로 옮겨져 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교회의 개척세력들은 자신들의 주도권이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여 담임목사의 사역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였다. 교회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직전 이런 연유로 교회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조용태 목사는 부임한 지 2년만인 1999년 3월에 사임을 하였다. 같은 해 4월에 배영석 목사가 새로운 담임목사로 부임을 하였다. 30대 후반의 배영석 목사도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였다. 침체되어 있던 교회는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특히 30대 40대의 교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여 교회가 더욱 활성화되기 그러나 앞서서의 목사들처럼 배영석목사도 개척자들과의 갈등에 예외일 수 없었다. 배영석목사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배영석목사도 부임 3년만이 2002년

1월에 사임을 하게 되었다. 배영석목사가 사임하면서 그와 함께 제자훈련을 했던 30~40대 교인들이 배영석목사를 따라 나가서 교회는 교회 구성원의 허리에 해당되는 연령층이 빠져버리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다. 같은 해 2월에 오성구 목사가 부임하였다. 새로 부임한 오성구 목사는 예배당 구조변경을 통한 교회 활성화를 기획하고, 교회 확장공사를 시작하였다. 3층 예배당을 리모델링하고, 전세를 주었던 4층을 교육관과 식당과 사택으로 구조변경을 하였다. 그러나 오성구 목사는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하고자 한 사택의 전세 비용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유용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부임 1년 만인 2003년 4월에 사임을 하였다. 그 후 같은 해 5월에 본 연구자가 참사랑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다. 본 연구자가 부임한 교회의 모습은 처참한 상태였다. 개척자와 목회자와의 갈등으로 교역자가 계속 바뀌었고, 일부 교인들이 전전목회자를 따라 교회를 떠나서 기형적인 연령구조를 이루고 있었고, 목회자가 교회의 재정을 유용함으로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태에서 본 연구자는 교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치유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변화되지 못하고, 문제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교회는 결국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또 다시 본 연구자와의 갈등을 야기하여 본 연구자도 결국 부임한지만 3년만인 2006년 8월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3. 상황 및 분석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15년이란 기간 동안 6번의 담임목사가 바뀌었다. 담임목사가 바뀐 이유는 대부분 개척자와의 갈등이다. 그 갈등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기존의 교인들과 새로 부임해 와서 주도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자 하는 목회자와의 갈등이다. 이런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갈등과 함께 일반 교인들은 계속해서 담임목사가 바뀜으로 인해 새로운 목회자가 오면 "이 분은 얼마나 계실까?"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풍토(風土)가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의 침체를 더욱 유발하게 되었다. 이런 갈등과 풍토는 교회성장장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교인들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또한 담임목사가

계속해서 바뀌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떠나는 과정에서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말들을 내뱉음으로 인해 떠는 목회자는 물론이고, 남아있는 교인들도 마음의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남아 있는 교인들은 상담을 통해서 그들이 그간의 목회자들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를 말하였고, 떠나간 목회자들은 노회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하였다. 상처는 목회자와 교인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목회자가 계속해서 바뀌는 과정 가운데 목회자를 지지하며 교회를 떠난 교인들과 계속해서 교회에 남아 있던 교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상처가 있다. 그들은 서로 간에 서로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안겨 주었던 것이다.

이런 교회의 상황으로 인해 교회에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그 이미지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목회자와 교인 간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교인들은 목회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목회자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계획들을 말해도 교인들은 목회자의 그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교인들이 교회의 사역에 소극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열심히 일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면 자꾸 사람들과 부딪친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 교인들이 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세 번째는 교회의 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7], 즉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고, 그 모든 힘은 그리스도에게 귀속(歸屬)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목사와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들 간에 계속되는 마찰이 생기자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게 되었다. 교회의 힘에 대한 변질이다. 새로운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가? 아니면 개척자가 교회의 주인인가? 또 누구에게 더 큰 권한이 있는가? 이런 교회의 헤게모니(hegemony) 싸움으로 인해서 교회의 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네 번째는 교회 주변 지역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되었다.

---

[7] 에베소서 1장 22절, 4장 16절, 5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은 본 교회의 담임목사가 계속해서 바뀌고, 또 교회가 나누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로인해 본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목사를 쫒아내는 교회" "싸우는 교회"와 같은 이미지가 그들 안에 형성되게 되었다. 이런 이미지는 교회의 전도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교회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교회 성장의 걸림돌은 새로운 교인들의 유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교회는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고가 변하지 않는 한 15년 전과 현재가 똑같은 상황이고, 교회는 똑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치유는 육체적인 치유도 있지만 마음의 치유도 있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치유를 육체적인 치유에 한정시켜왔다. 그래서 신유(神癒)은사니, 축귀(逐鬼)니 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또 교회마다 그런 사역들이 강조되어 왔다. 한국교회는 기도원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기도원은 조용히 묵상하는 개념의 기도원이 아니다. 주로 산 속에 기도원을 지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것이다. 또 때마다 집회를 하는데, 주로 귀신을 축출하는 기도나 집회 혹은 병을 치료하는 기도나 집회를 많이 해 왔다.

한국교회는 간증 사례가 많이 있다. 간증에 대한 다양한 자료집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간증에 관한 자료나 책을 보면 육체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육체의 치유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육체적 치유 때문에 대두된 문제 중에 가장 최근에 발생한 문제가 본 연구자가 속한 총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홈페이지에 실려 있다. 포천할렐루야 기도원에 대한 사이비이단문제의 글이다. 본 연구자가 본 포천할렐루야 기도원은 각종 환자들로 가득한 곳이다. 특히 이곳은 일반병원에서 불치의 병이라 판정받은 환자들이 많이 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유명하다는 기도원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들이 그곳을 찾는 것은 물론 전적으로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자 함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지나칠 정도로 육체의 치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며

맞이하기 보다는 어떻게든지 거부하며 치료에 열중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가 육체의 치료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다보니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같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다.[8]

한국교회는 아직도 육체의 치료에만 집중했던 과거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일은 비단 포천할렐루야기도원의 김계화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육체적 치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간과되었던 마음의 치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또 진정한 치유는 육체의 치유보다 마음의 치유에 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한다.

최신의학에서는 마음의 스트레스가 많은 병(70%)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마음의 스트레스와 면역, 마음의 스트레스와 암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상식화되고 있고, 이러한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학문인 *psycho-neuro-immunology*와 *psycho-oncology*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대의 의학이다.[9] 이제 교회도 마음치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한국인들의 심성 중에 특징적인 것이 대단히 감성적이라는 것이다. 강준만은 정(情)을 한국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경험한 외국인들이 항상 지적하는 장점도 역시 정이라고 했다.[10] 그는 또 프랑스계 한국인인 두봉 주교의

---

8)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할렐루야 기도원에 대해서," http://pck.or.kr/PckCommunity/NoticeView.asp?TC_Board=7823&ArticleId=60&page=6 (accessed Otc. 1, 2006). "영등포노회가 '할렐루야기도원(김계화 원장)의 성령수술 및 생수 병 치료의 이단 사이비 여부를 판정해 주시기바랍니다. 할렐루야기도원 원장인 김계화씨가 행하는 성령수술 및 생수로 병을 치료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헌의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리 교단은 우리 교단에 소속된 성도들이, 비성경적 비기독교적인 많은 위험성을 자행하고 있는 김계화씨의 할렐루야기도원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엄격히 금해야 할 것이다'고 보고했다. 즉 첫째, '김계화씨(할렐루야기도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보다 환상과 계시 등 영적 체험을 강조하므로 말씀중심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둘째, '김계화씨(할렐루야기도원)는 생수가 큰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수의 효과를 지나치게 극대화하므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이고 물리적인 생수에 의지하게 하므로 바른 신앙에서 이탈할 큰 위험성이 있다. 우리는 이를 한국교회를 크게 혼란시킨 박태선씨의 경우에 이미 체험한 것'이며, 셋째, '김계화씨(할렐루야 기도원)가 행하는 소위 [성령수술]은 그의 손에서 불이 나가 환자의 환부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통하여 피고름, 암덩어리 등을 제거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분명히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다. 성경을 상고해 볼 때 성령의 병고치심은 이 같은 방법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용납해서도 안될 것'이었다." 김계화씨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그대로 채택되었고 본 총회 산하 교회와 교인들이 그릇된 가르침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동 위원회의 청원이 허락되었다.

9) 정창덕, 박호용. *암 정복 길라잡이* (서울: 태웅출판사, 1999), 356.

10) 강준만, *한국인 코드*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06), 111.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40여 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의 인정에 반했으며, 인정은 세계에 수출할 한국인의 심리상품이라고 말했다."[11] 감성적이라는 말은 감정이 풍부하다는 말도 있지만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한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상대방이 보여준 행동 때문에 상처를 쉽게 입는 것이 한국인의 특징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교회는 크고 작은 교회에서 분열이 많이 일어난다.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상대교인들의 말을 듣고 스스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혹은 집단적으로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의 분열을 야기(惹起)시킨다.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도 같은 경우에 속한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다른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문제 혹은 교육적인 문제보다도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오고가는 말과 행동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집단으로 교회를 떠나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그런 결과로 교회의 성장은 멈추게 되었고, 목회자를 향한 교인들의 신뢰도가 떨어졌으면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참여도가 떨어져서 계속적인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1) Ibid., 420.

제 3 장

연구조사 질문

1. 신학적 질문

1) 분노와 한의 감정은 실제에서 오는가? 아니면 허상에서 오는가?

다음의 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인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12]

한국인의 심성에 자리 잡고 있는 한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다면 말없이 보낸다.'고 시인은 고백한다. 아니 가시는 길에 진달래꽃을 가득 따다가 가시는 길에 뿌리기까지 하면서 환송(歡送)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라는 것이다. 또 그렇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다고 해도 나는 죽어도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

12) 김소월, *진달래꽃* (서울: 미래사, 2004), 51.

대단한 역설(逆說)이다.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보기 싫어서 떠난다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 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욕을 한다거나 가다가 사고라도 나라고 저주를 퍼 부을 것이다. 그런데 가는 길에 꽃까지 뿌려주겠다고 한다. 이것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슴에 품어 두겠다는 것이다. 품어도 가슴 깊이 품겠다는 것이다. 또 품고서 평생을 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품고 있는 바로 한의 감정이다.

그래서 한은 분노가 쌓여서 생긴 앙금이다. 즉 한은 분노한 감정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고 가슴 속에 쌓여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 있을 때 문제가 된다.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감정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서 가슴속에 어떠한 것으로도 풀어지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다.

현영학도 한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지독한 고통과 고생, 그리고 거기서 맺히고 쌓여지는 것이라고 말한다.[13] 정태기의 한과 같은 차원의 말이다. 현영학도 정태기의 말처럼 한을 쌓이는 의미로 말하고 있다. 사라져야 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생을 해서, 사라지지 않고 맺히게 되었다는 것이다.

David A. Seamands와 Beth Funk도 그의 책 "상한 감정의 치유 워크북"에서 우리의 모든 기록이 감정과 생각의 나이테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다.[14] 그러면서 그는 그 나이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언급한다.

> 우리의 인생에도 나이테가 있다. 단단한 껍질 속에 은밀히 감춰진 나이테와도 같은 인생의 기록이 있다. 그 기록 중에는 아주 오래된 아팠던 흉터도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크리스마스 아침, 한 소년은 부푼 기대를 안고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갔지만, 크리스마스 양말 속에서 발견한 것은

---

[13] 현영학, "민중신학과 한의 종교," *역사와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150.
"미국 화와이에서 인류학을 가르치다가 젊어서 작고한 김영숙 교수는 '한국여성 여섯 사람'이라는 책을 펴낸 바 있다. 상신무당 여서사람의 전기를 연구한 저자의 결론에 의하면, (1)그 계층과 그 또래의 다른 여성들에 비해서 이 무당들의 지능이 훨씬 높았고, (2)이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 때문이거나 시어머니나 남편의 학대 또는 구박 대문이거나간에 지독하게 고생했고, (3)이러한 고통과 고생을 자기들에게 뒤집어씌운 사회, 문화적 전통과 제도에 대해서 극도로 미칠 정도로 민감했고, (4)그렇기 때문에 신병(神病)에 걸렸으며, 미쳤다고도 한다. (5)이 신병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무당이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압력을, 신령의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당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결론이 시사하는 바에 의하면 무당의 신병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계시' 때문도 아니며, 귀신들의 장난 때문도 아니며, 일상생활에서의 지독한 고통과 고생, 그리고 거기서 맺히고 쌓여진 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14] David A. Seamands & Beth Funk, *상한 감정의 치유 워크북* 김재서역 (서울: 예찬사, 1997), 25.

더러운 사탕 한 개뿐이었다. 부모는 아주 사소한 잘못을 벌하는 뜻으로 그랬지만, 그는 이때 받은 상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고, 이 사건은 후에, 대인관계에서도 모든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전 생애에 걸쳐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얼룩과도 같은 예도 있다. 덩치가 커다란 소년으로부터 헛간이나 건초더미, 숲속 같은 곳에서 당한 성적 추행을 여러 해 동안 잊지 못하고 있는 소녀, 또 우리는 평생 중압감으로 마음을 짓누르는 기억의 예를 들 수 있다. 어머니를 죽이려고 부엌칼을 든 아버지의 뒤를 쫓았던 기억을 갖고 있는 소년, 이런 기억의 상처는 평생 보이지 않게 잠재되어, 알 수 없는 상처와 분노의 원인이 된다. 그저 구원이나 성결케 되는 체험, 아니면 기도 정도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큰 오산이다.[15]

이처럼 사람은 밖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은 자신 안에 숨겨져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은 단순히 아픔이나 상처가 아니다.

시인 고은은 그의 한(恨) 이야기에서 "한은 중국어로 헨(미움)이고, 일본어로는 콘(원한을 품음), 몽골어로는 호로술(슬픔), 만주어로는 코르소쿠카(증오, 슬픔)이고, 베트남어로는 한(좌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6]

한은 한국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슬픔의 정서이다. 한국 민족과는 달리 다른 민족에는 원(怨)의 정서는 있어도 한과 부합하는 정서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 한국인의 한의 개념과 다른 민족에게서 나타나는 원의 개념의 차이는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에 있다. 즉 원은 모세의 율법에 나타나듯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17]처럼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똑같은 혹은 그와 비슷한 복수를 함으로써 풀어진다. 그러나 그에 반해 한의 개념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복수를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다. 복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아픈 마음이나 상처를 자신의 마음 속에 담아 두게 된다. 그리고 그 담아둔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마다 다시금 마음속에 꼭꼭 눌러 놓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그것이 딱딱한 응어리가 되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한에 맺힌 응어리다. 그러므로 한은 밖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푸는 것이다. 이것이 한과 원의 차이이다. 한의 피해자가 밖으로의 방법 즉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정치적·사회적

---

15) Ibid., 24.

16) 김윤환, "죄의 희생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 한의 신학," http://www.shbs.net/news/read.cgi?board=culture_love&y_number=20&nnew=1 (accessed Oct. 1, 2006).

17) 출애굽기 21장 24절.

약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속한 문화가 잔인한 복수의 정서를 비교적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문화 속에 나타나는 한은 주로 2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사회적 약자로서의 한이다.

예로부터 백성의 한이 사무치면 자연의 이변(異變) 또는 재해를 통해 위정자들에게 경고가 내려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을 푸는 일은 중요한 치정(治政)의 하나였다. 그러나 끊임없는 외침과 내란의 역사 속에서 수난의 삶을 살아야 했던 민족적 비원(悲願)과, 양반·상민·천민 구조의 뛰어넘을 수 없는 뿌리 깊은 계층의식은 깊은 한의 원인이 되었다.

둘째, 엄격한 남존여비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의 한이다.

남성들의 횡포, 순종(順從)을 미덕으로 강요당한 시집살이의 고달픔, 가난으로 인한 굶주림 등은 전통사회 속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겪었던 애환이었다. 이것은 한국 문화 속에 뿌리내린 한의 한 갈래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한을 푸는 방법으로 서민들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선호된 것은 민간신앙 및 종교였다. 한국 문화 속에 뿌리내린 갖가지 굿 형태의 민간신앙은 대부분 한과 원의 풀이다.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생활 속에 일상화되어 있는 속담·설화·민요 및 일종의 공연예술이었던 마당극·판소리 역시 한을 표출하고 위안 받는 한 양식이었다. 나아가서 많은 시가와 소설 역시 한의 정서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신분의 한계 또는 서글픈 인생의 경험에서 쌓인 한을 무력한 체념이 아닌, 억제된 우울이 아닌, 복수를 위한 폭력이 아닌, 음악과 놀이와 문학작품으로 승화하는 해한(解恨)의 의지를 보여 왔던 것이다. 한을 푸는 방법에 건강한 웃음과 익살과 해학이 수반되었다는 점이 그것을 입증 한다.

기독교에서 한에 대한 개념은 없었다. 한의 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민중신학자들에 의해서다.[18] 그는 또 세계적인 과정사상 연구지인 프로세스

---

18) 김윤환, "죄의 희생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의 신학," http://www.shbs.net/news/read.cgi?board=culture_love&y_number=20&nnew=1 (accessed. Oct. 1, 2006). "박승호는 그의 책 상처받은 하나님의 마음의 서두인 감사의 글에서 도로테 죌레의 빵만에 의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자신의 가족사를 한의 가족 연대기로 소개하고 있다. 그것은 보편적인 한국민중들이 삶이기도 하다.

센터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에 민중신학과 관련한 글을 발표하면서 전통신학이 죄의 문제만을 부각시킨 나머지 죄로 인해 고통 받는 자들의 문제를 생각지 않았는데 이러한 전통신학의 결점을 민중신학이 한의 문제를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고통 받는 자들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민중신학이 한의 개념을 발견한 것이야말로 민중신학의 가장 큰 성과라는 것이다.

Park Andrew Song도 민중신학에서 죄와 한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역시 민중신학자들에 의해서 한의 개념이 발전되었다고 말하고 있다.[19]

이정용은 "민중과 신학" 계간지를 통해서 한은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 쌓여서 생긴 것이라고 말한다.[20]

그것은 저자가 한의 신학에 접근하는 가장 체험적 동기가 됨을 알 수 있다. 그가 오늘날 기독교 신학자들이 현재의 세상에 관련된 적절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신학을 정립하는 데에 매우 중대한 일임을 적시하고,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는데 그 하나는 기독교 죄론이 오늘날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이 죄론이 관연 이 세상을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이끌어가는 데 공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세상은 지금 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세계는 지금 인종적 혹은 종교적인 폭력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죄론은 기독교가 이 세상의 악을 설명하고 다루는 데에 근본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단하는 일은 개인적, 공동적 구원론에서 매우 중요하다. 교회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왔으나 죄에 대한 회생자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간과해 왔다. 전통적인 죄론은 이 세상을 오로지 죄인의 견지에서 봄으로써 죄와 불의에 의해 희생된 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었다.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나 해방신학자들은 죄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 즉 남성 지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해석을 거부하는 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 왔다. 교회는 죄론 및 죄인에 관련된 신학적 사상은 발전시켜 왔으나, 죄의 희생자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박승호의 한의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희생자의 편을 바라보도록 도와주고 있다."

19) Park Andrew Song, "민중신학에서 죄와 한의 문제," http://www.theology.or.kr/wwwb/CrazyWWWBoard.cgi?db=jhdiscussion&mode=read&num=120&page=9&ftype=6&fval=&backdepth=1 (accessed Oct. 1, 2006).
"한의 문제가 초점이 된 기독교 신학은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주류 신학들은 죄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했었다. 라인홀드 니버는 죄에 대한 마음의 자만심과 음탕함을 주장함으로써 죄된 인간을 서술한다. 바르트에 의하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며 그것의 표식은 게으름, 거짓, 불복종과 불신앙이다. 틸리히에 따르면 죄는 이간이며 불신앙, 오만 그리고 욕망의 표현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자들은 전통신학에서 발견되는 죄에 대한 실존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해를 비판하면서 죄에 대한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차원들을 강조한다. 민중신학자들은 이들의 접근과 달리 한의 문제를 신학의 주요 테마로써 취한다. 그것은 민중신학자들이 죄에 대한 교리를 폄하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오히려 민중신학자들은 한의 개념을 발전시킴으로서 죄에 대한 교리를 보완하려 한다는 것이다."

20) 이정용, "민중신학에 대한 비판적 소개," http://minjungtheology.org/magazine/magazine_read.asp?fdMonthSeq=24&fdSeq=3 (accessed Oct. 1, 2006).
"민중경험의 두드러진 특성 가운데 하나는 한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고난의 형태이다. 민중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한이라는 말은 정의하기가 힘들다. 한은 고난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다. 한은 고통 받은 경험들의 결정체이다. 한이란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으면서도 보복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면서 고통 하는 감정의 결정체이다. 한은 한국 민중들이 경험하는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아닌 사람은 쉽게 민중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민중신학자들은 말한다. 한이라는 경험과 가장 비슷한 것으로는 미국의 흑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증(blues)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은 종종 원한(grudge) 또는 분개(resentment)라고 이해되기도 하지만, 이 말들이 한과 똑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 문희석은 한을 '민중이 계속해서 불법의 대상이 될 때 민중의 분노와 분개는 내면화되고 점점 심화되어 가는데, 이것이 바로 한이다.' 라고 정의한다. 한은 개인에게나 집단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데, 민중의 삶을 억압하고 뒤엉키게 하는 무의식적이면서도 의식적인 정신적인 힘의 누적된 상태를 말한다. 연세대 교수를 역임했던 서남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한에 대한 의미를 밝혀 보려고 했다. 필자는 Y.H.무역회사의 숙련된 기능공이었던 김경숙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한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김양은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와 불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국 섬유노동조합 Y.H.무역지부에 가담하였다. 1979년 8월 9일 김양을 포함한 200여명의 조합원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Y.H. 조합 간부들을 석방해 줄 것과, 폐쇄 결정을 내린 그들의 회사 공장을 다시 열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말하는 응어리, 혹은 나이테, 또 그 한은 어디로부터 왔냐는 것이다. 한 혹은 분노는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기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한 속에 살아야 할 것이다. 똑같은 폭군 아래서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속에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 속에서 산다. 그렇다면 폭군의 폭력이 한을 유발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폭군의 폭력이 한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것이다. 분노나 한이 생기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다. 즉 바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감정이고 생각이다. 그런데 그 감정과 생각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감정이나 생각은 바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나의 상대적 반응이다. 상대적 반응이란 상대세계 혹은 분별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상대가 아닌 절대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반응들이다. 교차로에서 차를 정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차가 움직인다. 내가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나 생각하고 다시 힘껏 브레이크를 밟는다. 그런데도 차가 움직인다. 그러나 그것은 내차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옆의 차가 움직인 것이다. 옆의 차가 움직였는데 마치 내 차가 움직인 것으로 반응한 것이다. 그런 경우 옆의 차가 내 차보다 크면 클수록 더 잘 반응한다. 가령 내 차는 작은 승용차인데 대형버스가 내 옆에 서 있으면 내 차가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반응을 한다. 차의 속도도 그렇다. 내 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주변의 차가 나보다 더 빨리 달리면 내 차는 천천히 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내 차는 매우 빨리 달리고 있다. 이처럼 반응은 상대적인 것이다. 상대가 있기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 위하여 신민당 당사에 갔다. 8월 11일 1,000명의 경찰들이 개입해서 조합원들을 해산시켰다. 경찰들이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김양이 죽었다. 당시 21살밖에 안된 김양은 조합의 실행위원회의 위원이었다. 김양은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공장에서 노동하던 8년 동안에 과로해서 코피를 흘린 적이 수도 없이 많았으며, 3개월간은 봉급도 받지 못하고 일했으며, 헐벗고, 굶주렸고, 겨울에는 난로도 없이 일했다고 썼다. 김양은 노동운동을 통하여 이러한 악조건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것이다. 김양의 죽음은 800만 한국 노동자들의 한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한은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 쌓여서 생긴 것이다. 1980년에 독재정부는 광주 시민이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데모를 한다는 이유로 2000명 이상의 무죄한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빼앗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한이 맺히게 되었다. 한은 민중의 경험이다. 한국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한이 맺힌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외국의 침략자들과 지배자들의 희생제물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중신학은 한의 신학이다. 기독교 사제는 한의 사제이며, 그리스도는 민중들을 한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 한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민중은 해방을 얻게 된다. 한을 푸는 방법을 단(斷)이라고 말하는 데, 단이란 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이나 생각의 반응도 상대가 있기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는 성형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적어도 한국사회는 유교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라.' 즉 내 몸과 피부와 머리카락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 하여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사회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머리를 자르라는 단발령(斷髮令)을 듣고 내 목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고까지 하였다. 그런데 그런 한국사회에서 얼굴에 칼을 댄다는 성형열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열풍이 부는 것은 비교의식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부모로부터 받은 얼굴일지라도 성형을 해서 바꿔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이나 생각은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내 안의 반응이다. 그런데 내가 반응하고자 했던 대로 반응을 하였으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 혹 있다 해도 그것은 내게 분노나 한을 남기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분노나 한으로 남게 된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또 "내가 그때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반응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한다. 또 그때의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는 오늘 주어진 삶의 왜곡(歪曲)이다. 계속해서 남아있는 생각과 감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은총으로, 선물로, 감사함으로, 자유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에 계속해서 얽매인 부자유한, 불만의, 원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데이비드 씨맨즈는 이렇게 말한다.

> '나는 좋은 사람이 못돼.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어. 내가 하는 일은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마음의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얼마 동안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그의 안의 모든 감정은 '다 거짓말이야! 믿을 수 없어! 기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들으신다고? 그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아. 그 누구도 나의 근심을 경감시킬 수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어?

> 세상에 나처럼 나쁜 사람은 없어.' 그의 마음은 분명 복음을 갈망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복음은 그의 상처받은 마음속으로 스며들어가 파고드는 데 실패했다.[21)]

지금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또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노와 원망과 나아가 한에 맺힌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가 이미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때의 일이다. 그때의 일은 지금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다. 과거의 일이란 실제하는 일이 아니다. 실재(實在)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내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허상일 뿐이다. 그것은 지금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일이다. 누구에게도 내 놓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은 단순히 내 기억에서만 존재하는 일이다.

선승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벽암록에 보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 혜가는 껍질 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쪼듯이 열심히 조았지만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깨질 것 같지 않았다. 어미닭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달마다. 혜가는 달마를 찾아가서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달마는 만나고 싶지 않았다. 죽더라도 한 번 제 힘으로 깨쳐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달마의 문전에서 혜가는 3일을 떠나지 않았다. 백일동안 눈이 내려 무릎을 넘는 추운 겨울날, 혜가의 정성도 그 이상 지탱할 수는 없게 되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진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것뿐이었다. 드디어 비수를 꺼내서 자기의 왼팔을 잘랐다. 왼팔이 떨어지는 동시에 문이 열렸고 달마의 얼굴이 나타났다. '너는 무엇 때문에 팔을 자르면서까지 그렇게도 야단이냐?' 혜가는 이 순간을 놓칠세라 달마에게 대들었다.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달마는 '그런 것이냐 문제가 되느냐. 마음을 이리 내놓아라. 내가 아무 괴로움도 없는 마음으로 만들어 줄 터이니.' 마치 의사 앞에 간 환자에게 다친 팔을 내놓으라는 식이다. 내놓기만 하면 곧 치료해 줄 것이요, 치료를 받으면 영원히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음속에 붙어 있는 괴로움을 청산키 위하여 마음을 내어놓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마음을 내어놓으려고 마음을 찾았다. 그런데 마음이 없었다. 어린애가 아파서 업고 온 어머니가 의사 앞에 아기를 내려놓는 찰라(刹那)에 아기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혜가는 그만 낙심하여 마음이 없다고 솔직하게 달마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달마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으면 다행이지. 무엇이나 마음이 있기에 고민도 있을텐데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괴로움도 없을 것 아닌가?'[22)]

---

21) David A. Seamands & Beth Funk, *상한 감정의 치유 워크,* 31.
22) 김홍호, *연꽃이 피기까지는: 벽암록 해설* (서울: 풍만, 1985), 19.

혜가는 달마에게 "저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니 저의 마음을 안심(安心)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자 달마는 "그렇게 괴로운 마음이 있으면 가려오라.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안심시켜 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혜가는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그 어디에도 괴로운 마음 즉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재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와 육십 배와 백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와 육십 배와 백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23]

말씀을 듣는데 듣는 자의 마음에 따라 그 말씀이 사라지기도 하고, 혹은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주어진 상황이 만든다는 것이다. 즉 환난이나 핍박의 상황일 때의 마음이 다르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의 상황일 때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 기쁘고 좋은 상황일 때가 다르다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화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영원히 지속되는 실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생성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또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변화가 없다. 진리가 불변하는 것처럼 실제는 변화하지 않는다. 변화는 허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23) 마가복음 4장 3-20절.

변화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은 구체적으로 내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시사철이 변하듯이 항상 변하고, 그 어디에도 고정시키고 담아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마음을 고정시키려는 사람이 있다.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은 마음 자체를 고정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 자체를 고정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마음은 고정시킬 수 있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다는 것이다. 스스로 고정된 틀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마음은 그 어디에도 고정시킬 수 없다. 담아둘 수도 없다. 마음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허상이기 때문이다.

분노와 한이 마음에 남아있는 나이테, 혹은 응어리라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실제가 아니라 허상이다. 기억 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이다. 또 분노와 한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도 기억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노와 한은 사라질 수 있다. 처음부터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만들어진 허상이기에 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억 속에서 존재하는 허상은 실재를 경험할 때 사라진다. 진실을 보았을 때 거짓이 사라지듯 실재를 경험하면 허상은 사라지게 된다. 실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수가 말했던 거듭남이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와 니고데모가 나눈 대화가 있다.

>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24]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세상은 진리의 세상이다. 실재를 보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분노와 한의 감정 즉 허상의 세상에 묶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허상을 벗어나 실재를 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25]라고 말한다. 마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

24) 요한복음 3장 1-5절.

움직이는 것이다. 즉 실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기 마음을 지켜 허상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재를 보게 하면 더 이상 한에 얽매여 있지 않게 된다. 또한 분노에 갇혀 살지 않게 된다. 더 이상 화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2) EGO를 넘어설 수는 없는가?

나는 누구인가? 고대로부터 인간은 수수께끼처럼 여겨져 왔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인간 존재자체의 질문은 고대 희랍 소피스트들에서 시작하여 작금(昨今)에 이르기까지 모든 철학에서 언급이 안 된 적이 없었다. 인간인 나는 누구인가? 혹은 인간은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하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다. 또 동시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각양의 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사회현상 속에서 그것과 부딪히고 대치되고 있는 현재의 인간에 대한 물음이 요구되고 있고, 나아가 과학의 발전과 함께 그 발전으로 일반적인 자연재앙을 극복한 듯싶었던 인간이 다시금 자연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나약함을 발견했을 때 또다시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 질문은 역사를 거듭하면서도 계속해서 던져지는 질문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 이해에 대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생물학적 인간이해다.

생물학적 인간이해는 인간을 동물과 비교하여 인간을 규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존재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 동물의 경우는 그 종(種)에 따라 일정한 환경에서 살고 또 그 반응에 있어서도 대단히 충동적이며

---

25) 잠언 4장 23절.

본능적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들이 활동하는 생활권 밖에는 확고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해서 그것을 적응해야만 한다. 그래서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태어난 환경에서 살다가 또 그 환경에서 죽어간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새로운 환경을 개척하고, 또 변화해 간다.

인간은 바깥세계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으며 외계의 신호에 대해서 강한 자극을 받는다. 또 동물에 비해 본능도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의 본질을 발견하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다. 한림대학교 생사학(生死學) 연구소 홈페이지의 글에 죽어가는 사람의 9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동물' '미완성 교향곡'이다. 삶의 방식이 이미 확정된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의 경우 이미 확정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했다.[26] 인간은 틀에 규정된 존재가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불안전한 존재이긴 하지만 동시에 문화를 창조하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문화에 의해서 그 본성이 제어당하고, 또 조절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문화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육체적 생물학 혹은 문화적인 생물학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인간 이해를 위해서는 매우 빈약한 논리임에 틀림이 없다.

두 번째로 인간이해의 방볍은 문화인류학적인 방볍이다.

인류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인간이란 문제가 제기될 때 전체개념에서 파악되지 않고 인종중심주의에서 파악되었다. 이러한 현상에서 파생된 것이 백인 인종주의와 이방인 배타주의이다. 또 그런 측면에서 인종중심주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문제가 제기되면 같은 민족에게만 적용될 수 있었고, 다른 민족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았다. 즉 타민족에 대해서는 항상 배타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피부색과 그 생김새만이 다를 뿐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규정하지 않고 차별을 하고, 혹은 짐승처럼 노예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즉 타민족을 '인간'으로 불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백인 인종중심주의는 인간의 마음 밑바닥에 깔린 불안 때문이라고 한다. 이 불안감이 인간을 타인에 대한 반감으로 몰아가고 이방인에 대한 증오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긍정하는 것은 자기와 동일시하여

26) 한림대학교 생사학 연구소, "죽어가는 사람의 9가지 유형," http://www.huspc.or.kr/main.php?oxid=31 (accessed Oct. 12, 2006).

받아들이고, 자기 속에 부정하고 싶은 것들은 외국인에게 투사하여 자기와 구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외국인은 적이요, 노예로 살아야 할 야만인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피스트들은 희랍인과 야만인 사이에 공통된 인간성(*humanitas*)이 있다는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후에 이 사상을 스토아 철학이 받아들였고, 그들은 민족 간의 역사적 문화적 차이보다도 인간의 본질 속에 있는 공통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로마인이냐? 야만인이냐? 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이냐? 비인간성이냐? 의 문제로 인간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화인류학은 인간과 인간을 비교할 때 발생한다. 각기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던 상이한 문화가 서로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절대적 지식의 한계성을 경험하게 된다. 그때 던져지는 질문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혹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다. 문화인류학은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지는 경험의 영역에서만 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인간존재에 대한 물의 장을 문화라는 측면으로 확장을 하였다고 보지만 역시 그런 측면에서 온전한 인간이해는 부족하다고 본다.

세 번째 인간이해는 종교적 인간이해다.

이것은 인간을 신성과 비교함으로써 인간의 운명과 숙명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신에 대한 인간을 말할 때 이것은 생물학이나 문화인류학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인간은 신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의 비신성과 비열성과 그의 지상성(*earthness*)으로 경험한다. 중세의 인간성이라는 말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위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비천함과 오류 범하기와 신의 영원성에 대조된 가멸성을 의미한다.

인간은 신의 영원성 앞에서 순간 사라져 버릴 유한성을 경험하며 자신의 진리와 진실 앞에서 거짓을 경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와 진실의 감동 아래서 시편기자는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27] 고 고백하고 있다. 종교적 경험에서 인간은 하나의 절대적 인간의 이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

[27] 시편 116편 11절.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화가 경험된다. 문화 가운데서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었던 인간은 신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라고 묻게 된다. 종교적 인간학은 바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인간에게서 찾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라는 것은 인간은 우연적이며 유한한 존재임을 뜻한다.[28] 김균진은 이 말을 "인간은 있을 수밖에 없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연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시간과 함께 우연히 있게 된 존재이다.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의 결단과 능력으로 존재하게 된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힘으로써는 어찌할 수 없는 힘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29] Brunner나 김균진의 말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비교 속에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그 존재를 파악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상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해는 어떤 것도 분명하게 "나는 누구인가?" 혹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확고한 답을 주지 못한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해를 인간과 동물, 인간과 인간 혹은 인간과 신의 관계라는 도식에서만 인간 존재를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존재를 밝히는 것은 상대적이고 현상적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원숭이와 다른 존재다." "유색인과는 다르다."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아버지다. 형제다. 사장이다. 또 상처를 받았다. 입혔다." 하는 모든 것으로 자신을 확인하고 파악한다는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는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 교단과 교단의 분열, 교회의 분열, 교인들 간의 분열은 그 깊이가 너무 치유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모든 문제를 관계성에서의 나인 ego에서만 보기 때문이다. 즉 남편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아내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또 그것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상처들이다. ego는 관계에서 만들어 진다. 관계가 없을 때 ego는 없다. 관계할 때만 ego가 생긴다. 남편이라는 ego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생긴 것이다. 반대로 아내라는 ego도 남편과의

---

28)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II*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9), 23.
29) Ibid.

관계에서 생긴 것이다. 내가 부모라는 ego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교회에서도 그렇다. 내가 목사라는 ego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평신도가 있기에 목사라는 ego가 만들어진 것이다.

상처의 문제도 그렇다. 상처는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장로가 목사에게 교회를 떠나달라고 해서 목사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그럼 목사가 받은 상처는 어떤 상처인가? 그것은 목사라는 ego가 받은 상처다. 장로와 목사라는 관계구도에서 만들어진 ego가 상처를 받은 것이다.

만약 이런 ego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ego가 사라진다는 것은 관계성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즉 관계하는 모든 딱지(tag)들을 떼어낸 본질적인 원형(*archetype*)으로서의 나라는 존재를 보라는 것이다. 원형으로서의 나를 볼 때 ego를 뛰어 넘는다. 그 원형으로의 나는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고, 아무런 문제에도 얽매여 있지 않는 나다. 바로 그런 나를 알아차리고 찾을 때 ego를 넘어서게 된다. ego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ego를 넘어서는 길은 관계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관계는 그것이 자연이나 동물이나 타인종이나 하나님이나 계속해서 ego를 만들어낼 뿐이다. 관계는 결코 ego를 극복하지 못한다. ego를 극복하는 길은 관계가 사라질 때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절대적인 나를 보는 것이다(*new seeing*).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만나는 것이다. 그러할 때 ego를 넘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인 self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인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모든 한과 분노와 화와 상처는 ego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ego를 벗어나면 한이 없는 나를 발견한다. 또 분노 없는 나, 화가 없는 나를 발견한다. 즉 self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sefl가 원형으로서의 나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원형으로서의 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모든 한이 사라진다. 분노가 사라진다. 화가 사라진다. 한과 분노와 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보는 것이다. 즉 그 동안의 ego에서 벗어난 원형으로서의 self를 말하는 것이다.[30] 주 안에 있는 나는

---

30)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즉 주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더 이상 상처로 괴로워하는 나가 아니다. 주 안에 있는 나는 더 이상 원망이 있는 나가 아니다. 주 안에 있는 나는 더 이상 분노나 화나 한이 있는 내가 아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사라져서 모두를 품어 줄 수 있는 사랑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상대가 누구이기 때문이라는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부모이기 때문에 더 사랑함도 없고, 자녀이기 때문에 더 사랑함도 없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에 덜 사랑함도 없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는 모든 관계를 뛰어 넘어 있음 자체로 존재한다.

화담 서경덕은 이러한 상태를 태허(太虛)로 설명하였다. 태허는 기(氣)의 본질이다. 태허는 깨끗하고 형체가 없는 것으로 선천(先天)이라 이름 붙일 수도 있다. 그러나 비어 있되 그저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크기는 한정이 없을뿐더러 그에 앞서서 아무런 시초도 없으며, 그 유래는 추궁할 수도 없다. 다만 맑게 비어 있고,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無)인가? 그러나 무도 아니다. 우주에 가득 차 있고 어떠한 빈틈도 허용치 않는 상태로 있으면서 잡으려 하면 잡히지 않으니 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잡히지 않을 뿐이지 없는 상태는 아니기에 무는 아니다.[31]

self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모든 관계로 맺어진 ego로 인해 파생된 분노, 화, 한과 같은 것들이 사라진 상태다. 또한 self는 원형으로서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내 존재의 근원이다. 이런 내가 진정한 나 자신이고,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모든 분노와 화와 한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2. 성서적 질문

1)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8장 31-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 모두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31] 김상규, *화담 서경덕 2* (서울: 도서출판 아침이슬, 2005), 275.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Saint-Exupery의 어린왕자에서 사막의 여우는 떠나가는 어린왕자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준다면 이렇게 말을 한다.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32]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것이 진리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고 진리를 찾을 수는 없다. 진리를 찾으려면 보이지 않는 무엇을 보아야 한다. 그럴 때 진리가 찾아지는 것이다. 한자말에도 즉유이관무(卽有以觀無) "있음에 나가 없음을 보라."는 말이다.[33] 즉 보이는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것이다. 이 말은 보이는 사물 속에 숨겨 있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라는 말이다. 이는 성경 로마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34]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즉 진리를 숨기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모두가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가 보여 지지 않았기에 혹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불교의 선승들에 관해서 기록한 벽암론에 지도무난(至道無難)란 말이 있다. 도에 이르면 어려울 것이 없다는 말이다. 여기서 도란 진리를 말한다. 즉 진리에 이르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

32) Antoine Marie-Roger de Saint-Exupery, *어린왕자*, 안응렬역 (서울: 학원출판공사, 1985), 91.

33) 이현주, *이 아무개 목사의 로마서 읽기* (서울: 호미, 2002), 33.

34) 로마서 1장 16-20절.

하리라."[35]라고 말씀하였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다. 진리는 만물 속에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알게 되면, 또 깨닫게 되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런데 그 진리란 무엇인가?

칸트는 진리에 대해서 "진리는 인식과 그 대상의 일치"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을 칸트식으로 표현하면 "사실과 인식가능의 합치"로 규정할 수 있겠다. 여기서 사실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말함이고, 주어진 그대로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칸트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말하지 않는다.

헤겔에게서 진리는 학문으로서 철학이 포착하려는 가장 중심적인 테제가 된다. 헤겔의 체계에서의 진리의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쟝 그로댕은 그의 저서 "해석학적 진리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헤겔에서 진리가 중심문제로 부각하는 한, 진리는 과제, 대상, 목표, 내용, 그리고 철학가능성의 조건으로서 특징 지워진다."[36]

칸트가 말하는 진리와 헤겔이 말하는 진리는 그 모두가 신에게만 국한 되었던 진리의 개념을 인간으로 끌고 내려왔다는 것이다. 즉 그들은 인간의 상반되는 유한성과 초월가능성의 분석을 통하여 진리를 그 뿌리부터 새롭게 하였다는 것이다. 인간에 근거를 둔 진리는 결코 인간을 완전한 자유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이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그 진리를 신적차원으로 끌어 올리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상근은 진리란 과학의 세계, 철학의 세계 등에도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 진리를 알 때에 자유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단순히 무지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의 자유를 말하며 그 자유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는 것이다.[37] 그 자유가 묶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의미 즉 탈출의 개념뿐이라면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그것은 탈출과 함께 또 다른 묶임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라고 이름 하는 새로운 이름이고, 틀이다. 가령 신앙생활을 하면 주일에 물건을 사면 안 되고, 유희를 즐겨도 안 되고,

---

35) 요한복음 8장 32절.
36) 박선균, "칸트와 헤결의 진리개념," http://maincc.hufs.ac.kr/~phila/active/journal/ph02/ph02_06.htm (accessed Oct. 15, 2006).
37) 이상근, *신약주해 요한복음* (서울: 기독교문사, 2003), 171.

또 술을 먹어서는 안 되고, 담배를 피워서도 안 되고, 대중가요를 불러도 안 된다고 한다.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리를 진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또 다른 틀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은 자유가 아니라 만족이다.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생기는 만족이고, 이전 것에서 벗어났다는 자아 도치다. 만약 이런 것을 자유라고 한다면 이 자유는 얼마 못가서 그것이 새로운 틀이 되어 자신을 옭아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될 것이다.

예수는 마태복음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38]고 하였다. 나의 멍에란 것은 지금 예수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고, 삶의 철학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 안에서의 삶이다. 예수의 삶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쉽고 가벼운 것은 그가 어떤 틀에서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틀을 깨트리고, 모든 틀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예수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예수는 먹보요 술보"라고 했다. 예수는 술을 술로 보았고, 음식을 음식으로 보았다. 그 이상도 아니도 더 이상도 아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을 술을 술로 보지 못했고, 또한 음식을 음식으로 보지 못했다. 술은 "무엇 무엇 한 것" 또 음식도 "무엇 무엇 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틀과 규정이다. 그렇기 때문을 술 한 잔을 보고 먹어도, 또한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술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틀과 규정 속에서 마시고 먹기 때문에 마시고 먹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틀과 규정을 깨트렸기 때문에 마시고 먹음이 쉽고 가볍고 자유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삶은 항상 가벼웠고, 쉬웠다.[39] 진리는 틀이 아니라 그 틀을 깨트리는 것이다. 예수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틀을 깨트렸다. 그리고 자유 했다. 틀을 깨트렸기 때문에 자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틀을 만들어간다. 혹은 틀이 주어진다. 4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더럽다는 개념이 없다. 그래서 자기의 똥을 자기 몸으로 뭉개고, 심지어 먹기까지 한다. 그들에게는 똥이 더럽다거나 지저분하다거나 하는 틀이 없기

---

38) 마태복음 11장 28-30절.

39) 조태연, "성서해석학," (강의, Summer Intensive 과정, 2005. 7, at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New York City).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부모가 그 아이에게 “지지” 혹은 “안 돼” “더러워”라고 하는 말을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는 똥을 더러운 것으로 생각한다. 틀이 생기는 것이다. 또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많은 교육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교육이 틀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안 되는 것을 많이 요구한다. 바로 그 안 되는 것들이 그들의 삶에 틀로 다가오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런 틀 속에서 계속 자라난다. 그 틀이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줄도 모르면서 말이다. 신앙도 그렇다.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 1세기 당시 미쉬나와 토세프타, 그밖의 랍비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안식일 하나에만 나타난 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40]

안식일 이전에 일 끝내기

랍비들은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일을 끝내도록 하기 위해 다양하고 세심한 조처들을 취하고 있다. 라반 시므온 벤 가말리엘 2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그들은 보통 이방인이 경영하는 세탁소에 안식일 3일 전에 흰색 옷들을 맡기고는 하였다.” 여기서 안식일 3일 전이라는 시간제한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안식일까지 세탁 일을 끌고 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조처다. 랍비 엘리에젤은 케이크 밑바닥이 딱딱해질 시간이 남아 있지 않는 한 케이크를 숯불에 올려놓는 것을 금하고 있다.

안식일에 금지된 행동들

랍비들은 안식일에 허용된 행동들과 금지된 행동들을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다. 랍비 엘리에젤은 여인이 안식일에 관(冠: 일명 황금 도시), 헤어네트, 향수병 등을 장식하고 집을 나가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랍비들은 이들 모두를 금하고 있다. 한편 한 사람이 말린 무화과 용량보다 적은 양의 채소 씨앗이나, 두 개의 오이 씨앗, 두 개의 조롱박 씨앗 등을 집에서 가지고 나간다면 그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랍비 엘리에젤은, 만일 한 사람이 그의 손톱이나 머리카락 등을 깎거나 뽑으면 그리고 한 여인이 자신의 머리를 손질하거나 자신의 눈꺼풀에 화장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그러한 자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

40) 양용의, “안식일 규정,” www.sul9191.com/imrtj/2002-4/5신학자료/구약에%20나타난%20안식일(3)%20바리새인들.htm (accessed Oct. 16, 2006).

선언한다.

안식일에 두 글자를 이어 쓰는 것을 금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라반 가말리엘 2세는 만일 한 사람이 동일한 안식일에 무심코 행한 두 행동 중에 각각 한 자씩 써서 두 자를 썼을 경우, 그가 과실이 있다고 선언한다. 이에 반해 현자(賢者)들은 그가 과실이 없다고 선언한다. 랍비 엘리에젤은 꿀벌 통에서 꿀을 긁어모으는 자는 과실이 있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그는 꿀을 긁어모으는 행동을 '추수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랍비 요하난은 인간의 안전을 위해 전갈을 접시로 덮어놓는 행동을 허용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이는 아마도 그가 그러한 행동을 동물을 사냥하는 행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인 것 같다.

안식일에 우선하는 문제들

1세기 랍비들은 안식일의 구속력을 벗어나는 몇 가지 예외 규정들을 만들었다. △할례 △안식일 제사 △유월절 △화재로부터 성경이나 음식물을 구해내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자기 방어적 전쟁. 한편 랍비 아키바는 무슨 일이든지 안식일 전날에(혹은 전야에) 행해질 수 있는 일은 안식일에 우선하지 않지만, 안식일 전날에(혹은 전야에) 행해질 수 없는 일은 안식일에 우선한다는 일반 원칙을 규정한다.

여행 한계에 관한 규례들

안식일 여행 한계가 2천 규빗(약 900m)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식일 여행 한계에 관한 1세기 랍비들의 규칙은 매우 상세하고 세부적이다. △이방인이 한 사람을 다른 도시나 가축(家畜) 우리에 데려다 놓았을 때,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 △바다 위에 항해하고 있는 배 위에서 걸을 수 있는 거리(전 영역; 4 규빗) △여행 중에 밤이 된 줄을 모르고 잠이 들었던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2천 규빗, 4 규빗, 2 규빗) 등.

안식일과 언약

3세기 랍비 문학 전체를 통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 자들에 대한 약속과 관련된 두 가지 언급을 발견한다. 랍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개의

축제들(즉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주실 것이라고 말한다. 랍비 엘리에젤은 그들이 세 가지 재앙(즉 곡의 날, 메시아의 도래에 앞서 있게 될 환난, 대심판의 날)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언급들이 3세기 랍비 문학 전체를 통해 안식일의 언약적 의의(意義)에 대한 바리새적 사상을 그것도 간접적으로나마 증거해 주는 모든 경우이다.

예수는 이렇게 틀이 많았던 당시의 시대를 향해서 과감하게 그 틀을 깨부수었다. 그리고 그 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틀에 갇혀 있게 되면 내 원함의 삶을 살지 못한다. 사람은 원함 속에서 살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원치 않음 속에서 살기 때문에 분노와 화가, 나아가 한이 그리고 원망과 탓 속에서 살게 된다. 그러므로 틀은 인간을 분노의 삶으로, 한의 삶으로, 원망과 탓의 삶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를 옭아매고 있던 그 틀이 깨지면 삶이 자유하다. 자유한 삶은 분노와 한과 원망과 탓이 아닌 기쁨과 행복을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예수는 바로 이런 진리 즉 분노와 한이 그리고 원망과 탓이 사라지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진리가 모두를 자유케 한다고 외치는 것이다. 진리는 틀을 깨트릴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진리안에서의 자유는 모든 틀이 사라질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진리가 아니다. 규정하게 되면 그 즉시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예수는 모든 틀을 깨트리고 잡혀온 여인을 보았다. 아무런 틀이 없으니 거기엔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 용서도 없다. 보는 예수도 자유하고, 예수가 보고 있는 그 여인도 자유하다. 죄도 없고 용서도 없고, 오직 자유만이 있기에 거기엔 또 한이 없다. 분노나 화도 없다. 한과 분노와 화가 사라진 평화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2)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

누가복음13:10-16 / 십 팔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십 팔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상근은 본문이 갈릴리의 어느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였다.[41]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촌이다. 어디나 그렇듯이 빈촌에는 환자들이 많다. 갈릴리 역시 그런 지역적 환경 때문에 환자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치유사역도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2005년 6월에 필리핀의 바세코라는 지역에 의료선교를 다녀왔다. 이 지역은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서 5분 거리도 안 되는 지역이다. 본래 지명이 있는 지역이 아니었는데,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방파제 위에다 집을 지으면서 마을이 형성된 곳이다. 그래서 행정상의 이름도 없다. 단지 그 지역의 바세코라는 해운회사의 이름을 따서 바세코라고 부른다. 이 지역을 주변의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낙후된 곳이다. 상하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만조(滿潮)때가 되어 바닷물이 마을로 들어오거나, 우기 때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집집마다 오물에 잠기게 된다. 또 마닐라의 쓰레기가 이곳으로 운반되는데, 그 쓰레기들이 거리를 가득 메운다. 쓰레기가 오는 날에는 아이들이 쓰레기차를 따라 다닌다. 차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일제히 쓰레기 더미 속에 들어가서 쓸만한 물건을 골라낸다. 이런 지역적 환경으로 인해 가정마다 피부병 환자들이 즐비하고, 감기에, 폐렴에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그런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여자들이 돈을 벌어온다. 그러나 그들의 직업은 대부분 매춘이다. 쪽배를 타고 가서 항구에 정착한 배위에 올라가 매춘을 한다. 남자들은 직업을 얻을 수 없어서 집에서 소일하고, 그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마약을 손을 댄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경험했다.

본문의 환자도 갈릴리의 지역적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더욱이 처음 질병이 나타났을 때 초기에 치료하지 못하고 계속 방치되어 그 기간이 18년이나 된 것이다. 이상근은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졌다”는 환자의 상태를 이중으로 굽어 예수의 얼굴도 바로 보지 못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말한다. 동시에

41) 이상근, *신약주해 누가복음* (서울: 기독교문사, 2003), 229.

환자는 착하고 믿음이 깊은 여성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예수가 그녀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한 것, 회당 예배에 참여한 것, 누가복음 5장 23절에서처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지 않았던 점등이 그것을 표시한다.[42]고 말하고 있다. 예수가 치료해 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불쌍한 사람이다.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환자였다. 그래서 예수도 그녀를 보고 불러서 "네 병에서 놓였다."고 선포하면서 안수를 해 주었다. 그러자 여자의 굽었던 허리가 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화를 낸다.[43]

회당장의 분냄은 두 사람을 향한 분냄이다. 하나는 예수를 향한 분노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여자를 향한 분노다. 왜 안식일에 와서 병을 치료받았냐는 것이다. 분을 낸 회당장은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첫째는 이 병 고침의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문자적인 율법주의적 선입관으로 반대부터 한 것이고, 둘째는 예수께 직접 묻지 못하고 무리를 충동시키고자 한 비겹한 태도였다.[44]

회당장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가 있다. 그가 말하기를 "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라."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다. 사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회당장의 말은 옳은 말이다. 일주일 중에 왜 하필이면 오늘 안식일에 와서 병을 고치고, 또 고침 받냐는 것이다.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말한다. 목사가 틀렸다고 한다. 장로가 옳다고 한다. 반대로 장로가 틀렸고 목사가 옳다고 한다. 또 어느 교단은 옳고 다른 교단은 틀렸다고 한다. 사람이 많은 모이는 교회는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서 틀렸다하고, 적게 모이는 교회는 적게 모이는 대로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아서 틀렸다고 한다. 과연 목사의 말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장로의 말이 옳은 것인가? 또 어떤 교단이 옳고,

---

[42] Ibid., 229.
[43] 누가복음 13장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 하거늘"
[44] 이상근, *신약주해 누가복음*, 230.

어떤 교회가 옳은 것인가? 그런가하면 목사가 틀린 것인가? 장로가 틀린 것인가? 그리고 어느 교단이 틀리고, 어느 교회가 틀린 것인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상황이고, 판단이다. 그들은 그것이 율법이고, 신이 준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들이 만든 것이다. 그들의 생각의 부산물이다. 그래서 그 기준은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 변하게 된다.

한국에 고려장이라는 말이 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1882년에 나온 그리피스의 "은자의 나라 한국(Corea, the Hermit Nation)"에 고려장이 *Ko-rai-chang*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면서 설명하기를 "고려장(*Ko-rai-chang*)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세한 내용은 충분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노인을 산 채로 묻어버리는 풍습이었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가 들어서서 이 악습을 폐지했다고 이 책은 설명한다.[45]

고려장은 고려시대 때에 있었던 풍습으로 장(葬)이란 말은 "장사 지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고려시대 때에 행해졌던 장례의 방법, 풍습이라는 것이다. 그 시대에서는 부모가 연로해서 움직이기 힘들면 깊은 산속에 굴을 만들어서 며칠 간 먹을 것을 놓고 온다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한다고 이웃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21세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 지난달까지 경기도 A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강모 할머니(71)는 최근 병원측의 신고를 통해 다른 곳으로 가야 했다. 할머니의 아들이 병원비를 750여만원이나 체납하고 연락을 두절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선납형태로 이뤄지는 요양병원들 특성상 초기 선납급이 적을수록 월납급이 적어 부담이 적다. 하지만 여유가 없는 경우 적은 선납금을 지불하고 월납금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아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몇 개월간 밀린 병원비에 대해 독촉하자 연락을 끊은 것 같다"고 전한다. 더불어 "경제사정이 어려워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기다렸다"며 "이후 몇 주 더 기다렸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아 신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할머니는 현재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무료노인요양시설로 옮겨진 상태다. 시설 관계자는 "아무리 치료를 할 형편이 못 된다 하더라도 자기 부모를 버리는 게 할 짓이냐"며 하루빨리

---

[45] 초록불, "고려장," http://orumi.egloos.com/2523096 (accessed Oct. 17, 2006).

연락이 닿길 기대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들에게 죽기 전 버림받았다는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된 상태로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46]

현대판 고려장이다.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고려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다 고려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인터넷에 글이 올라올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연은 틀이다. 그 시대가 만들어낸 형식이고 틀이다. 그러나 그 틀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언제고 변할 수 있는 틀이다. 그런데 그 틀이 완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까지 한다. 예수 시대의 종교지도자들이 그러했다. 아니 오늘 이 시대도 그런 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사회를 판단한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말하고, 그 논쟁에 휩싸인다. 예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선포한다.[47] 틀을 만들고 그 틀에 갇혀 사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외형으로만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 즉 이분법의 관계를 만든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은 동지고,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은 적이다. 또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한다. 틀은 분노를 자아낸다.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같아야 되는데 다르게 생각한다. 그럴 때 화를 낸다. 또 그 화에 상대는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틀은 분노를 만들고, 한을 만든다.

예수는 틀에 갇혀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면서 십팔 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48]고 선포한다. 예수는 틀에 갇혀서 외식하며 분노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을 향해서 그 틀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틀을 깨고 있다. 틀은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틀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또 깨져야

---

46) 이유명, "현대판 고려장," http://news.chol.com/index.php?cmd=doc&sd=20061027&ed=20061027&cat=SOCIAL&newsid=NEWSIS_515874 (accessed Oct. 17, 2006).

47) 누가복음 13장 15절.

48) 누가복음 13장 16절.

한다. 예수는 그 틀을 깨트리러 이 땅에 온 분이다. 틀 속에 갇혀서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의 눈은 옳고 그름에의 구별이 없다. 단지 모두가 사랑해야 할 아브라함의 아들들이고, 딸들일 뿐이다. 예수의 이 눈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눈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든 다음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49] 스스로 창조한 모든 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나쁨이 없다. 좋음만이 있다. 좋음은 틀이 없다는 것이다. 틀이 없으니까 좋고 싫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틀이 있으면 좋고 싫음이 분명해 진다.

겨울은 싫고 여름이 좋다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여름은 싫고 겨울이 좋다는 사람이 있다. 봄은 좋은데 가을은 싫다는 사람도 있다. 역시 반대로 가을은 좋은데 봄은 싫다는 사람이 있다. 각기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겨울이 싫은 사람은 추위를 타는 사람이다. 반대로 여름이 싫은 사람은 더위를 타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을 싫어한다. 본인도 그렇게 세상을 끝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지만 각기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계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봄도 좋으시고, 여름도 좋으시고, 가을도 좋으시고, 겨울도 좋으시다. 하나님은 다 좋은 계절이다. 틀이 없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은 틀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틀이 있는 곳은 분별이 있는 곳이기에 옳고 그름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기에 한이 있고, 분노가 있고 화가 있다. 그러나 그 틀이 깨질 때 옳고 그름의 분별지(分別智)가 없어진다. 분별지가 없는 곳에는 한도 없고, 분노도 없고, 화도 없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셨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고, 18년된 환자를 향해서 보았던 예수의 눈이 바로 그런 눈이다. 이런 눈을 가지게 될 때 한도 없고, 분노도 없고, 화도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

---

49) 창세기 1장 31절.

3. 정의적 질문

1)이 땅에 약자는 누구며 강자는 누구인가?

한국사회의 심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회는 지난 500년간의 조선시대의 유교사회다. 조선시대 유교사회는 양반, 평민, 상민, 천민의 계층으로 나뉘는 유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양반중심의 윤리체계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유교사회는 계층 간을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구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의 역사를 반만년이라고 한다. 반만년은 5천년이다. 미국의 역사를 200년이라고 할 때 한국의 역사는 가히 장구한 역사임에 틀림없다. 한국은 오랜 역사를 지녔기에 그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전통이 다양하다. 특히 근대화를 맞이하기 직전인 조선시대 500년은 아직도 오늘을 살고 있는 한국민들의 심성 속에 많은 것들이 남아 있다. 그래서 조선 500년의 유교적 봉건체계는 이미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곳곳에서 그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들 중에 가부장적(家父長的)인 체계, 남아선호(男兒選好)사상, 남존여비(男尊女卑)사상 등과 같은 것이 있다.

가부장제도(家父長制度)에 있어서 가장의 위치는 가족에 대하여 중심인물로서 가족통제와 지배의 권리를 가지며 가족은 가장에게 종속되어 복종하여야 했고, 가족 모두의 재산을 소유하는 권리를 가졌다. 고대 로마법상의 가부장권은 생살여탈권(生殺與奪權)까지 인정되었으며 자녀를 매각(賣却)하는 것까지도 허용되었다. 게르만법에서의 가장권은 가족을 비호(庇護)하는 의무의 면에서 인정되었다. 이와 같이 가장권은 처음에는 집안에 대해 모든 것을 통일적·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것이었지만 가족공동체가 부부 또는 부모·자식으로 구성되는 근대사회에 이르러는 부권과 친권으로 분리되었다. 한국에서도 구민법(舊民法)에 있어서 가장은 상당히 강력하게 가족을 통솔하였으며 근대 민법의 여러 규정에서 파악되는 호주권은 근대법상에 남겨진 일종의 가장권이라고도 생각되는 존재이다. [50] 이는 과거 한국사회에서도 존재하였던 가부장의 막강한 권력이었다.

---

50) Yahoo 백과사전, "가부장권," 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search/dictionaryp?p=가장-권&subtype=enc&prop=&target= (accessed Oct. 18, 2006).

남아선호(男兒選好)사상도 한국사회에서 많이 사그라지고 있는 현상이지만 아직도 그 영향력이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평균출산율 1.19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기에 출생비율만을 가지고 남아선호를 가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2003년 현재, 남녀 출생성비는 첫째 아이 104.9, 둘째 107.0로 정상 성비(103~107)를 유지하고 있지만 셋째아이 이상에서는 136.6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93년 206.6을 정점으로 꾸준히 낮아져 지금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둘째 이상의 출생에 대해서는 남아를 선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통계다.[51]

남존여비(男尊女卑)의 문제도 여전히 한국사회 속에 남아 있는 유교적 영향의 현상이다. 위키 낱말사전에 남존여비는 "남자를 높이 여기고, 여자를 낮게 봄. 유교 사상에서 비롯된 관념. 한국은 21세기에도 남존여비 사상이 많은 사람들의 의식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52] 여기 사전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국은 지금 21세기를 살면서도 유교봉건사회 속에 존재하던 남존여비의 의식이 남아있다. 남존여비란 말뜻 그래도 남자를 높이고 여자는 상대적으로 낮게 여기는 것이다. 남자를 높이고 여자를 낮게 여기는 것은 가부장권제도가 만들어낸 필연 중의 하나이다. 가부장은 남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이다. 그래서 여자는 아버지의 권한 밑에 있다가 결혼을 하면 남편에게로, 또 남편이 죽으면 자식에게로 그 종속권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남존여비는 여필종부(女必從夫)로 이어져서 여자는 남자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의식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다보니 유교봉건사회에서는 남아를 선호하게 되었던 것이고, 동시에 남자가 여자보다 높임을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남존여비의 의식은 21세기 한국사회에 아직도 만연되어 있다. 인터넷에서 생활 속의 남녀차별 사례 순위를 검색해 보니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53]

> 1순위: 명절, 제사상의 성차별 - 명절, 여자에겐 중노동 남자에겐 쉬는 날
> 2순위: 양육상의 성차별 - 아들 하나, 열 딸 안 부럽다
> 3순위: 학교, 직장,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여자의 NO는 YES

---

51) 암장, "남아선호," http://mediamob.co.kr/syk5117/frmView.aspx?list=blog&id=94382&page=1 (accessed Oct. 18, 2006).

52) 위키낱말사전, "남존여비," http://ko.wiktionary.org/wiki/%EB%82%A8%EC%A1%B4%EC%97%AC%EB%B9%84 (accessed Oct. 18, 2006).

53) Platon21, "남녀차별," http://report.empas.com/report/view.hcam?no=2662418&PHPSESSID=4b4172c9b3d96d0d86f464da8d9ab6cc# (accessed Oct. 18, 2006).

4순위: 도로상의 성차별 - 집에서 애나 보지, 여자가 웬 운전?
5순위: 수업내용상의 성차별 - 여자가 공부는 뭐하러 해, 시집만 잘 가면 되지
6순위: 커피, 카피, 심부름 - 미스 김, 커피 한잔
7순위: 모집과 채용상의 성차별 - 이왕이면 날씬하고 어려야
8순위: 선정적 광고 - 벗길수록 잘 팔린다
9순위: 생활관습상의 금기와 터부 - 여자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10순위: 신용상의 성차별 - 남편 보증이 필요해요
11순위: 성차별적 민원태도 - 아줌마, 등본 나왔어요

한국사회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는 아직도 한국사회에 유교봉건시대의 잔재인 남존여비, 남녀차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다.

봉건 사회는 신분계급사회다. 그러므로 한국민이 봉건사회인 조선시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21세기를 사는 한국민들의 심성 속에 그 흔적인 계급의식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고, 또 남자는 여자 위에 군림하고, 사주와 근로자는 상하계급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모두가 상호 의존하며 동등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야 할 가정이고, 회사고, 사회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높고 낮음의 상하관계 즉 계급관계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상하관계 즉 계급관계의 구조는 역시 틀을 만드는 구조다. 즉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은 지배자의 엄격한 틀을 가지게 되고, 그 틀을 가지고 피지배자를 다스리고자 한다. 그래서 그 틀로 인해 피지배자들은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는 원망을, 한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틀은 당시의 시대가 만들어낸 부산물이다. 그 시대만의 전유물인 것이지, 오고가는 모든 시대 속에 적용되어질 틀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틀은 깨어질 수 있고, 또 계속해서 깨어져가야 한다. 그러할 때 그 틀에 갇혀서 분노와 한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 틀을 깨치고 나와 자유한 삶을 살게 있게 될 것이다.

2) 강자들을 강자로 또 약자들을 약자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끌려온 여자가 등장한다.

>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 묻기를 마지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54]

한 여자가 예수 앞에 있고, 그 주변에 수많은 남성들이 예수와 여인을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다. 여차하면 그 돌을 여자에게 던지고자 함이다. 그들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간음했다는 것이다. 당시 율법은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55] 그래서 그들은 각기 손에 손에 돌을 들고 여자를 쳐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여자를 죽이기 전에 당시 틀을 깨트리고 모든 자에게 자유를 주고자 했던 예수를 찾아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간음한 여자를 죽여야 한다는 틀을 깨트릴 수 있냐는 것이다.

당시 상황은 매우 긴박한 상황이다. 용서의 측면으로 본다면 가장 극단의 상황이다. 다른 모든 것은 용서가 되어도 간음은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다. 절대로 깰 수 없는 틀이 간음인데, 이에 대해서 예수는 뭐라고 하는지 그들이 듣고자 함이다.

사람들은 각기 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틀들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깨지기도 한다. 가령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 우정에 대한 틀이 깨진다. 또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을 때 사람에 대한 틀도 깨진다. 그러나 절대로 깨트리지 못하는 틀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자의 간음이다. 여자가 간음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만든 틀이다. 아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이다. 이 틀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인간사회 속에 형성되어 온 틀이다. 그래서 그 틀은 아주 강력하다. 절대로 깰 수 없는 틀이다. 아니 그 누구도 깨려고 하지 않았다. 모두가 거기에 순응하고 살았다. 그리고 그 틀 속에 들어오면 가차 없이 돌을 던지고 여자를 죽였다. 그들은 이런 강력한 틀을 가지고 예수에게 온 것이다. 그리고 이런 틀 속에 이 여자가 걸려들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다.

예수는 틀을 깨트리러 왔다. 그래서 그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자다. 또

---

[54] 요한복음 8장 3-11절.

[55] 출애굽기 20장 14절, 레우기 20장 10절, 신명기 5장 18절.

혁명가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이미 굳어져 온 이 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는 다시 한번 그 틀을 깨트린다. 이 틀을 깨고 있다는 것은 예수에게는 어떤 틀도 깨진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어떠한 틀도 있을 수 없다. 예수는 말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가지고 볼 때 이 여자는 죽어야 할 여자다. 그런데 그런 틀을 가지고 너희 자신들을 보라는 것이다. 그런 다음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예수는 말한다. 더구나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면 누구하고 간음을 했겠는가? 간음을 했으면 거기에 분명 한 남자와 여자가 있었을 텐데, 그들 앞에 있는 사람은 오직 여자만이 있다. 남자는 어디에 갔는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남자들은 다른 여자를 만나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 아니 도리어 "영웅호색(英雄好色)"이라 하면서 많은 여자와 관계를 갖는 남자를 영웅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반대로 여자는 순결해야 한다고 한다. 한 남자에게만 얽매여 있어야 한다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그 동안 계속되어진 가부장적인 사고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들 안에 형성된 틀이다. 그 틀이 남자는 괜찮고 여자는 안 된다는 의식을 만들어 냈고, 그 틀은 언제나 남성을 강자로 군림하게 하였고 여자는 약자로 존재하게 만들었다. 틀은 인간을 제한시키는 것이다. 틀 속에 갇히면 행동의 제약을 받는다. 사고의 제약도 받는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틀 속에 갇혀 있던 새는 새장을 풀어도 날아가지 못한다. 이미 오랫동안 틀 속에 갇혀 있어서 날개가 굳은 것이다. 새는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틀이 그로 하여금 날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었던 것이다.

코끼리를 산채로 잡는 사냥법이 있다. 먼저 코끼리를 정글로부터 유인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우리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코끼리의 발목에 든든한 쇠사슬을 매어 놓고 한 끝은 튼튼하고 굵은 나무기둥에 묶어 놓는다. 그 후 우리를 치우면 야생의 코끼리는 정글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긴다. 그러나 발목에 묶인 쇠사슬 때문에 몇 발자국 걷다가는 저지를 당한다. 처음에 코끼리는 쇠사슬로부터 놓여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있는 힘을 다 동원해 보지만 계속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엔 체념하며 비록 코끼리가 끊고 도망갈 수 있을 정도의 기둥과 줄에 묶어놔도 조금만 줄이 팽팽해지면 힘쓰기를 포기한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대로 줄을 잡아당겨

코끼리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체념은 소망을 포기하는 행동이며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다. 처음의 고통이나 고난이 비록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기다리며 노력하면 결국에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끼리의 쇠줄은 틀이다. 코끼리가 오랫동안 틀에 갇혀있다 보면 또 그 틀을 벗어나오려고 수없이 노력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코끼리는 체념을 한다. 그리고 이제는 그 틀에 묶여서 살게 된다.

인간사회 속의 틀도 같다. 그래서 여자를 묶어 버린 간음의 틀은 여자를 사회가 조정할 수 있는 약자로 만들었고, 상대적으로 그런 틀의 얽매임이 없었던 남성들은 사회에 의해 조정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회를 조정하는 즉 여성을 조정할 수 있는 강대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이러 해야 한다.”는 틀이 깨지면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물론 틀에 묶여 있던 코끼리를 본래의 야생상태로 만들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단 틀이 깨지면 그 이후는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러이러 해야 한다.”는 틀이 깨어질 때 조정 당하는 약자도 없어지게 되고, 조정하는 강자도 사라지게 된다.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가 있으면 거기에는 분노와 한이 일어나게 된다. 조정 당하는 자는 약자이기에 약자들은 부당함을 겪게 되고, 그 부당함은 분노를 일으킨다. 또 그 분노가 표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그것은 한이 된다. 그러므로 틀을 깨트리는 것은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고, 분노와 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틀이 깨어지면 강자도 약자도 사라진다. 거기에는 모두가 평등한 인간만이 존재할 뿐이다. 동시에 거기에는 한도 없다. 분노도 없다. 화도 사라진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4. 문화적 질문

1) 문화적 요인은 분노와 한의 감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H. Norman Wright는 분노의 감정은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말한다.[56] 생각은 문화를 만들어 낸다. 또 문화는 생각을 만들어 낸다. 생각과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문화권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사회적 비판을 미국의 경우보다 훨씬 더 불쾌하게 여긴다. 이것은 일본이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사회적 집단이나 공동체에 뿌리박은 사회 문화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500년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깊은 유교적 문화권에 뿌리를 내리고 지내왔다. 특히 가부장적인 전통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유교적 문화는 여성들에게 많은 제약을 강요했다. 가령 삼종지덕(三從之德)이라 하여 어려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종속되어 사는 것이 여성의 본분이고 덕(德)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 우월주의 문화는 남성들이 여성을 무시하고 횡포를 저질러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또 여성이 이에 대해서 자신의 분노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죄악시되기까지 하였다. 오늘 한국사회에서 호적이란 것이 있다. 호적은 한 집안의 내력을 기록해 놓은 법적인 문서다. 이 호적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지목하여 놓는데 그 사람을 호주라고 한다. 호주는 집안의 대표이며 동시에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호주가 상속되는 것을 보면 여성은 없고 남성만 있다. 가령 여성의 경우 어려서는 아버지가 호주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고, 남편이 죽고 나면 큰 아들 즉 장남이 호주가 된다. 그러므로 호주제는 법적으로 여성을 남성의 아래로 놓는 장치인데, 이런 제도는 조선시대의 유교적 전통문화에서 그대로 이어져 지금까지 답습되고 있는 것이다.

또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위키백과사전에 의하면[57] "칠거지악(七去之惡)은 과거 중국, 한국 등 유교문화권에서 남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이유이다. 글자 그대로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잘못'이라는 뜻이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처음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일곱 가지 잘못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 (不順父母)
둘째, 아들이 없음 (無子)

---

56) Wright H. Norman, *행복한 부부대화의 열쇠,* 차호원역 (서울: 두란노, 1983), 177.
57) 위키백과사전, "칠거지악," http://ko.wikipedia.org/wiki/%EC%B9%A0%EA%B1%B0%EC%A7%80%EC%95%85 (accessed Oct. 20, 2006).

셋째, 음탕함 (不貞)
넷째, 질투함 (嫉妬)
다섯째, 나쁜 병이 있음 (惡疾)
여섯째, 말이 많음 (多言)
일곱째, 도둑질을 함 (竊盜)

물론 칠거지악(七去之惡)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칠거지악에 해당하는 잘못을 지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에는 내쫓지 못하도록 하였다. 삼불거(三不去) 또는 삼불출(三不出)라고 한다.

첫째, 내쫓아도 돌아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
둘째, 함께 부모의 삼년상을 치른 경우
셋째, 전에 가난하였으나 혼인한 후 부자가 된 경우

이런 삼불거 혹은 삼불출이 있었다 해도 조선시대 유교봉건사회에서 남성은 언제든지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여성과 이혼할 수 있었고, 또 남성의 집안은 마음에 들지 않는 집안의 며느리를 쫓아낼 수 있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이런 칠거지악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영향은 한국사회에 많은 부분 남아 있다. 특히 지금도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시부모에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여성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해 매우 강력하게 대처하고 반응하는 것이 오늘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관습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게 하였고, 항상 억눌린 삶을 살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인 압력은 여성들로 하여금 분노와 한의 감정을 만들어 내게 하였으며 동시에 그것에 붙들려 살게 만들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이후 맞이한 일본식민사회도 한국민들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일본은 고의적으로 한국역사를 훼손시켰고, 특히 한국역사를 열등한 역사로 변질시켰다. 본래 한국은 일본에 많은 문화적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그들은 도리어 한국을 일본의 영향을 받은 나라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35년간 그들이 한국민에게 심어주었던 이러한 정서는 해방이후 한국민들의 정서 속에 계속 남아 있어서 한국민들은 스스로 열등한 민족임을 고백하는 언어나 습관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일제35년간의 식민사회는 일본에 아부하는 사람들과 저항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었다. 이들은 필연적으로 적대관계가 되었고, 매우 극단적인 두 집단을 만들었다. 본질은 같은 민족이고 동족간인데 서로 싸우고,

억압하고, 정죄하는 집단이 되므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분노와 한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한국이 해방되면서 이러한 친일세력에 대한 분명한 해결을 주지 못함으로 인해 식민지시절 민족의 해방을 위해 고생했던 사람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당시 일제의 앞잡이였던 세력들이 그대로 해방이후에도 권력을 독점함으로 인해 생긴 상처와 아픔들은 깊은 분노와 한을 남기는 원인이 되었다.

해방이후 동족간의 싸움이었던 6.25 전쟁은 새로운 전쟁문화를 한국민들에게 남겼다. 전쟁은 남과 북을 극단의 냉전체제로 만들었고, 공산당에 협력한 사람들은 부역자라 하여 냉혹하게 처리함으로 인해 처리하는 자와 처리 당하는 자들 간에 상처와 아픔은 분노와 한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역자의 처리는 전쟁 중 혹은 전쟁이후만이 아니라 오랜 유신독제의 체제 속에서 그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장애물이 되었다. 가령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대기업의 중요직에 앉을 수 없고, 해외 진출이 막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그로인해 부역자의 후손들에 가슴 속에는 자연스럽게 분노와 한이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사회 속에 새로운 틀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 멋있는 것이다" "그런 모습이 이 시대에 맞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것이다. 틀이 만들어지면 사회는 그 틀에 맞게 사는 사람들이 형성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사회의 주류가 되면 그 틀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옳음과 그름이 생기는 것이다. 사회는 옳음과 그름이 아닌 다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름이 인정될 때 그 틈새로 포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다름이 인정되지 않으면 거기엔 옳고 그름만이 있게 된다. 옳고 그름은 언제나 그 사이에 기준이 만들어진다. 그것이 틀이다. 이 틀이 옳고 그름을 나누게 하고, 또 그 옳고 그름은 모든 타자를 동지 아니면 적이란 이분적인 사회를 만들게 된다. 이분법적인 사회는 항상 주류와 비주류를 만든다. 기득권자는 주류를 이루고, 비기득권자는 비주류가 된다. 주류와 비주류의 관계는 상호 억압관계를 만든다. 그리고 억압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상처를 유발하고 상처는 한과 분노와 화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과 분노와 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이라는 문화의 틀이 깨어져야 한다. 변화될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마치 진리인냥 고집하고, 집착하여 그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는 언제나 변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문화의 틀로 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타자를 볼 때 한도, 분노도, 화도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 4 장
사례연구

1. 실태 및 추정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 시각이 어떤 측면이냐에 따라서 각양 다양하게 나온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자성의 목소리들이 있다. 장동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21세기의 기독교는 근대에 나타난 기독교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회전반에 여과 없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러면서도 젊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대사회적인 봉사의 자세를 고취시키기기도 하고,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통하여 세속 학문과 문화와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권위주의를 탈피한 새로운 형태의 목회 방향을 모색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런 운동은 이제 막 도입되었을 뿐 정착되거나 열매를 맺은 것은 아니다.[58]

이문장도 “왜 한국에서의 기독교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한국교회는 한국의 급격한 변혁의 역사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기여를 하면서 호흡을 같이 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삶에 깊숙이 파고 들어갔으며, 빠른 속도로 교세 확장을 이루었다. 같은 기간에 한국의 전통 종교들은 마치 설 자리를 거의 잃은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역할이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근대화, 산업화 및 서구화의 흐름에서 전통 종교들이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때는 기독교가 한국의 대표 종교로 등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와서 한국의 종교 지형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차지하고 있던 위상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것이다. 한국인들이 서서히 기독교에 등을 돌리는 현상이 감지된 것이다.[59]

그러면서 그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첫째로 최근에 이르러 한국인들이 한국 기독교와 교회에 반감을 갖게 되는 주된 이유는 한국교회가 종교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이란 진리 체득에 있어서의 치열함, 자기를 부정하는

---

58) 장동민, "한국교회 이미지사," *목회와 신학,* 2004년 10월호, 55.

59) 이문장, "왜 한국에서의 기독교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나," *목회와 신학,* 2004년 10월호, 57.

모습,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 세상 가치관을 뛰어 넘어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재물과 명예와 권세에 초연한 모습,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 등이라고 말한다.[60]
두 번째로 한국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교회는 윤리적인 삶에 있어 한국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하고 원칙을 지키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윤리적 평가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의 삶이 비기독교인들의 삶과 비교하여 더 나은 점이 없다는 것이다.[61]
세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깊이의 문제다. 한국교회는 깊이가 얕다는 것이다. 즉 한국교회가 구현한다고 하는 기독교의 정신 혹은 예수 정신이 실제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한국인들의 삶에 거룩한 충격(impact)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는 것이다.[62]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한국교회는 선교초기의 긍정적 이미지에서 작금에 강한 부정적 이미지로 전락하고 있다. 교회 밖에서 볼 때 교회는 점점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인 것이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치료해야 할 교회가 이제는 스스로 상처를 입고 병원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꼴이 된 것이다. 이제 교회는 스스로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며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 스스로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세상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뻗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이런 교회의 문제점 특히 매트리스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질병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사이트팀과 함께 몇 가지를 실행하면서 과제를 추정하고자 한다.

1)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그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고자 한다. 가령 등산을 하는데 갑자기 산행 중에 비가 와서 산에 오르지 못하면 그는 비가 와서 산행을 망쳤다고 한다. 또 공연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누군가 새치기를 하면 그 새치기 한 사람 때문에 기분이 망쳤다고 한다. 그러면서 맘껏 즐기고 봐야 할 공연까지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것이다. 즉 문제가 바깥에 있다는

---

60) 이문장, "왜 한국에서의 기독교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나," 60.
61) Ibid., 61.
62) Ibid., 61.

것이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비가 와서 생긴 문제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새치기를 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새치기를 못하게 해야 한다. 계속해서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결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의 삶은 항상 문제 푸는 삶이다. 평생 자기에게 주어지는 아니 문제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그 문제를 풀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각을 돌려야 한다. 아니 문제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 사람은 평생 문제를 풀 수 없다. 왜냐하면 바깥의 상황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각을 돌려야 한다. 즉 문제의 원인이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문제로 보고 있는 내 안에 있다.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음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 일이 화가 날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내게 벌어졌던 상황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리고 그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고, 그 상황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게 해 준다. 이 질문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질문은 일에 초점이 맞춰있다. 즉 사건(the fact)에 맞춰있는데, 질문을 듣는 사람은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화가 날 일(the fact)에 대한 질문을 듣고, '화가 나는 일이다.' '열 받는 일이다.'혹은 '감사한 일이다.' '기쁜 일이다.'라고 반응한다. 이런 답을 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계속되는 질문에 사건에 대한 자신의 모든 생각을 쏟다 붓는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없을 때 바로 그때부터 사건 자체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일은 곧 사건 자체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화, 한, 분노, 감사, 기쁨과 같은 모든 것들은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고, 느낌이지 사건 자체가 아님을 알아차리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사건을 사건으로 보게 되면 사건과 생각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알게 된다. 사건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은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일이 화로 혹은 한이나 분노로, 감사나 기쁨으로 반응한 것은 사건 자체 즉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즉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알아차리거나 깨닫게 되면 바깥일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

Anthony de Mello는 영성이란 깨어남을 뜻한다고 말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긴 하지만 잠들어 있다고 말한다.[63] 그래서 그는 깨어나라고 한다. 그리고 그 깨어남이 자유를 준다는 것이다.[64] 그는 예수와 죄인을 비교하면서 예수와 그 사람들이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예수는 깨어 있고,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65] 예수가 자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깨달음은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사람은 사건이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깨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다면 사건이 그를 마음대로 할 것이다. 즉 깨어 있다는 것은 사건을 사건으로 본다는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고 잠잔다는 것은 사건을 사건으로 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감정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사람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바깥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삶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유인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다.

2) 나는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는 존재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혹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질문이다. 아마도 인류역사만큼 오랫동안 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던져진 질문이다. 그래서 그 대답 또한 수만 가지로 다양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 또 그 대답은 참으로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평생 이 문제만을 가지고 고민하다 결국 그 답을

---

63) Anthony de Mello, *깨어나십시오* (서울: 분도출판사, 1993), 11.
64) Ibid., 38.
65) Ibid., 39.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계속 던져지고 있고 또 던져져야 한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다. 그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불우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질문은 더욱 더 간절해진다. 젊어서 고생을 했음에도 나이 늙도록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노인들을 만났을 때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진다. 태어날 때부터 육신의 장애가 있어 평생을 장애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교인들을 볼 때도 “왜 태어났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진다. 현대의술로도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이 생겨서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는 교인들을 볼 때도 “사람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혹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Tolstoy는 “나는 이와 같은 일을 깨달았다. 모든 인간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걱정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66] 사람이 사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살아간다. 즉 상대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상대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스스로 자율로서의 삶이 아니라 타율로서의 삶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걸어가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부화뇌동(附和雷同)의 삶이다.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의미는 모르지만 나도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왜 분노하는지, 왜 기뻐하는지, 왜 걸어가는지..... 본인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또 이런 사람은 문제의 모든 원인을 바깥에서 찾고자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그렇게 된 이유가 다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한다.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내게 욕한 사람 때문이다.” “내가

---

66) Leo Tolstoy,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김재하역 (서울: 소담출판사, 2003), 12.

행복하지 못한 것은 부모 때문이다." "내가 승진하지 못하는 것은 상사 때문이다." 등등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고 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지금 내가 상처를 받았고, 아파한다고 말한다. 동시에 나를 상처받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또 상처를 받았으니 나를 치료해 달라고 한다.

목회 현장에서 교인들을 만나다 보면 모두가 상처받았다고 한다. 또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럼 "누가 상처를 주었냐?" "누가 문제를 주었냐?"고 물으면 분명하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누가 내게 문제를 주었다."라고 한다. 모두가 문제의 원인을 자기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한 상처를 또 문제를 평생토록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문제를 중간에 해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 해결은 용서의 개념이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 내게 문제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 역시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것이고, 그 해결도 바깥에서 찾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람이 똑같은 일로 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했는데, 다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다. "왜 용서가 안 되냐?"고 묻자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문제를 바깥에서 찾는 한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에게 문제를 내 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문제는 누군가가 내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문제로 만든 것이다.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고, 벌어진 사건인데 내가 그것을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ego다. ego는 관계 속에서의 나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의 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의 나,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의 나,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 속에서의 나, 연인과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 목사와 장로 사이에서의 나,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 ... 이런 관계 속에서 생기는 나의 존재가 바로 ego다. 그러므로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 혹은 상처는 ego에서 생기는 것이다. 내 ego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내 ego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ego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ego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나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나는 아무개 아빠입니다." "나는 아무개 아들입니다." "나는 아무개 딸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 이것은 ego의 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관계가 사라지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

장길섭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 우리 산골마을은 장마 때가 되면 냇물이 넘치는 바람에 종종 그 물에 휩쓸려 사람들이 죽곤 했습니다. 어느 해인가는 이웃 동네의 한 학생이 물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이틀 후에 시체를 찾아왔는데 그 학생 어머니가 목을 놓아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철수야 너 어디 갔니!' 하면서 철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저는 '철수가 바로 앞에 누워있는데 왜 철수를 찾으며 우는 걸까?' 하며 의아해 했습니다. 정말 철수는 어디 있을까요? 분명 몸이 철수는 아닌가 봅니다. 몸이 철수이고 철수가 그 육체였다면 엄마가 왜 그렇게 아들을 찾았겠습니까?[67]

철수는 분명 그의 어머니 앞에 누워있다. 그러나 누워있는 것은 철수가 아니라. 그의 죽은 주검이다.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관계가 형성되어 스스로의 에고가 형성된다. 그러나 죽으면 그 에고도 없어지는 것이다. 즉 주검은 더 이상 철수가 아니다. 그래서 철수 엄마는 철수의 주검을 보고 철수가 어디에 갔냐고 찾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그 다양함은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고, 말리는 것이고, 재산을 모으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고, ... 그 삶의 양태(樣態)는 다양하지만 결국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자신이 알고 하든지 모르고 하든지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나를 찾는다고 하면서 진정한 원형(原型)으로서의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나, 관계하는 나, 즉 ego의 나만을 찾고 또 그것이 나의 전부인줄 안다.

신을 찾는 것도 그렇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각자 자기들의 신을 찾는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신을, 유대인은 유대인의 신을, 이슬람은 이슬람의 신을 각기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신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원형으로서의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을 찾는 것이다. 즉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

67) 장길섭,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서울: 한언, 2002), 72.

신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교리의 신이고, 생각의 신이다. 진정한 신은 교리를 넘어서고,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있다. 루이스 레스터는 그의 강의에서 그 신을 Beyond God이라고 하였다.[68]

ego를 뛰어넘어 즉 ego인 내가 진정한 내가 아니라 self로서의 원형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ego에서 생긴 문제는 저절로 없어진다. self인 나는 관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관계와는 상관없는 나이기 때문에 상처가, 문제가 전혀 없는 존재로서의 나인 것이다.

기독교의 역사는 많은 상처를 안고 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핍박을 받아서 상처를 안고 있고, 교부시대 기독교는 로마의 핍박을 받아 많은 상처를 안고 있다. 중세시대 기독교는 타락의 극치를 보이면서 상처를 안게 되었고, 근세시대 기독교는 식민시대의 아픔을 안고 있다. 또 현대기독교는 세속화로 인한 상처를 안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흘러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상처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은 상처를 받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을 것이고, 그런 상처투성이의 하나님이라면 그건 이미 신적 존재가 아닌 것이다.

기독교의 역사가 관계 속에서 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관계를 뛰어 넘는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가 ego라면 하나님은 self다. self이기 때문에 한 번도 상처를 받은 적이 없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인간이 ego를 뛰어넘어 self로서의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내가 한 번도 상처받은 적이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상처와 문제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처를 뛰어 넘어 항상 자유한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이다.

나의 원형은 찾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은 어느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나(사람이든지 자연이든지)가 아닌 그 모든 관계가 끊어진 홀로의 나, 즉 self인 나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상처 받은 적이 없는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 상처를 뛰어 넘어 항상 자유한

---

[68] Lester Edwin J. Ruiz, "Community Power Analysis and Evaluation Seminar," (강의,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Summer 2005, in New York City).

독립적인 존재로 살게 한다.

3)틈새 정화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게 한다.

관계가 깨지고,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나와 맞지 않는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의식에서 나온다. 장길섭은 이런 사람을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또 내가 옳으니 다른 사람들은 그르다고 쉽게 판단한다. 이런 사람들은 보는 것을 그대로 보지 못한다. 그르다. 좋다. 싫다. 괜찮다. 괜찮지 않다. 모든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듣는 것도 제대로 듣지 않는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자기 나름대로 정한, 즉 맞는다고 하는 기준과 틀을 가지고 그 틀과 잣대 안에 들어오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었거나 문제라고 한다. 대립과 주장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집착할 때 일어난다. 그래서 싸움의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가 옳다는 자기주장뿐이다.[69]

자기주장을 하는 사람은 자기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옳지 않음을 주장하기 위해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또 상대방을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한다. 문제제기에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라고 하면서 한 여인을 예수께로 데려왔다. 그러면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70] 그들은 성에 대한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주장은 간음은 옳지 않은 것이고, 간음을 했을 때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그들은 그 여인의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성적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 여인이 가정적으로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경제적으로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 그들은 다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맞지 않는 이 여인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창세기 38장에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통간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69) 장길섭, *하늘이 시작되는 자리* (충남: 살림마을, 1997), 72.
70) 요한복음 8장 4절.

>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네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71]

유다는 며느리가 간음한 것을 듣고 불에 태워죽이라고 했다. 그때 끌려 나가던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말한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뉘 것이니이까 한지라.”[72]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 자기와 간음한 남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시아버지 자신임을 말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다는 이렇게 말한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73]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한 일을 옳다고 말한다. 다말은 분명 간음을 했다.

---

71) 창세기 38장 1-24절.
72) 창세기 38장 25절.
73) 창세기 38장 26절.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불에 태워서 죽어야 한다. 그러나 그녀가 내가 왜 이와 같은 일을 했어야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아버지에게 했을 때 시아버지인 유다는 그녀가 옳다고 한다. 간음한 상황만 보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알고, 형편을 듣고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의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의 상황과 형편을 듣지 않았다. 보지도 않았다. 아니 그들은 그녀의 상황과 형편에는 관심조차 없다. 그들은 다만 자기들의 주장이 옳음을 관철시키려하고 있다.

자기주장만이 있는 곳에는 싸움이 있다.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거기에는 죽음만이 존재한다. 장길섭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 즉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한다.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런 것이라고 말한다.[74] 그는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75]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옳고 그름,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다. 맞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하는 식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있다면 그는 사람 앞에서는 의로울지 모르지만 아직 복음 세계와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다.[76]

성경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77]고 말한다. 사랑으로 보는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다. 이전 것 즉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따라 사는 요한의 시대가 아닌 예수시대를 사는 것이다. 복음의 세계다.

복음의 시대에 살아야 할 오늘의 교회가 다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로 회귀하고

---

74) 장길섭, *하늘이 시작되는 자리*, 73.
75) 누가복음 16장 15-16절.
76) 장길섭, *하늘이 시작되는 자리*, 73.
77) 베드로전서 4장 8절.

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만이 옳다하며 상대방을 받아주지 못한다. 남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들추어내며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한다. 그래서 싸움이 그치지 않고 모두가 상처투성이다. 사랑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살려면 인간은 생각을 다르게 하는 존재고, 그에 따른 느낌도 다르게 나타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내 생각과 비교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상대방의 생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은 그 생각 그대로, 또 느낌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관계는 모든 관계 사이에 있는 틈새를 정화시키는 것이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관계들의 틈새는 "무엇 무엇이 그렇다"고 하는 생각들로 이미 오염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틈새의 오염을 정화시켜야 한다. 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럴 때 틈새가 정화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 지게 된다. 남성심리 전문가인 정혜신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같은 값이면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응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정신의학에서는 어떤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본다."라고 했다.[78] 이처럼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은 긍정을 뛰어 넘는다. 긍정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준다. 그것이 바로 틈새를 정화시키는 것이다.

틈새를 정화시키려면 무엇이 생각이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건에 대한 사실은 무엇이고,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생각에 따른 나의 느낌과 상대방의 느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생각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느낌도 다르다. 그 사람이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였기에 그런 느낌이 다가오는 것이다. 사건은 하나다. 오직 하나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건을 자신의 생각과 동일시한다. 자기 생각이 곧 사건인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도 그 사건이다.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사건이 사람에 따라서 변화된다. 불변의 사건 자체가 변형되고 심지어 사라지기도 한다. 사건을 사건으로 보고,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때

---

[78] 정혜신, *남자 VS 남자* (서울: 개마고원, 2001), 112.

관계하는 모든 관계의 틈새는 정화된다. 이러한 틈새 정화를 통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든다.

2. 목표달성을 위한 시행전략

1) Goals(목적)

분노와 한의 감정으로 인해 생겨난 틀에서 벗어나와 지금 주어진 삶을 잘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자유한 삶을 살게 한다.

2) Objectives(목표)

① "그것이 화가 날 일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벌어진 일들을 정확하게 듣고 보게 하여 분노와 한의 문제를 해결케 한다.

삶을 문제로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산다는 것도 매일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다. 그들에게는 아내도 문제고, 남편도 문제고, 자식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사업도 문제고, 국가도 문제고 모든 다 문제이다. 그들은 자녀가 공부를 잘 해도 문제고 못 해도 문제다. 교회가 작아도 문제고 커도 문제다. 사업이 잘 되도 문제고, 안 되도 문제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 깊이 고찰해 보기보다는 인생이란 자체는 이런 문제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문제를 받아들이고, 또 그 문제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의 바다"라고 말한다. 고해(苦海)는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다. 인생을 배를 타고 가는 것으로 비유한다면 그 인생이 고통스런 바다와 같다는 것이다. 결국 인생은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삶을 살 수 밖에 없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고해의 바다라는 틀 속에 갇혀서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고통들을 누가 주었느냐는 것이다. 누가 문제 있는 남편을 주었고, 주가 문제 있는 자녀를 주었으며, 누가 문제 있는 교회를 주었고, 누가 문제 있는 사업을 주었냐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한다. 또 조상을 탓하기도 한다. 한국 속담에 잘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란 말이 있다.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구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조상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문제를 주었는가? 또 조상이 문제를 주었는가?

성경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79]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문제를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문제로 내준 하나님도 없고, 또 사람도 없는데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문제로 알고 그래서 인생을 문제 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삶이 문제라는 또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는 잘못된 것에 사람들이 속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고해의 바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고해의 바다를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고해의 바다는 바로 내가 만든 것이다. 즉 우리가 문제 속에 사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삶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이다.

Anthony de Mello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비가 와서 내가 소풍을 망쳤다고 합시다. 누가 기분이 나빠집니까? 비입니까, 나입니까? 무엇이 부정적 감정을 일으킵니까? 비입니까, 나의 반응입니까? 무릎을 탁자에 부딪혔다 했을 때 탁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탁자는 생긴대로 탁자 노릇 하느라고 바쁘죠. 아픈 데는 무릎이지 탁자가 아니죠. 신비가들은 늘 우리에게 현실이란 모두 옳다고 말해 주고자 합니다. 현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80]

세상을 고해(苦海)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한다. 또 탁자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나 탁자는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다. 비 때문에 소풍을 망친 것도 아니고, 탁자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 보려고 했던 내 마음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벌어진 일들을 정확하게 듣고 본다는 것은 문제의 원인이 바깥에

---

79) 야고보서 1장13절.
80) Anthony de Mello, *깨어나십시오,* 93.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문제의 원인이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자각하려면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잘 보아야 한다. 듣고 봄은 "총명(聰明)"이다. 귀가 밝고 눈이 밝다는 것이다. 이러한 듣고 봄에서 특히 들음은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대단히 강조된 부분이다.

목사 고진하는 그의 책에서 경청하는 감각기관으로서의 귀의 역할을 종교적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더욱 강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지혜자로 알려진 솔로몬 왕은 신에게 장수나 부귀나 명예보다 오히려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는 신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자들의 경구를 모아 놓은 성경의 지혜문학을 연구한 한 신학자는 "인간의 인간다움은 듣는 것에서 이루어진다"(폰라드)고 말하고 있다.[81]

문제를 정확하게 듣고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잠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듣고 본다는 것은 자각한다는 것이고 잠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이다. 즉 잠으로부터 깨어나서 내 안에 이미 형성된 조건들이나 규정들, 혹은 틀들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벌어진 일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하게 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또 판단한 대로 상처를 입고 분노 속에 파묻혀 산다. 그러면서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고 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분노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 상처를 입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그 동안 가지고 있던 조건이나 규정 혹은 틀들이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자각하는 것이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다. 성경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82] 변화는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즉 내 안에 형성된 조건들을 알아차리고 정확하게 듣고 보게 되면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혹은 "그것이 나로 분노하게 하는 일입니까?"라는 반복적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삶의 정황들을 정확하게 보고 듣게 하여서 "상처를 준 일" 혹은 "분노를 일으킨 일"이 아니라 사건(the fact) 자체로 듣고 봄으로 상처나 분노의 감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81) 고진하, *목사 고진하의 몸 이야기* (서울: 도솔, 2005), 79.
82) 요한복음 3장 3절.

자유자의 삶 즉 언제나 "보시기에 심히 좋은"[83] 좋음의 삶, 복음의 삶, 예수의 삶을 살게 한다.

②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ego가 아닌 self인 자신을 깨달아 분노와 한이 없는 존재로서 살게 한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내 딛고 산다. 발을 땅에 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발을 땅에 딛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하늘 아래 발을 딛고 있으면 서울에 있는 것이고, 뉴욕에 발을 딛고 있으면 뉴욕에 있는 것이다. 목사 고진하는 그의 책 "몸 이야기"에서 발과 삶을 이렇게 표현했다.

> 우리가 사용하는 관용어구 가운데 '발을 붙인다'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터전이나 환경 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쓴다. 이때 발은 '삶의 근거' 혹은 '존재의 기저'를 상징한다. 식물처럼 뻗어 내릴 뿌리는 없지만, 어딘가에 발붙이는 일은 곧 삶의 근거를 마련함을 뜻한다. 역설적인 예를 들어보다. 지상에 발붙이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땅 위에 남기는 최후의 자아로서 택하는 것이 신발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발의 연장인 신발을 남기는 것은, 자살한 이의 삶의 근거가 완전히 소실되었음을 뜻한다.[84]

그러나 발과 삶은 눈에 보이는 ego인 내가 처해있는 위치나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그 ego가 아닌 원형으로서 진정한 자신인 self로서의 나는 내 발이 처해있는 위치와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는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85]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고 있는 이 질문은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아담은 에덴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묻고 있는 이 질문은 지금 아담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의 ego가 아닌 self를 묻는 것이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안다는 것은 내 발이 딛고 있는 땅을 의미함도 아니고, 내가 지금 처해있는 상황을 말함도 아니다. 그것은 존재자체를 아는 것이고,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를

---

83) 창세기 1장 32절.
84) 고진하, *목사 고진하의 몸 이야기*, 245.
85) 창세기 3장 9절.

아는 것이다.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 또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 즉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보내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것이고,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며 동시에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함석헌은 현대가 당하는 비참의 원인을 보편적 세계사상의 결핍이라고 했다.[86] 그러면서 현대를 건지려면 군축회의도 필요하고 경제회의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새로운 세계이상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즉 머리가 달라져도 웬만한 정도가 아리라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가 서로 원수인 듯 서로서로 다투고 죽이던 모든 민족, 나라, 인종, 교도, 주의자를 총동원하여 한 전선에 내세워서 모든 모순, 모든 허비, 모든 오해를 다 내버리고 새로운 건설적인 하나로 향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일은 세계역사의 새로운 해석이 아니고는 안 된다고 한다. 그는 또"한 조상을 어서 발견하여야, 그리하여 한 형제인 줄 알아야 싸움을 그만둔다는 것이다. 한 나라 백성인 줄 알아야, 그리하여 한 곳에 가서 만날 것을 알아야 서로 제 주장하기를 그칠 것이다. '하나'를 어서 의식하여야, 그리하여 각각 서로 한 몸의 지체인 것을 깨달아야 이 미친 자살적인 경련이 그칠 것이다. 그러나 그 새것, 그 하나를 가르쳐 줄 자가 누구냐? 하나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씨족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니다. 종교가 거짓말이라는 말이 아니다. 그 모든 다 문제가 되지 않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새 종교, 하나의 종교, 참종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인류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싸움이 그칠 것이다. 교회가 한 가족임을 깨닫게 되면 복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런데 그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ego가 아닌 self를 깨닫는 것이다.

ego의 내가 아닌 self의 나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는

---

86)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서울: 한길사, 2003)*, 35.

ego인 나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물어볼 때 자기의 이름을 말한다. 또 직업을 말한다. 어떤 사람은 부모 혹은 자녀인 관계를 말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가슴을 치면서 이것이 나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기 머리를 치면서 그것이 나라고 한다. 그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다. 그것은 ego인 나일 수는 있으나 self인 나일 수는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절대세계가 아닌 상대세계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파악하게 된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고, 그들이 있기에 우리들이 있다. 동양사상의 핵심적 개념을 인(仁)이라고 한다. 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논어'에서도 그것을 묻는 제자에 따라 공자는 각각 다른 답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인(仁)은 기본적으로 인(人)+인(人) 즉 이인(二人)의 의미다. 즉 인간관계라는 것이다. 이처럼 동양에서는 인간을 인간(人間), 즉 인(人)과 인(人)의 관계로 이해했다.[87]

불교사상도 관계론의 보고(寶庫)다. 불교에서 깨닫는다는 것, 즉 각(覺)이란 이 연기(緣起)의 망(網)을 깬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들이 갇혀 있는 좁은 사고의 함정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은 개인이 갇혀 있는 분별지(分別智)를 깨달아야 함은 물론이며 한 시대가 갇혀 있는 집합표상(集合表象), 즉 업(業)을 깨닫는 일이다. 이처럼 불교에서도 이 세상을 관계 혹은 연기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88]

인간의 인식이란 것은 사물이 맺고 있는 거대한 관계망만 본다는 것이다. 즉 수많은 사건들의 극소수만이, 그 극소수의 극히 작은 부분들만이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의식 속에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그 전체를 볼 수 없는 거대한 과정 위에서 생멸하는 작은 점들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작은 점들에 대해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점들이 의식된 또는 의식되지 않은 다른 사건들로부터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것은 원인이고 어떤 것은 결과라고 판단한다.[89]

함석헌은 전체에 떨어진 나는 참나일 수 없고 스스로의 안에 명령하는 전체를

---

87) 신영복, *강의* (경기: 돌베개, 2006), 41.
88) Ibid., 475.
89)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476.

발견한 나야말로 참나라고 말한다. 그것이 참 자기 발견이라고 한다.[90] 그는 또 그 전체는 종교적으로 하면 하나님이요, 세속적으로 하면 운명 공동적인 전체 사회라고 말한다. 종교적인 전체는 하늘 위에 있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처음부터 환한 것이고 영원불변의 진리라고 한다. 그러나 세속적인 전체는 땅 위의 것이므로 시대를 따라 늘 자라왔다는 것이다. 씨족에서 봉건국가로, 봉건국가에서 민족으로 넓어져왔고 지금까지 개인의 뒤에 서서 버텨주고 명령한 것은 민족이라고 말한다.[91] 그는 그 예를 종교개혁에서 들고 있다. 종교개혁은 종교적으로 하면 성령의 일인 동시에 현실적으로 하면 북유럽 민족의 일이라고 말한다.[92]

루터가 이탈리아에서 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루터는 그만두고 전 인류의 구주라는 소리를 듣는 예수조차 유대 민족의 사람이다. 유대가 아니고는 예수는 나지 못한다. 유대 민족을 잊고 예수를 알 수 없고, 유대 역사를 모르고 기독교를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세계적인 것을 부인하는 말도 아니요, 예수를 민족주의자로 한정하는 말도 아니다. 다만 민족적 배경 없이는 인격이 없다는 말이다. 민족의 저주지에 물이 고인 것이 없이는 우주에 울리는 생명의 폭포는 떨어질 수 없다는 말 뿐이다.[93]

이 땅에 사는 아니 그 동안 살아왔고 또 살아갈 모든 사람들은 상대세계 속에서 산다. 또 분별지(分別智)에서 모든 것들과 관계하며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왔고, 살고, 살아갈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살펴보기 보다는 주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다. 즉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아가 나 아닌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은 또 어떻고, 성령의 역사도 어떠하다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그 크기가 2미터도 채 안 되는 인간이 자신보다 수억, 수조의 크기가 되는 우주가 어떻고, 내일의 일도 알지 못하면서 첨단 산업이 어떻고, 컴퓨터가 어떻고, 유전공학이 어떻다고들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등등 모르는 것이 없을 지경이다. 그래서 요즘 보통 아이들이 알고 있는 수준은 20세기 초에 비하면

---

90) Ibid., 87.
91) Ibid.
92) Ibid., 88.
93) Ibid.

천재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의 앎이다. 상대적인 앎이다. 상대를 잃어버리는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앎이다. 진정한 앎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정한 앎은 상대적인 앎이 아니다. 진정한 앎은 절대적인 앎이다. 관계하는 모든 것이 없어진 상태에서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앎이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정 자기 자신이 누구며 또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장자는 그의 제물론(齊物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物無非彼 物無非是 自彼則不見 自知則知之
> 故曰 彼出於是 是亦因彼 彼是方生之說也
> 雖然 方生方死 方死方生 方可方不可 方不可方可
> 因是因非 因非因是
> 非以聖人不由 而照之於天 亦因是也 -齊物論
>
> 사물은 어느 것이나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동시에 이것 아닌 것이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적 관점(自彼)에 서면 보지 못하고 주관적 관점(自知)에서만 본다. 그래서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은 저것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여 이것을 (혜시惠施는) '저것과 이것의 모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다. 생(生)과 사(死), 사와 생 그리고 가(可)와 불가(不可), 불가와 가는 (서로가 서로의 존재 조건이 되는) 모순 관계에 있다. 가가 있기에 불가가 있고 불가가 있기에 가가 있는 법이다. 그러기에 성은 특정한 입장에 서지 않고 (부유 不由) 하늘에 비추어 본다고 하는 것도 역시 이 때문이다(적인시야 亦因是也).[94]

사물을 상대적 관점에서 즉 관계 속에서 보기 때문에 옳게 볼 수 없게 되어 모든 것을 모순의 상태로 즉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즉 하늘에 비추어 보듯이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모습을 보지 않고 바깥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결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모순과 문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요한신학을 공부한 사람을 보자. 그는 요한 신학을 공부해서 요한을 손바닥 읽듯 알고 있다. 모세오경을 연구해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사람을 보자. 그는 모세 역시 손바닥 읽듯이 알고 있다. 또 을 옮길만한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보자. 그는 그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쉽게 행한다. 그리고 자기 몸까지 상해가며 구제를 하는 사람을 보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놀랍고 감동적인 일들을 하면서도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모르고 있다. 또 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

94) 신영복, *강의*, 321.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모르는 것이다. 이것은 일에 얽매인 사람일 수는 있으나 진정 자유로운 사람일수는 없다. 이런 사람은 ego 속에 얽매여 사는 것이다. 관계 속에서 파악한 나를 가지고 그 속에 묶여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가 없다. 항상 틀에 묶여 있어서 답답한 삶을 산다.

신영복은 해체(解體)철학의 논리가 바로 이러한 인식의 원천적 협소함을 지적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의 정체성은 애초부터 의문시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의 인식이 분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작은 우물을 벗어나기 위한 깨달음의 긴 도정에 나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95]

우리의 인식이 분별지를 깨닫고 우물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즉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 혹은 타인에 대한 관심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하려고 왔는가? 등등 자기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갖고 내면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의 출발이고 동시에 완성이다. 물론 그 나는 절대적인 나다. 진정한 나다. 그리고 언제나 자유 할 수 있는 나다. 무엇도 얽매이지 않는 나다.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 항상 하나였던 나다. 나의 원형이다. 그러므로 문제라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것은 분별지 속에서 즉 관계 하는 관계로서의 내가 안고 있는 것이지 원형으로서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다. 김균진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96] 그는 계속해서 Karl Barth의 KD Ⅱ/1, S. 394-464의 글을 참고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신 안에 홀로 계시고자 하는,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파트너를

---

95) Ibid., 476.

96)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I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9), 306.

세우고 이 파트너와의 관계 속에 계시고자 한다. 이 관계 속에서 그는 사랑하고 사랑의 응답을 기다린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파트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함께 계시며, 이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한다."[97]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강요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98]이라고 말한다.

성경 로마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99]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의 하나님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이다. 즉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다. 절대적인 사랑이다. 또한 그것은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는 상대적 개념 혹은 분별지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은 상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상처가 있으면 절대적인 사랑을 못한다.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있음 그대로다. 그러므로 원형으로서의 self인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상처 받은 적이 없는 나, 그래서 어떠한 틀도 없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나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얽매일 수 없는 즉 분노와 한의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③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공감해 주는 공감훈련을 통해서 전인적인 관계의 삶을 살게 한다.

옳은 말이 있고 맞는 말이 있다. 옳은 말은 화가 난 사람에게 "야, 그게 분노할

---

97) Ibid., 307.
98) Ibid.
99) 로마서 5장 8절.

일이냐?" 한다거나 슬픔에 잠긴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도 조롱하는 투로 "그게 슬픈 것이냐?"고 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옳은 말은 지혜로운 말이 아니다. 잠언서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에 금 사과"라고 했다.[100] 옳은 말이 아닌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성장이고 성숙한 삶을 사는 모습이라 하겠다.

공감(共感)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감(共感)이 아니라 동감(同感)이다. 한문 표현에서 말하고 있듯이 동(同)은 한 가지 동자로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 또 상대방의 느낌과 내 느낌이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감(共感)은 그렇지 않다. 공감(共感) 역시 한자 표현으로 보면 공(共)은 함께 공자로 함께 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느낀다는 것이다.

국어사전에 보면 공감(共感)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감: 남의 생각이나 의견, 감정에 대하여 자기도 그러하다고 느낌, 또는 그런 감정[101]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감정에 대해서 나도 그와 똑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나 감정에 대해서 나도 그런 느낌과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견은 다르지만 또 생각은 다르지만 '나는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또 감정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동감할 수 없다. 그러나 공감은 할 수 있다. 또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동감할 수 없지만 특정한 사람들과는 동감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공감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려 주는 것이다.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런 생각과 느낌이 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동감(同感)은 이분법(二分法)적인 관계를 만들어낸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고, 내편 네편을 만들게 된다. 즉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네가 그렇게 느꼈지만 나는 그렇게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감은 편 가르기를 만들고, 아군과 적군의 관계를 만들게 된다. 즉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

[100] 잠언 25장 11절.

[101]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동아 새국어 사전* (서울: 두산동아, 2004), 84.

공감(共感)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이다. 가령 네가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또 그렇게 느낀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동감(同感)이 편 가르기라면 공감(共感)은 통합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감은 서로를 신뢰하게 한다. 모두를 성숙한 관계로 이끌어간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생각하고 느끼며 산다. 이런 생각과 느낌은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가질 수 있는 요소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보다 더 아름답게 살라고 주신 은총 중의 은총이다. 그런데 생각과 느낌은 고정될 수 없다. 또 획일화될 수도 없다. 모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또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시간과 조건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느낌을 고정화시키고 획일화시키려고 한다. 또 양분화 시키고, 흑백논리로 편 가르기를 하려고 한다. 공감(共感)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감(同感)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지난 한국교회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이런 양분화와 흑백논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 면면히 흘러 내려왔다. 아니 한국사회 속에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되어 왔다. 한국교회의 역사가 어떠한가? 한국교회사는 계속되는 분열의 역사였다. 김리관은 "한국 교회의 분열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이다."[102]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100여 년, 지금으로부터 84년 전 1910이라면 교회도 많지 못했고 교회도 현재와 비교하면 유치기라 할 수 있는데 벌써 교회 분열이 개인적 개교회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한국 교회는 분열하기 위해 세워지고 분열을 좋아하는 체질을 가진 민족이 아닌가 하는 결론이 생긴다."[103]

한국교회의 분열은 해방 전에도 있었지만 커다란 줄기는 해방이후에서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신사참배 문제로 인한 교회의 분열이다.[104]

---

102) 김리관, *한미교회 분열사* (서울: 기독교문사, 1995), 79.
103) Ibid., 79.
104) Ibid.,, 90.
"조선신학교가 1946년 6월 장로교 총회에서 총회 직영 신학교로 승인되자 출옥 성도 한상동과 주남선은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으로 교육하는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신사 참배 반대 운동 때문에 옥중에 있을 때 특히 1940년 조선 신학교가 설립된 이후 이러한 신학교 설립을 위하여 내내 기도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는 이북에 재건파, 복구파의 교회가 세워졌고, 남한에서는 박윤선 목사의 고려신학교가 세워지면서 세칭 고신파 장로교의 분열이 표면화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해방 후 이와 같은 분열은 철저하게 공감(共感)이 아닌 동감(同感)의 원리로 문제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인 것이다. 즉 해방전 신사참배 문제로 옥고를 치른 성도들은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 참아냈는데 너희는 그렇지 못했다.'는 논리를 가지고 즉 공감(共感)이 아닌 동감(同感)의 원리를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편 가르기를 했던 것이다.

이후 한국교회는 또 한 번의 커다란 분열을 맞이한다. "고려파의 분열이 있은지 얼마 후에 장로교회는 또 하나의 분열의 진통을 겪었다. 기장파의 분립이다."[105]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의 분열도 공감(共感)이 아닌 동감(同感)의 방법으로 상대를 보았기에 발생했던 문제다. 서로간에 보수와 진보라는 틀을 가지고 나와 같지 않으면 적이라는 이분적인 사고는 동감(同感)의 방법이다. 동감(同感)은 계속해서 분열만을 만들 뿐이다.

한국교회의 분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세계 기독교 연합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약칭으로 WCC에 대한 의견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1959년 대한 예수교 장로회는 세 번째의 큰 분열을 겪게 되었다.[106]

해 온 것을 성취한 것이다. ... 경남노회는 1946년 7월 9일에 임시 노회를 열어 고려 신학교 설립을 환영하며 노회가 학생들을 추천할 것과 교사 2동을 대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 그러나 경남 노회 가운데 교회의 재건 운동에 반대하는 자들은 고려 신학교에 대하여 반대 운동을 폈다. 1946년 12울 3일 경남 노회는 이들의 영향을 받아 고려 신학교를 인정치 않기로 결정할 뿐 아니라 고려 신학교에 학생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105) Ibid., 94.

"김재준 목사를 중심한 신학의 자유를 구사하는 신학자들에 의하여 일제하에 탄생을 보게 된 조선 신학교는 해방 이후 유일한 신학교였기 때문에 총회 직영신학교로 인준을 얻기는 하였으나 반대하는 보수주의 목사들의 수가 많고 그 세력이 커서 어려움을 겪었다. .... 1947년 9월 18일 정규오, 이노수, 손치호, 이성권, 이치복, 손두환 등 51명의 정통을 사랑하느 학생 일동이 대구에서 열린 총회에다 학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 1934년과 35년에 아빙톤 주석 번역사건과 교회에서의 여자의 지위에 관한 논의가 총회적인 문제로 되었었는데 .... 신학적인 논의의 초점은 성경론에 대한 것으로 자유 진보파에서는 고등 비평을 성경 연구의 방법으로 수용하는 반면에 보수파에서의 성경은 무오설과 축자적 영감설을 주장하였다. ..... 1951년 5월 25일 열린 총회는 신학교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렸다. 즉 총회는 양 신학교를 다 폐쇄하고 새로운 하나의 총회 직영 신학교는 동년 9월 18일에 개교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조선 신학교측은 아에 동조하지 않았다. ... 1953년 제38회 총회는 김재준목사의 파면을 결정하였다. 기장측은 총회에서 물러나 6월 10일 조선 신학교 강당에서 목사26명과 장로26명이 모여 또 하나의 새 총회를 열었다. 그리고 1954년에 분파된 교회의 이름을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고 칭하였다."

이 분열 역시 상대방을 향한 공감(共感)의 마음을 갖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름은 틀림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의 잣대로 서로를 보았기에 생길 수밖에 없었던 분열이다.

이런 뿌리 깊은 분열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공감(共感)의 마음이 필요하다. 가령 실연을 당해서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뭐 그깟 일로 그러십니까?"가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다 해도 실연은 아픈 것이라는 상대방의 생각을 그대로 인정(認定)해 주고, 또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그 느낌도 그대로 인정(認定)해 주면서 "실연 때문에 괴로워하신다고요? 그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라고 하면서 먼저 상대방을 공감(共感)해 주고, 그런 다음 나의 생각과 느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리게 해서 나하고 생각이 같으면 아군 아니면 다르면 적이라는 이분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관계를 형성케 하여 다툼의 마찰, 나아가 분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3. Transformation(변화)

본 연구자는 교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분노와 한의 감정에서 벗어나와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까에 주안점을 갖고 먼저 2006년 1월에 site team을 구성했다. site team은 본 연구자가 담임목사로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중에서 4명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구성된 site team에게 본 연구자가

---

106) Ibid., 96.
"1948년 김관식은 장로교의 대표로 파송을 받아 감리교회의 대표 변홍규와 함께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세계 기독교 연합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그 이후 진보적인 기장측은 기독교 연합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 교회연합회(KNCC)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런가 하면 보수적인 고려파 교회는 일찍부터 기독교 연합 운동에 대하여 KS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취하고 있었다. ... 1951년에 22명의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세계 기독교 연합회는 용공적(容共的)인 기관이라고 성명을 발표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총회의 많은 보수적인 기독신자들은 시간이 감에 따라 세계 기독교 연합회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총회파 교회는 WCC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그룹 형성 운동이 있게 되었으며 양 그룹은 서로가 총회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문제를 두고 대치하게 되었다. 1959년 9월 28일에 대전에서 열린 제44회 총회는 개회 벽두부터 두 파의 치열한 싸움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 11월 23일 승동교회에서 총회장 노진현목사의 사회로 총회 속회를 개회하였을 때는 소위 합동측만이 참석하고 있었다. 연동교회에서 속회를 가졌던 소위 통합측은 새문안교회에서 한격직목사의 사회로 통합 총회를 다시 열였는데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통합과 합동의 분열이었으며 다시 합할 수 없는 서로의 원한을 맺고 오늘에 이르렀다."

2006년 2월중에 제출한 DP proposal을 나누어 주고 DP의 골격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공유하였다. 이후 본 연구자는 DP의 이론들을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5개월에 걸쳐서 전교인들을 대상으로 매달 첫주에 DP에 관련된 설교를 실시했다. 이는 본 연구자가 어떤 내용을 갖고 DP를 쓰고 있다는 것을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발표하는 것이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며, 실제로 그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site team을 대상으로 첫 번째 2주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는데, 진행과정 중 모두가 프로그램에 열중하여서 계획된 9시보다 한 시간이 지난 10시에 끝났다. 한 프로그램당 3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첫째, 과거 돌아보기다. 분노의 문제, 한의 문제, 화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런 분노나 화가 일어났던 때, 혹은 한의 감정이 생기게 되었던 때로 돌아가서 함께 나누는 것이다. 분노, 화, 혹은 한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런 감정이 일어났던 때를 찾아야 한다. 그때를 찾는 것은 분노나 화 혹은 한의 감정이 왜 일어났는가를 찾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삶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의 단계다. 이 단계는 왜 분노하게 되었는가? 왜 화를 내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내 안에 한의 감정이 생기게 되었는가? 를 찾아보는 단계다.

세 번째 단계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 단계다. 이 단계는 그러한 분노나 화나 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단계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유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단계다.

네 번째 단계는 나는 누구인가? 의 단계다. 이 단계는 나의 참된 존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는 단계다. 나는 분노에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 또 화나 한의 감정에 메여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분노로부터 자유하고, 화와 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단계다.

다섯 번째는 공감해주기 단계다. 이 단계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관계가 되어서 상처를 주지 않고, 또 상처를 받지 않는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대화의 기술을 익히는 단계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 서로의 소감을 나누는 단계다. 이 단계는 종이를 나눠주고 소감문을 적게 하였다. 그리고 수료예배 때 전교인 앞에서 발표하게 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자는 일차에 걸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계속해서 두 번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일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교회를 사임하게 되어서 두 번 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해서 본 연구자의 프로그램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아쉽게도 갖지 못했다.

1) 의식적 변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되뇌는 말이다. 인간은 스스로 삶을 선택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서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본 프로젝트는 봄(見)의 신학이다. 봄(見)은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다. 봄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다.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삶을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해석하면 그렇게 생각한대로 또 해석한대로 살게 되는 것이다.

봄(見)의 신학은 봄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 봄(見)은 모든 편견이 사라진 있는 그대로의 봄이다. 있는 그대로의 봄을 갖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 변화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귀착된다. 삶을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삶을 진실하게 살고자 한다. 정성스럽게 살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함부로 산다.

함부로 산다는 것은 삶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다. 막 사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봄(見)을 갖는 사람은 막 살지 않는다. 오늘 주어진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의식하게 된다.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삶이다. 본 프로젝트는 이런 변화를 요청한다. 또 그런 변화로 안내한다.

2) 구조적 변화

개인의 변화는 관계를 변화시킨다. 변화된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한다. 관계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다. 사랑하자고 외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된다. 초대교회는 그런 변화가 있던 공동체다. 오순절의 성령강림은 그들에게 진정한 봄(見)을 이루게 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의식하게 된다. 이런 그들의 변화는 관계하는 모든 관계들을 변화시킨다. 그들은 자기의 물건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모든 물건을 서로 간에 통용하였다.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눠주었다.[107]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이 변화는 이제부터 변하자는 슬로건 아래서 된 것이 아니다.

봄(見)을 이루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관계는 구조다. 구조가 바뀌는 것이다. 교회는 사랑이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다. 사랑의 공동체는 슬로건으로 되지 않는다. 그런 변화는 지속성이 없다. 잠시 잠깐 뿐이다. 구조의 변화는 스스로 되어지게 해야 한다. 그것은 내가 변하는 것이다. 나의 변화는 봄(見)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진정한 봄(見)이 이루어질 때 관계의 변화,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분노와 화 그리고 한은 깨어진 관계에서 발생한다. 본 프로젝트는 이런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한다. 또 그런 회복으로 안내한다.

---

107) 사도행전 2장 42-47절.

제 5 장
실제 및 평가

본 연구자는 상기에서 기술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개괄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 프로그램 참여자 선정은?

주로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주부들이다.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성이 전 연령층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두가 대상이지만 특성상 30에서 50대 사이의 주부들이 매우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제도가 아직도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억눌려서 분노와 화와 한의 감정이 많은 계층이기 때문이다.

2)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첫째 자신의 삶에 벌어진 일들을 정확하게 듣게 하고 보게 한다.

삶 속에서 벌어진 또 벌어지는 문제들은 그것을 바로 듣고 또 바로 보게 되면 문제는 대부분의 문제는 저절로 없어지게 된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한다.

나라는 존재는 상대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ego도 있지만 나의 원형인 self도 있다. ego는 항상 상처를 주고받음 속에서 살지만 self인 나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나로서 존재한다. 그런 나를 찾게 해서 모든 분노와 화와 한의 감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감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로가 가질 수 있는 생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 줌을 통해서 대립의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로

만드는 것이다.

3) 프로그램 시행 일자는?

맞춰서 11월 중에 실시하려고 했다. 실시기간은 한번에 8주를 하고, 주중에 한번 모이는데, 화요일 저녁에 한다. 화요일은 월요일의 피곤함이 지난 후 심도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요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4) 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여름에는 덥지 않고, 겨울에는 춥지 않아야 한다. 7월은 무척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에어콘으로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켰고, 촛불과 화병 등으로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오디오를 준비해서 감정이입을 충실히 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5) 프로그램 시행 전략은?

첫째로 화의 문제, 집착의 문제, 욕망의 문제 등등 모두가 하나로 관련되지만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했다.

두 번째는 존재의 문제를 가르치고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깨우치게 하였다.

세 번째는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스스로 훈련케 하였다.

6)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그 동안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 다만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있었을 뿐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다.

둘째는 그런 눈과 귀를 가지고 자신에게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기 때문에 삶을 보다 더 낫게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였다.

셋째는 각자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 동안 나는 상처가 가득한

존재인줄 알았는데, 나는 결코 상처받은 적은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 모든 상처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

넷째는 만나는 사람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태도를 만들어져서 오해가 없는 이해의 삶을 살게 되었다.

7) 프로그램 운영 방법은?

집중적인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깨어 나오게 하였다. 마치 불가(佛家)에서 선문답을 하듯이 "그것이 화가 날 일입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깨달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1. 연구반

1) 조직

site team 구성은 분노의 문제, 한의 문제, 감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공감하고 협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연구 반원은 아래와 같다.

이름	연령	교회직분	직업
오영순	50대	집사	주부
김은총	40대	집사	컴퓨터
김영숙	30대	집사	아동교재 영업
오희화	40대	집사	사업

2) 운영계획

①site team에게 시행코자 하는 프로젝트를 사전에 설명하였다.

②본 연구자가 실시코자 하는 프로젝트는 설명보다는 경험을 해야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므로 site team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들로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모든 한국인들의 정서에 담겨있는 분노와 화와 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임을 경험케 하고, 알 수 있게 하였다.

④site team은 매월 1회씩 만남을 통해 서로의 변화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⑤site team이 교회 내에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관찰하도록 한다.(이는 두 번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먼저 참여했던 site team으로 하여금 관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으나 계획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2. 프로그램에 따른 프로젝트 운용

1) 설교를 통한 사전 이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즉 분노와 화와 한의 문제에 대한 설교를 5주간에 걸쳐서 계속 진행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교 1
제목 문제 푸는 인생
본문 창1:26-31

얼마 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민이 있어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 그런데 대충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부부 문제입니다”

심방 마치고, 오후에 만났는데, 저녁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저희 신랑은 문제가 많아요.”

“뭐가 문제인데요?”

“도대체 생각이 안 맞아요.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참 문제가 많더군요. 이 자매의 말에 의하면 그 남편은 문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참 듣고 있다가 제가 그랬죠.

"그 놈 참 나쁜 놈이네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아니 제가 뭐 잘못 말했습니까? 자매님 말을 들어보니 자매님 남편은 나빠도 한참 나쁜 사람이 아니라 놈이네요"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남편도 문제, 아내도 문제, 아이들도 문제, 학교도 문제, 교회도 문제, 대통령도 문제, 정부도 문제, 국회도 문제, 세상 모든 것이 문제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문제니까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문제 풀어야죠.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풀어야죠.

그런데 그 문제가 풀리냐?

안 풀리죠. 어떻게 그 문제가 풀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 풀면서 말입니다.

고3때 학력고사를 보는데요(그때는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였지요). 수학문제 3번이었나? 아무튼 도저히 안 풀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한참 붙들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서 다른 문제 다 풀고 다시 돌아왔는데, 역시 안 풀리는 거예요. 엄청 답답하더군요.

여러분, 안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다시 말해, 삶을 문제로 보고 그 문제를 풀면서 살려고 하면 답답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누가 냈냐는 것입니다.

수학문제는 수학선생님이 내 주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누가 냈냐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문제들 도대체 누가 냈습니까?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모든 것이 문제라고 하지요.

우리 대통령이 부시를 만나고 왔더니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 노조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회가 문제라고 합니다.

요즘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가고, 결손 가정이 많다며 가정이 문제라고 합니다.

신문을 보면 다 문제고, 방송을 들어도 다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신문이나 방송처럼 "세상이 다 문제야!"라고 하지요.

고사성어에 부화뇌동(附和雷同)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은 없고, 무조건 남의 주장에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문이 문제라고 하니까 다 문제입니다. 방송이 문제라고 하니까 무조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고있는 것입니다. 신문에 속고, 방송에 속고, 세상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문제가 많더라"

"하나님이 보시니 뜯어 고쳐야 할 것이 산더미처럼 쌓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문제가 아닌 "좋음"으로 보십니다. "좋았더라" 아니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좋음"이 아니라, 뭡니까?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삶을 문제로 보는 분들은 참 희한합니다.

남편이 늦게 퇴근해도 문제 또 일찍 퇴근해도 문제, 아내가 집에만 있어도 문제 또 밖으로 나가도 문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도 문제 또 못해도 문제, 교회가 작아도 문제 또 커도 문제,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항상 문제 속에서 살고 또 그 문제 풀면서 정신 없이 삽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문제로 보나? 문제를 내 준 사람도 없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왜 모든 것이 문제냐? 그것은 "어떻게 해 보려는 우리의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원함으로 모든 것을 보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모든 것을 문제로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등산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왔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비가 와서 등산을 망쳤어! 비 때문에 오늘 기분 완전히 잡쳤어!"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비

때문에 내 기분이 망가졌냐?

아닙니다. 비는 비의 역할을 잘한 것입니다. 비 때문에 내 기분이 망가진게 아니지요. 그러면 내 기분을 누가 망쳤냐? 그건 비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날씨를 어떻게 해 보려는 내 마음,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이 되어야 한다는 내 원함이 내 기분을 망친 것이지 결코 비가 내 기분을 망친 것이 아닙니다.

비가 와서 나는 망쳤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비를 맞으면서 사랑을 속삭이고, 또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가뭄을 해결하게 되었다고 환호를 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비를 풀어야 할 문제 거리로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축복의 선물로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를 선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내 원함으로 그 비를 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신분과 체면 때문에 벌건 대낮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지요. 어떤 분은 식사기도를 하긴 해야겠는데, 남들이 뭐라 할까봐,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듭니다. 옆에서 "뭐하고 있는거야"라고 하면 "어, 국에 뭐 빠진 것 같아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미 그런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런데 네가 눈이 나빠서 그런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깨어나지 아니하면, 신문이나 방송이 다 문제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런 세계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지요.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니고데모의 생각처럼 다시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본다는 것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씻겨진 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심히 좋았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문제"라고 아니 "문제투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보실 때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생긴 눈일까요?

하나님의 눈은 틀이 없습니다. 틀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온 것은 좋은 것, 들어오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도식이 만들어질텐데, 틀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냥 있는 그곳에서 신앙 지키면 됐지 왜 떠나라고 하시냐? 떠나지 않으면 그 동안 형성된 틀, 규정, 사고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떠나보니까 그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틀, 규정, 사고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절대 진리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 이렇게 살수도 있구나" "아, 이런 일도 있구나" 틀이 깨지는 것이지요.

여행을 다니다보면 "삶이 확장"되는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해외여행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주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젊을수록 "삶이 더 확장"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년에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을 한번씩 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행할 때마다 많은 변화와 삶의 확장이 일어나거든요.

필리핀에 가면 세계적인 빈민가가 있습니다. "파시코"라고 하지요. 이곳은 바닷가 방파제에다 집을 짓고 사는 곳인데, 마약이 거래되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마닐라로 출퇴근하며 몸을 팔고, 항상 폭력이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곳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골칫거리와 같은 이곳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아무튼 옛날 우리나라 청계천

뚝방촌과 비슷한 곳입니다.

이곳에 두 번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느낀 것은 "아, 이렇게도 살수 있구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도 웃을 수가 있구나!" 삶의 기준이, 삶의 틀이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어디에 써있습니까?

생각에, 머리에, 고정된 관념에, 틀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틀이 없어지면 "아, 그렇게 살수도 있구나!"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바로 이런 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랬구나"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힘들었냐!"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똥을 더러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자기가 똥을 싸고 그 똥을 뭉개고, 또 그 똥을 먹기도 합니다. 결코 더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아이들이 똥을 더러워합니다. 언제부터지요? "에이! 지지", 바로 "지지"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똥을 더러워하지요. 그들의 머리에 똥은 더러운 것이라는 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후 이 아이에게 똥은 평생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똥이 더러운 것입니까?

똥은 그냥 똥입니다. 더럽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부모님들이 심어준 고정관념이지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까?

돈이 그냥 없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사회적 통념이지요.

이런 것들은 그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틀입니다. 부모가 주었던, 사회가 주었던 아니면 내가 배웠던 우리 안에 형성된 틀입니다.

바로 이 틀을 깨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한 세계에 살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여러분, 평생 문제만 풀다가 가시겠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 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신문에서, 방송에서 들은 얘기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전해오던 사회통념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학습되어온 내 지식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풀어야할 문제가 가득할 것입니다. 문제가 가득하니 여러분의 인생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답답함이 항상 있겠지요. 또 그렇게 살다가 한 많은 세상, 이제 천국에나 가서 평안히 살자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문을 믿고, 방송을 믿고, 사회통념을 믿고, 또 내 지식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라고 주신 선물임을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것이고, 또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안 풀리는 문제 풀면서 답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삶을 살다가 또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내 안의 틀"을 깹시다. 또 "내 안의 규정"을 깹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눈은 모든 것을 "좋음"으로 보는 눈이지요. "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눈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싫음"이 없고, "좋음"만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설교 2

제목 당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14:27

여러분, 어떻게 살면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주보에 예수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싣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분들마다 예수님의 이런 사진은 처음 본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늘 십자가에서 고통 받는 주님의 얼굴만을 보아왔습니다. 혹은 아무 표정 없는 얼굴, 그런데 주보에 실린 예수님의 얼굴은 크게 웃지도 않으시지만 정말 편안하고 다정스런 얼굴, 정말 기쁘고 행복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주보에 이 그림을 표지로 싣고 있나?

저에게는 개인적인 사명 선언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이고 선언이지요. 무언가 하면, "행복한 사람, 행복케 하는 사람, 행복 충만!"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마침내 모두가 행복케 되어서 행복이 가득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행복케 하는 사람, 행복 충만!"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사명 선언서입니다. 제 서재 옷장에 항상 붙어 있지요.

그런데 그 행복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바로 주보에 실린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표정입니까? 저는 이 표정이 저의 표정이 되고, 또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도 이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을 뵈면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사시는데,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좀 알려주시지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별거 없다. 나는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일할 때 일만 하고, 잠잘 때 잠만 잔다"

정말 별거 없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저도 늘 그렇게 사는데 저는 왜 늘 기쁘고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렇지요? 그때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이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다. 너희들은 밥 먹을 때 일할 것을 생각하고, 일 할 때는 쉴 것을 생각하고, 잠잘 때는 꿈을 꾸지 않느냐? 그러니까 밤낮 걱정만 하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똑같이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밥을 먹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음식이 좋고 나빠서 일까요? 아니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염려하면서 일을 합니다. 일이 어렵거나 쉬워서 일까요? 역시 아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행복하게 자는데 어떤 사람은 고민과 걱정 속에서 잠을 잡니다. 침대가 좋고 나빠서 일까요? 결코 아니지요.

왜 똑같은 삶인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삶을 머리로 살기 때문입니다. 삶을 머리로 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밥은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밥맛으로 먹지요. 그런데 생각이 복잡하면 밥맛이 느껴집니까? 지금 밥이 입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밥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머리로 살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포근한 이불 속에 두 다리 쭉 펴고 눕지요.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나는 지금 이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머릿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머리로만 살아왔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공상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즉 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여기를 잃어버리고 과거나 미래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은 85%가 과거의 원망, 설움, 한, 죄의 삯, 즐거운 추억 속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기대, 호기심으로 살고, 현재 의식은 나머지 5% 밖에 없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과거의 기억과 또 머릿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사는 것이지요.

심방을 다니다 보면 또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이러한 통계가 정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기억 속에 묶여 삽니다. 남편이 섭섭하게 했던 일, 자식들이 섭섭하게 했던 일, 시부모가 섭섭하게 했던 일, 심지어 지금은 고인이 돼서 이 땅에 살고 있지도 않은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무거운 짐이거든요.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오지요. 내려오다가 어디에서 걸립니까? 좁은 가슴에서 따-악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슨 병이라고 합니까? "화병"이라고 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화병"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질병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를 살 수 있습니까? 과거를 어떻게 삽니까?

그럼 과거를 어떻게 해 볼 수 있습니까? 과거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높다해도 과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과거를 어떻게 해 보려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머리 속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을 참고삼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과거를 참고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의 기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울하지요. 억울하지요. 답답하지요. 재미가 없지요.

여러분, 과거는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간 버린 거예요.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살 수 있습니까? 미래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로 와야지 사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오늘입니다. 아니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겠지요.

과거나 미래는 생각 속의 세계입니다. 실제의 세계가 아니라 머릿속의

세계지요. 머릿속의 세계를 산다는 것은 꿈속에서 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젠 꿈에서 깨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과거나 미래의 꿈속에서 깨어나 오늘 혹은 지금을 살 수 있을까요?

오래된 얘기지만 예전에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래요. “어휴 내 새끼, 우리 강아지” 나는 다 커서 청년이 되었는데,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당신들이 어릴 적에 키우셨던 기억으로 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나를 만나고 있는 것인가? 저에 대한 기억을 만나는 것이지, 저를 만나는 것이 아니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판사님, 판사님하고 불렀습니다. 이유인즉, 이 아이를 낳고 얼마 있다가 스님이 한 분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잘 해주었더니, 아이의 관상을 봐줬는데 “앞으로 법관이 될 인물”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판사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부모님의 눈에는 판사로 보이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아이는 법과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고시를 봤는데, 몇 번 떨어졌지요. 그리고 나서 판사가 됐나?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들은 정말로 이 아이를 날마다 만나면서 이 아이를 키웠을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 대한 기억을 만나듯이 이 부모들도 이 아이를 만났던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 혹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만난다는 것은 머릿속에서의 만남이지 실제의 만남이 아닙니다.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이 정말로 만나는 것이지 머릿속에의 기억이나 생각으로 만나는 것은 진정한 만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지금 아픔을 만나고, 지금 고민을 만나고, 지금 기쁨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지요. 만나지 못하니까 아픔도 치료해 줄 수 없고,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없고, 기쁨도 함께 나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곤 엉뚱한 것만 계속해서 먹이지요. 배가 아파 탈나고,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내가 희생재물이 되어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려고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무슨 평안입니까?

오늘 주님은 그 평안을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이 갖고 계신 평안, 주님이 살고 계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은 어떻게 사셨냐?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했다는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저마다 두 손에는 커다란 돌멩이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 씩 하나 씩 다 떠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하노니”, “나도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니”, “너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은 과거의 기억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즉 산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염려와 근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지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되어서 염려하라. 즉 내일이 오늘이 되면 그때 염려하면 되지, 왜 미리부터 염려 하냐? 왜 머리로 사냐? 같은 말이지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에 나를 사랑했었냐? 아닙니다.

앞으로 날 사랑할거냐? 역시 아닙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항상 지금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만나면 지금 고쳐주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으면 지금 자유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지금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먹고 있는 네 밥을 보고, 지금 먹고 있는 네 반찬을 보라. 또한 지금 하고 있는 네 일을 보고, 지금 누워있는 네 잠자리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최대한으로 누리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일할 때 일만 하고, 잠잘 때 잠만 자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누리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살지 말고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행복이 더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설교 3

제목 왜 화를 내느냐?

본문 창4:1-16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잘 벌까요?

돈은 아무나 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못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눈들이 반짝 반짝 빛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돈 많이 써서 배운 건데...., 저도 본전을 빼야 하니까 한가지씩만 풀겠습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하나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돈 많이 빌립니다. 은행에서 빌리고, 심지어 사채업자에게 빌리고, 돈 많이 빌립니다. 돈을 빌리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못합니다. "내가 돈을 빌려 달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돈을 못 빌립니다.

이런 두려움은 특히 남자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이런 것을 두려움이라고 하지 않지요.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돈을 빌리냐? 굶으면 굶었지..." 두려움을 자존심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은 필요한데, 남에게 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집에서 담배를 뻑뻑 피우며 한숨을 푹푹 쉽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 아내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아내가 돈을 가져다 줍니다.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친정에서...

요즘 다단계판매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암웨이니, 하이리빙이니, 엘투엘이니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녀오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아주 뻔뻔해져요. 평상시 목사 앞에서 말도 못하던 분들이 "목사님,

이것 좀 사 주세요…” 뻔뻔해도 너무 뻔뻔해진 것 같아요.

이 분들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뻔뻔해지는 교육을 받은 것이지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거절을 당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지요. 게슈탈트 심리치료사인 배르벨 바르데츠키라는 사람이 지은 “따위 맞은 영혼”이란 책이 있습니다. 장현숙이란 분이 번역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장현숙집사님이 계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냐? 그것은 과거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어려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 이런 일들이 마음 속에 쌓이게 됩니다. 즉 그런 것들로 인해 “영혼에 따귀를 맞아서 그것이 시꺼먼 멍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에게 요청을 못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빌려달라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는 빨리 극복해야 할 상처입니다. 과거를 탐사해서 치료하는 게슈탈트 심리 치료를 이용하든,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하든 이런 것들은 빨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 이런 것을 보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전폭적인 수용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밖에서는 경쟁사회이기에 밟기도 하고 또 짓밟히기도 하지만 가정은 그 모든 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남편이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해서 열을 내는 거예요. “내가 더러워서 그 회사 안나간다” 깜짝 놀란 아내가 “아니, 당신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당신한테 딸린 처자식이 몇 명인데 그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간이 다 떨어지겠네” 이건 지혜로운 아내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같이 흥분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정말 더러운 회사네요. 그런 회사 당장 때려치워요. 내일부터 내가 돈 벌어올께요”

여러분, 더럽다고 직장 때려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갑자기 아내가 밖에 나가 돈 벌어 올 수 있겠습니까? 아침이 되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서 또 출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은 전폭적인 수용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돈을 달라 하면 돈을 주고, 집을 나간다 하면 나가라고 합니다. 고생하고 잘못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폭적인 수용입니다. 받아주는 거지요.

탕자의 아버지는 압니다. 그것을 받아줘서 당하는 고통보다 거부할 때 생기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보면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인이고, 또 하나는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직업을 가진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는데, 가인은 아무거나 드렸다. 아벨은 정성껏 드렸는데, 가인은 정성이 없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 무수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그분들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 안받았다. 이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거절을 당하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거절을 당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화를 냅니다. 돈을 빌리러 갔는데, 안 빌려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지요. "은행이 뭐 이래, 재벌한테는 굽실거리며 돈을 갖다 주고, 서민들한테는 몇푼도 안되는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말야..." 화를 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표준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가인아, 그게 화가 날 일이냐?"라고 묻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화날 일입니까?

돈을 빌리러 은행에 갔는데, 빌려주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러 갔는데, 친구가 돈을 빌려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화가 나서 저에게 오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며 잘 설명해 주었는데, 자기는 설명해 줘도 모른다며 사업계획서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물론 그 동안 내가 잘못한 게 많이 있긴 하지만 이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이 좋다는 집사가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화가 날 일입니까?

가인은 화가 잔뜩 나서 씩씩 거리고 다닙니다. 아마 가인의 성질로 봐서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집어 던지고 난리를 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가인이 아벨에게 말합니다. "아우야, 우리 들로 나가자" 그리곤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까지 갑니다. 자기 동생까지 죽이는 거예요.

지난 2월 우리는 대구 지하철 화재 현장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장애인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봐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는 계속해서 거절을 당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화가 가득차서 마침내 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거절을 당하면 화를 냅니다.

가인도 화를 내고, 남편도 화를 내고, 지하철 방화범도 화를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먼저 가인입니다.

“하나님, 그럼 화가 안납니까? 동생의 제물은 열납하셨는데, 왜 제 제물은 거부하시는 겁니까?”

남편도 말합니다.

“하나님, 그럼 화가 안나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게 있지만, 그래도 집사람이 저를 무시하는데 왜 화가 안나겠습니까?”

방화범도 말합니다.

“하나님, 한번 제 입장이 되보세요. 내가 이렇게 병신이 되었는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한결 같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것은 화가 날 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화를 내고 있는 가인에게 “가인아, 왜 화를 내냐? 왜 얼굴색이 변했냐? 그게 화가 날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화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반응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기관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가령 누가 나에게 뺨을 때렸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즉시로 상대방의 뺨을 때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뺨을 맞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각기 반응하는 것이 다른 것이지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점수가 다 다르겠지요. 어떤 학생은 80점을 맞았는데,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95점을 맞았는데도 얼굴이 시무룩해있습니다. 각기 반응하는 것이 다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각기 반응이 다른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게 살면서 그런 반응기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통 신념체계라고 하지요. 그렇게 반응하도록 내 머릿속에

무의식중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빰을 맞았다. 그러면 "맞으면 때려야 한다"는 내 안에 형성된 신념에 의해서 나도 상대방의 빰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맞아도 참는거야"라고 하는 신념체계가 형성된 사람은 빰을 맞아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념체계는 어떤 것입니까? 철저히 자기 주관적인 것이지요.

빰을 맞으면 나도 반드시 때려야 합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지요.

그렇다고 빰을 맞으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지요.

이런 것들은 내 신념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누군가 거절하면 화를 내야 합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나의 신념체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가인아, 그게 화가 날 일이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는 이유를 밖에서 찾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 아파서 그래, 저 사람이 나를 거절했어.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

그렇다면 돈이 없는 사람은 다 화를 내면서 삽니까? 아니지요.

또 몸이 아픈 사람은 다 회를 내면서 삽니까? 역시 아닙니다.

그리고 남에게 거절당하는 사람은 다 화를 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늘 싱글벙글 행복하게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데,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거절을 당했어도 도리어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의식중에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부자 아빠에게서 부자 아들이 생기고, 가난한 아빠에게서 가난한 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자녀들이 생기고, 불행한 가정에서 불행한 자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신념체계, 혹은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가인에게 물으시던 물음을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남에게 거부당하는 것이 화가 날 일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 반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바깥이 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깥 탓 하면서 살며 여러분은 늘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사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깥 탓하며 바깥 장단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습니다!!"

설교 4

제목 정답은 어디에?

본문 삼하12:15-23

저는 욕심이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꼭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었지요. 아마 모든 막내들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데는 부모들도 한 몫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남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때부터 떼를 쓰고, 울지요. 그럼 부모들은 아이를 달래려고 혹 어떤 부모는 아이들 기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떼쓰는 아이의 입을 막기 위해 달라고 하는 것을 사줍니다. 유아심리학자들은 그것을 부모와 아이들과의 시소게임에서 부모가 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아, 내가 떼를 쓰거나 울면 우리 부모님들은 들어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의식이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서양의 부모들은 그런 상황에서 절대 No라고 한답니다. 울거나 떼를 써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가르친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저 역시 갖고 싶은 것은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갖게 되면 얼마나 흥분되는지요. 결혼 후 1년 있다 처음 차를 샀을 때는 정말 잠이 안 오더군요. 흥분 되서.... 이런 흥분은 몇 번 더 있었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던 꿈의 노트북 LG-IBM 570, 물론 지금은 구식이 되었지만 당시는 최고의 노트북이었습니다. 책상위에 그것을 놓고 보기만 해도 막 흥분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졌을 때 흥분이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처음 집을 장만했을 때 흥분이 되서 며칠간 잠을 못 잤다고 하더군요.

또 어떤 분은 사랑하던 자매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또 어떤 분은 처음 자녀를 낳았을 때....

사실 이 땅에 살면서 흥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흥분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로뎅은 "삶은 사랑하고 감동하고 희구하고

전율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삶의 모든 것은 우리를 전율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우리의 감각이 너무나 무뎌져서 그런 흥분과 전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도 매우 흥분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저녁에 잠깐 잠을 자다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 아랫집 옥상에서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다윗은 숨이 콱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 도령이 방장에게 "저기 그네타고 있는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했던 것처럼 다윗은 신하를 시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다녀온 신하가 말하기를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유부녀네" 그러나 다윗은 그녀에게 남편이 있음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후 다윗의 기가 막힌 계략으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고, 작전대로 밧세바는 다윗의 정식 아내가 되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 사랑스런 여인, 그토록 갖고 싶었던 여인 밧세바!

다윗은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가 그 여인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사랑스런 여인이 임신을 한 것이지요. 남자들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 더 사랑스러워진다고 하던데, 다윗의 눈에 비친 밧세바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아이는 다윗과 밧세바, 두 사람을 꼬-옥 닮았습니다. 너무나 잘생긴 사내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행복은 시작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곤 청천병력과 같은 말을 한마디 하고 갑니다.

14절 /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훼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당신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소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고, 그 소식은 행복했던 가정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날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메달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를 살려 주옵소서"

밥도 먹지 않습니다. 잠도 맨 땅에서 잡니다. 나이든 신하들이 그를 바닥에서 일으키려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밥을 먹자고 해도 음식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일주일!

그러나 아이는 아버지의 기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죽자 제일 걱정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도 그 정도였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우리 왕이 어떻게 될꼬?"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신하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이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닥에서 일어나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곤 왕궁에 돌아와 신하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하는 모습이 너무나 이상스러웠습니다. 자기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묻습니다.

21절 /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찜이니이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22~23절 /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어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거기에는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지위도 신분도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났을 때 비록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아니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는 것을 보면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지난 번 태풍 매미 때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 하지 않나,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크리스챤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피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듣겠다는 것이 억지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집도 밭도 다 떠 내려 갔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 살아있으니 그래도 감사하지요"

"자식 데려 가려면 이 모진 목숨을 데려가시지...."라고 울부짖는 부모님의 마음,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믿는 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믿습니다. 사건이 자기 뜻대로 되면 할렐루야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승진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째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장이 질문을 합니다. "승진 시험에 앞서 간단한 질문을 하겠네. 장난이라 생각하지 말고 소신껏 대답해 주게나. 둘 더하기 둘은 얼만가?"

사장이 나를 무시하나? 사장의 질문이 하도 어이가 없었지만 첫째 지원자는 소신껏 대답합니다. "넷입니다"둘째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사장은 첫째 지원자에게 한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둘 더하기 둘은 얼만가?"잠깐 생각에 잠긴 두 번째

지원자, 뭐라고 했을까요? “사장님께서 답이라고 하시는 그것이 답입니다”둘 중에 누가 승진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 지원자였겠지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또 믿는다! 믿는다! 하는데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11월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을 맞이하였고, 또 다음 주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간절히 기도하며 원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소원했는데,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한다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여러분은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은 할렐루야고, 내 원대로 되지 않은 것은 혹시 “놀래서 자빠 지겠다”놀랠루야는 아니신지요.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고 안되고에 의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되고 안 되고를 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옥한 땅 하란을 떠나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속에서,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도 비록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싸늘한 시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 뜻이 아닌, 또 내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모두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것이 내

입에 쓰고, 내 몸에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운 대로라면 둘 더하기 둘은 넷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은 것! 내가 배운 대로라면 그것은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업이 잘 안된 것! 내가 배운 대로라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것! 역시 내가 배운 대로라면 그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배운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가정이 아들을 낳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안 나오고 계속 딸만 나옵니다. 남편도 시부모도 그런 아내에게, 또 그런 며느리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임신을 하자 아들인지 딸인지 감별을 했습니다. 딸이면 즉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드디어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애지중지 10개월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은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자 흉기에 찔려 피살"-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니 평소 공부를 못한다는 아버지의 꾸중에 참다못한 아들이 술에 취해 거실에 있던 아버지를 죽이고, 또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는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답입니까?

내가 배운 대로라면 아들이 답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얻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얻는 그 아들이 아버지도 할머니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내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있지 않습니다. 답은 오직 한 곳에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순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주검을 보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다윗에게 지혜의 왕 솔로몬을 주시고, 그의 모든 장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다윗처럼 여러분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다가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도 더 소중한 것을 주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장래를 크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설교 5

제목 행복아! 어디 있었니?

본문 행9:17-22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 벌써 일 년을 지나 한 달이 더 되었습니다. 교역자들이 대부분 그런데 저도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결혼한 지 13년이 되는데, 8번 정도 이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이사를 하면 버릴 물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사하면서 많은 물건을 버려봤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할 때 가져왔던 물건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도, 결혼 생활에 대한 기도, 그리고 배우자에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많은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여자에 대한 한 가지 신념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란 책을 읽으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은 잔느라는 여자입니다. 잔느는 부유한 집의 딸로서 좋은 집안의 남자의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얼마 안 되어서 남편과의 애정이 식어지고 또 남편의 불륜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잔느는 이제 그의 아들에게 집착을 합니다. 아들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아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 여자에게 잘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년부 활동을 할 때 많은 자매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홍석형제가 결혼하면 아내한테 정말 잘 해 줄거야.”저를 향한 공식적인 언어였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기도하고, 또 신념처럼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내가 저와 다르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아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왜 나와 같지 않냐?”는 이유 때문에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에 저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밖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속에서 끓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자기 분을 못 참고 들고 있던 전화기를 방바닥에 내리칩니다. 제 기억으로 몇 번인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방가이버"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고친다고 붙어준 별명입니다. 다음날 되면 그 망가진 전화기를 고칩니다. 깨진 곳은 순간접착제로 붙이고, 끊어진 것은 납 땜으로 붙여 놓습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쓰다가 창고 속에 들어갔고, 그러다가 7번째 이사할 때 결국 버렸습니다.

저는 가끔 집에 있는 전화기를 사용할 때마다 그 전화기가 생각납니다.

"그 때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준비 기도도 많이 하고, 결심도 단단히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결혼 전에는 나와 다르다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다르다는 것이 불평의 원인입니다. 불만의 시초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저로 하여금 이 지경까지 오게 했을까요? 누구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집안은 참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먼 조상인 우리 할아버지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 막내아들이 저의 직계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태어날 때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겨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죽어 할아버지는 어려서 젖동냥으로 자라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위의 형의 도움으로 남부럽지 않게 잘 자라게 되었고, 이후 큰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문을 아주 전통 있는 가문 또 뛰어난 가문이라고 이구동성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가문은 전통에 매우 충실했고, 어떠한 경우에도 가문의 전통을 어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고국을 떠나 이국땅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매우 큰 도시였고, 장사하는 분들, 또 많은 학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는 청년이 되자 고국으로 돌아와서 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민족의 전통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저의 스승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삼척동자도 알만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선생님 주변에 모였고, 정부에서도 우리 선생님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추천으로 정부의 종교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했습니다. 특별히 신흥 종교집단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의 상사는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곤 특별한 명령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신흥종교집단 추종자들을 잡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여도 좋으니 모두 잡아들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큰 임무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며칠 전 그 집단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를 만났는데, 얼마나 악질인지 아니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는데도 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악질이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잡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이 악질들을 잡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동네마다 심어둔 스파이들에게서 첩보가 들어오면 저는 즉각 출동해서 그들을 잡아 들였습니다. 어떤 때는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을 급습해서 수 십 명을 잡아들여 위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의 눈은 잠을 못 자서 피곤에 찌들었고, 또 그들을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새빨갛게 충혈 되어 갔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 사람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뛰어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상사가 다시금 자기 방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그가 또 하나의 명령서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명령서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굵은 글씨로 출장명령서라고 써있었습니다. 위성도시로 도망간 그 악질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서였습니다.

명령서를 받아든 저는 의기양양해서 사무실 사람들 그리고 그 동안 깔아 두었던 몇몇의 첩자들과 함께 그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들의 품속에는 칼과 총과 수갑등 그들을 잡아오기 위한 각종 도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몽둥이로 사람을 족치고, 구둣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던 것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그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는 그 악질들을 잡아서 족칠 것을

생각하며 흐뭇한 미소들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잡아야 할 그 악질들이 있는 마을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흥분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부터 강한 빛이 내리쬐더니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곤 아무것도 안보였습니다. 같이 내려왔던 동료들도 보이지 않고, 상사가 내 손을 꼬-옥 잡으며 쥐어 주었던 명령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악질들을 잡아야 할텐데 그 악질들이 모여 산다하는 마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깜깜했습니다. 더구나 계속해서 귓가를 맴도는 소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는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제 정신이 다 사라져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동안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우리 집 가문 그리고 전통,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그 높은 학문들, 미쳐버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축해서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가까운 호텔에 짐을 풀고 계속해서 침대에 누워있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떠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앞이 깜깜했습니다. 가방 속에 있는 체포 영장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쓰러졌을 때 없어졌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왔던 사람들도 내 꼴이 이렇게 돼서 그런지 인기척이 없는 것을 보아 어디론가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참을 누워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그리곤 어떤 사람이 내 눈을 어루만지며 "사울 형제, 형제가 오는 도중에 형제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내 눈에서 손을 떼는 순간 갑자기 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그 깜깜했던 눈이 갑자기 밝은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방문도 보이고, 창문 너머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도

보였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탁자 위에 있던 꽃병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들꽃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눈에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 보여 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문도 보이고, 창문 너머의 나무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꽃병 속에 꽂혀 있는 이름 모를 들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전에도 이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문을 열고 닫으며 생활했고, 길을 갈 때마다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을 밟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름다운 들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들꽃도 있습니다.

벌 개진 눈, 새빨갛게 충혈된 눈, 온통 악질들로 가득했던 그 눈에는 사람이 안보였습니다. 아니 사람은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문도 안보였습니다.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도 안보였습니다. 들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들꽃이 그의 눈에 보여 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나를 보아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러나 그의 눈은 그것들이 보여 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참으로 아름다운 눈이었습니다. 작지만 깊게 패인 그의 눈은 참으로 매력적인 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굴은 몰라도 눈만큼은 잘 생겼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아름다운 눈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눈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보라고 하셨는데, 그의 눈은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 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아내였습니다. 꽃 같은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도, 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내 아내가 된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밥하는 여자, 설거지하는 여자, 빨래하는 여자, 내 말에 예라고 대답하는 여자, 내 비위를 조금도 거스르지 않는 여자,....

그녀가 내 아내가 된 순간 그녀는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만 아내였을 뿐입니다.

그녀가 그녀였을 때 나와 다르다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내가 된 순간 나와 다른 것은 나를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녀였을 때 화장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내가 된 순간 그것은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녀였을 때 바쁘다고 한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내가 된 순간 그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규격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규격화는 산업화가 이루어낸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속에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 모든 것이 규격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틀에 맞아야 합니다. 만약 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불량품입니다.

그런데 이 규격화는 제품이나 물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모든 것에 적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인간에게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러해야 한다. 자식은 이러해야 한다. 선생은 이러해야 한다. 학생은 이러해야 한다. 남편은 이러해야 하고 아내는 이러해야 한다. 이러한 규격화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는 이러해야 하고 장로도 집사도 이러 이러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지어 하나님도 이러해야 한다. 예수님도 이러해야 한다. 성령님도 이러해야 한다. 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인데 정해진 틀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틀 속에 집어넣는다.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틀 속에 집어넣습니다. 만약 틀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불량품이라고 하여 뜯어 고치려합니다. 비틀고, 꺾고, 부러뜨려서 틀에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혹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틀에 맞지 않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심지어 정죄하여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규격화된 사람, 혹은 규격화시키려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규격화된 틀에 아내를 집어넣으려는 남편의 눈에 어떻게 그녀가 보이겠습니까?

규격화된 틀에 자녀를 집어넣으려는 부모의 눈에 어떻게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인 자녀들이 보이겠습니까?

인간은 결코 짜여진 틀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 그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치닫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유대교라는 틀 속에 모든 것을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혹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불량품입니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만약 고쳐도 안 되면 죽여야 했습니다.

틀을 만드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틀을 만들어 아내를 집어넣으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아내는 죽습니다. 틀을 만들어 남편을 집어넣으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남편은 죽기 시작합니다. 틀을 만들어 자녀를 집어넣으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자식들은 죽음을 향해 치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의 눈에서도 비늘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아내로 아니 그녀로 보였습니다.

매일같이 열고 닫았던 문이 보여 졌고, 창문 너머의 나무가 보였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이 보였고, 떨어지는 낙엽과 그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복음성가 가수 하덕규 집사의 자유라는 노래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노래 불렀네 내 외로운 영혼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아픈 영혼
아픔이 난지 내가 아픔인지도 모르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그 껍질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절대 자유자이신 것처럼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틀로도 우리를 가둬둘 수 없습니다. 우린 자유자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틀입니까? 그 틀에 아내가 끼어있고, 남편이 끼어있으며 자식들이 끼여 있습니다. 동료들이 끼어 있습니까?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들의 비명이 들리십니까? 그들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새롭게 눈을 뜨자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서 죽이는 삶이 아니라 전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즉 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눈을 떠야 합니다. 사울이 눈을 뜨고 바울이 된 것처럼,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떠야 살리는 삶을 삽니다.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죽이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은 항상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행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서 그 틀을 깨트릴 때 그 행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행복에게 묻습니다. "행복아! 어디 있었니?"

행복이 말합니다. "저는 항상 여기에 있었습니다."

2) 과거 돌아보기

과거 돌아보기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이 단계는 자신이 지금까지 분노 혹은 화나 한의 감정을 가지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각자의 과거를 탐사하는 과정이다. 이 단계는 각 개인이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되 과거에 대한 자신의 설명이나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에서 벌어졌던 순간을 마치 사진으로 찍듯이 고백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처음부터 고백하게 하는 것보다는 유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기록하게 하고, 이후 그것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유인물에 기록을 하게 되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유인물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보관해 두었다가 모든 과정을 마치고 분노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수료증과 함께 준다. 참여자는 이 과정에 처음 들어왔을 때 자신이 문제라고 여겼던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결코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유인물에 기록했던 내용들 때문에 인생을 고민하고, 문제 속에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었던가를 날마다 생각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문제 해결 후에 계속해서 그 문제로부터 자유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3) 삶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자신의 과거를 탐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자신의 삶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 가령 남편이 바람피웠던 것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남편이 바람 폈던 일 때문에 자신의 삶이 왜곡되었고,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한이 맺힌다고 한다. 또 사업에 실패했던 경험을 가졌던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자신이 지금처럼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지금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삶의 문제는 결코 과거에 일어났던 자신의 문제에서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은 단순히 벌어졌던 사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사건을 내가 슬픈 일로, 억울한 일로, 괴로운 일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분석하는 이유는 "그러한 일들은 그러하다."는 틀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 틀을 깨지 않는 한 과거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다음 시간은 틀을 깨트리는 시간이다. 특히 이 시간은 과연 삶의 문제가 자신의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생긴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바람피운 일이 억울한 일입니까?" "남편이 바람피운 일이 화가 날 일입니까?" "남편이 바람피운 일이 괴로운 일입니까?" 연속적으로 질문을 던진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 "억울한 일이다." "화가 날 일이다." "괴로운 일이다."라고 스스로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한다. 단 한 가지 대답에 머물게 해서는 안된다.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도록 인도해야 한다. 처음에 "괴로운 일"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정확한 답이 아님을 말하고 새로운 답을 찾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스스로 계속해서 새로운 답을 찾게 된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마치 야곱이 꿈 속에서 본 사닥다리와 같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과정과 같은 것이다.[108] 이 과정은 자신의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편협된 틀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과정에서 그 틀을 깨트리게 된다.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사건에 대한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다.

강의 내용

※ 분노는 어디에서 오는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신념들)

1)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① 사건이나 사람을 보는 틀, 신념, 패러다임 때문이다.

② 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③ 이러한 틀은 주로 과거에 형성(상처나 경험등)되었다.

④ 지금을 살지 못하고, 현재(present)를 선물(present)로 누리 못한다.

⑤ 과거에 끌려 다닌다.

108) 창세기 32장

2) 우리 안에 어떤 신념, 틀이 있어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가?

(1)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주의다.

"어떻게 남편이 바람을 피울 수 있어?" "나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 그러나 일어난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2) '견딜 수 없다'주의다.

"어떻게 남편이 나를 때릴 수 있어, 나는 도저히 못 참아"

→ 견딜 수 없다는 것, 참을 수 없다는 것은 내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한다.

"어떻게 하루 한 끼만 먹고 살 수 있어, 나는 배고파서 도저히 못 참아"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는 것에도 감사한다.

(3) 마땅주의, 당연주의다.

"내 생일인데 마땅히 선물을 해야지"

"결혼기념일을 당연히 기억해야지.."

"그 정도는 마땅히 해줘야 되는 것 아냐?"

→ 남편인데, 아내인데, 신자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아버지인데, 시어머니인데, 그렇다면 마땅히, 혹은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내 안에 있는 나의 기준이다.

(4) '해야만 된다'는 요구주의, '되어야 한다'는 명령주의다.

"나는 계속 공부해야만 한다." "나는 날씬해 져야 한다."

→ 이것은 완벽주의다. 이것은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다.

3)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갈라디아서 2:20)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가? → "나"(= 내 기준= 내 틀= 내 신념= 내 생각)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이(결국 내 생각이) 없어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사건에 대한 감정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강의할 수 있다.

4) 진리 안에서의 자유

자유가 없다는 것은 틀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틀은 족쇄다. 감옥이다. 그것이 어떤 종류이건 틀에 묶여 있으면 그때부터 그 틀에 묶여서 혹은 맞춰서 살게 되니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자유 할 수 없다.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잃어 버렸다. 예수님은 진리 안에 거하라고 말하였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했다.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을 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틀을 깨야 한다. 그 틀이 깨짐과 함께 자유가 찾아온다.

틀을 깨려면 어떤 것이 틀인지를 알아야 한다. 틀은 인간의 생각이 만들어 낸 것이다. 그 인간 속에는 나도 포함된다. 즉 타인의 생각이 만들어 놓은 틀이 있고, 내가 만든 틀이 있다. 그러므로 틀을 깬다는 것은 생각을 깨는 것이다. 즉 생각을 깨지 않고는 틀을 깰 수 없고, 틀을 깨지 않으면 자유 할 수 없다.

생각을 깬다는 것은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내 안에 형성된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려야 한다. 생각이 사라지면 사실이 보이게 된다. 사실은 사건이다. 사건 자체를 보는 것이다. 가령 사업이 실패한 일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은 사업 실패한 것 때문이 아니라 사업이 실패한 것은 억울한 일이고, 슬픈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라고 하는 나의 생각 때문에 억울하게 되었고, 슬프게 되었고, 화가 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즉 사업이 실패한 것이 억울한 일이고, 슬픈 일이고, 화가 나는 일이라는 틀이 깨지지 않는 한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건 자체를 볼 수 없게 된다. 사건을 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억울함 속에, 슬픔 속에, 화 속에, 상처 속에 살게 된다. 그러므로 그 틀을 깨야 한다. 사업이 실패한 일은 억울한 일도 아니고, 슬픈 일도 아니고, 화가 나는 일도 아닌 사업이 실패한 일일 뿐이다. 사건이다. 사실이다. 진리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 변할 수가 없다. 변하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그때의 일이 나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어!'라고 하지만 기분이 우울할 때는 '그 사건은 억울하고 슬프고, 화가 나는 일이야.'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건을 바꿔보려고 한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사건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도 않는다. 거기에는 그것을 바꿔보려는 내 생각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건을 바꾸지 않는다. 자기의 생각을 바꾼다. 이처럼 사건을 사건으로, 사실을 사실로 볼 때 우리는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다. 생각의 날개를 타고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진리 안에서 자유 하는 것이다. 생각의 틀이 깨지고 마침내 사건 자체만을 볼 수 있게 했던 질문과 대답의 녹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내용은 남편이 외도한 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녹취하여 정리한 것이다.

녹취 내용

질문자: 남편이 외도한 일이 화가 날 일입니까?

참여자: 화가 날 일입니다.

질문자: 그것이 화가 날 일이라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참여자: 생각 속에 있습니다.

질문자: 그럼 생각 왼편에 있습니까? 오른편에 있습니까?

참여자: 왼편도 아니고 오른편도 아니고 위에 있습니다.

질문자: 그럼 생각 아래에는 누가 있습니까?

질문자: 다시 질문합니다. 남편이 외도한 일이 화가 날 일입니까?

참여자: 화가 날 일이 아니면 억울한 일입니다.

질문자: 아내로서 억울하겠지요. 그런데 억울한 일은 또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참여자: 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질문자: 마음이요. 마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어떻게 아셨습니까?

참여자: 느낌으로

질문자: 아까는 화나는 일로 느꼈는데, 지금은 감정을 억울한 일로 느끼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느낌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지요.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 내 인생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남편이 외도한 일이 화가 날 일입니까?

참여자: 회개할 일입니다.

질문자: 왜 회개할 일입니까?

참여자: 그 동안 제가 남편에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 외도했기 때문에 제가 회개할 일입니다.

질문자: 그 동안 잘못한 것이 많이 있나보지요?

참여자: 예, 그 동안 잘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참여자: 직장에 다닌다고 제대로 식사 한번 챙겨주지 못했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다정하게 말 한마디로 못했습니다.

질문자: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참여자: 부부관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남편이 요구할 때마다 피곤하다고 피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외도를 생각했나 봅니다.

질문자: 그래서 남편이 외도한 일이 자매님에게 회개할 일이군요. 그럼 회개하십시오.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참여자: 우선은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질문자: 그런 다음...

참여자: .....

질문자: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보십시오. 지금 남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여자: 직장에 있습니다.

질문자: 직장이 있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그쪽을 향해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외쳐보세요.

참여자: (일어나서 남편의 직장 쪽을 향해)여보! 미안해요. 사랑해요.(참여자가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린다.-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안아주라고 한다.)

질문자 : 잘 하셨습니다. 남편이 외도한 일은 화가 날 일이 아닙니다. 또 억울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개할 일이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일이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남편이 외도한 일이 회개할 일입니까?

참여자: 회개할 일입니다.

질문자: 정말로 회개할 일입니까?

참여자: 정말로 회개할 일입니다.

질문자: 지금 회개했더니 마음이 편안합니까?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참여자: 정말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동안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마음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자: 자매님의 마음이 편안해졌다니 참 감사하군요. 하지만 문제의 해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매님은 오늘 저녁 집에 가서 남편을 보게 되면 다시 숨어 있던 감정들이 밖으로 튀어 나올 것입니다. 물론 그 감정들보다 오늘 회개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감정이 그때까지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 여전히 마음이 편안하겠지요. 그런데 그 감정들이 서서히 사그라지기 시작하면 다시 화가 나고, 억울하고, 남편보기를 무슨 똥 보듯이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개할 일도 역시 변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변하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자의 삶이고, 분노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남편이 외도한 일이 회개할 일입니까?

참여자: 회개할 일도 아니라면 무슨 일입니까?

질문자: 내가 묻는 질문입니다.

참여자: 그럼 감사한 일입니까?

질문자: 나한테 묻지 말고 스스로 대답해 보시지요. 남편이 외도한 일이 회개할 일입니까?

참여자: 감사한 일입니다.

질문자: 감사한 일이라고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참여자: (무엇인가 깨달은 듯 얼굴이 밝아지며) 생각이요. 생각에 쓰여 있습니다.

질문자: 누구 생각입니까?

참여자: 제 생각입니다.

질문자: 그럼 자매님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참여자: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질문자: 누구 생각?

참여자: 제 생각이요.

질문자: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습니까?

참여자: 전에부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질문자: 그렇지요. 자매님은 처음부터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생각 속에 산 것이라기보다는 생각에 갇혀 있었지요. 그것도 자기 생각 속에서 말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자기 생각 밖으로 나와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자폐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自閉, 스스로 문을 닫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런 환자를 자폐증환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utism 이라고 합니다. 혹시 자매님도 이런 증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증상에 걸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매님 같은 분을 향해 영적 자폐증에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한 번도 빠져 나오지 못하고 그것도 평생을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생을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삽니까? 나와 봐야지요. 나와서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야지요. 시인가수 하덕규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를 틀어준다.)[109]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껍질 속에서 살고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껍질속에서 울고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껍질속에서 노래불렀네 내 외로운 영혼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지도 모르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그를 만난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게 먼지
그를 만난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109) 하덕규는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데뷔한 대중가수다. 자유는 "쉼"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노래다. http://www.4rest.org/albuns/rest/index.htm (accessed Nov. 15, 2006).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질문자: 생각의 틀에서 벗어 나와 이런 자유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참여자: 살고 싶습니다.

질문자: 그럼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계속 생각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생각을 벗어나야합니다. 생각을 벗어나는 것은 생각이 끝나는 것입니다. 일찍이 동양의 철학자 장자는 "생각의 끝이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끝나면 하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자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다는 것은 지금까지 갇혀 살았던 생각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뛰어 넘어서 생각을 벗어나 봅시다. 생각을 벗어난다는 것은 사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있는 그대로의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크고 작음도 없고, 많고 적음도 없습니다. 선과 악은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옳고 그름도 내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크고 작음도, 많고 적음도 역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감사한 일이라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참여자: 생각에요.

질문자: 화나는 일은?

참여자: 생각이요.

질문자: 억울한 일은?

참여자: 생각이요.

질문자: 회개할 일은?

참여자: 생각이요.

질문자:렇지요. 항상 생각이지요. 생각 속에 갇혀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자매님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참여자: 주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질문자: 주님의 명령이라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참여자: 생각이요.

질문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참여자: 마음 속, 생각 속에요.

질문자: 그러면 주님이 큽니까? 생각이 큽니까? 작은 그릇에 큰 그릇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큰 그릇에 작은 그릇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러면 주가 더 큰 것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입니까?

참여자: 내 생각이요.

질문자: 자매님은 그 동안 주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은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니 주님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까? 생각은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사실 생각은 변해야합니다. 왜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을 한 가지 생각으로만 삽니다. 평생 한 가지 옷만 입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녁에는 잠옷을 입고, 출근할 때는 양복을 입고,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어야지요. 어떻게 맨 날 잠옷만 입고 삽니까. 어떤 목사님은 새벽기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잔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바뀌는 것입니다. 아니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글이 창조된 것이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주를 날아다니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권이 신장되었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탄생한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봉건주의에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은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세상 살면서 생각의 천사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생각천사를 붙들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지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남편이 외도한 일이 감사한 일이라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참여자: 모르겠습니다.

질문자: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모른 채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알려줘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병아리가 달걀을 깨뜨리듯이 깨뜨리지 않으면 항상 달걀로 남습니다. 커다란 장 닭이 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힘들지만 계속해서

해 봅시다. 남편이 외도한 일이 모르는 일입니까?

참여자: 아니요. 아는 일입니다.

질문자: 무엇을 알았습니까?

참여자: 남편이 외도했다는 일을 알았습니다.

질문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어떤 일을 알았다고요?

참여자: 외도한 일이요.

질문자: 그럼 남편이 외도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참여자: 외도한 일이요.

질문자: 다시 묻습니다. 남편이 외도한 일이 화가 날 일입니까?

참여자: 아닙니다.

질문자: 그럼 억울한 일입니까?

참여자: 아닙니다.

질문자: 그럼 회개할 일입니까?

참여자: 아닙니다.

질문자: 감사할 일입니까?

참여자: 아닙니다.

질문자: 그럼 무슨 일입니까?

참여자: 남편이 외도한 일입니다.

질문자: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참여자: 시원합니다.

질문자: 화가 날 일이 없어졌습니까?

참여자: 없어졌습니다.

질문자: 화가 날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여자: 생각 속에요.

질문자: 누구 생각?

참여자: 제 생각이요.

질문자: 생각을 벗어나니까 무엇만 남지요.

참여자: 남편이 외도한 일만 남습니다.

질문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생각만 하니까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남편이 외도한 일이 보이십니까? 어떤 일인지 알겠습니까?

참여자: 예, 정확하게 보입니다. 남편이 외도한 일은 외도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일은 못보고 제 생각만 봤습니다. 또 그 생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질문자: 하나님은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절대 좋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음으로 즉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내 생각으로 봅니다. 내 생각으로 보고 내 맘대로 판단하고, 느끼고, 그렇게 삽니다. 영적자폐입니다. 물론 자신이 영적 자폐인줄도 모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남편이 외도한 일을 바꿀 수 있습니까?

참여자: 못 바꿉니다.

질문자: 그럼 무엇을 바꿉니까?

참여자: 제 생각을 바꿉니다.

질문자: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까?

참여자: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질문자: 그런데 왜 바꾸지 않고 살았습니까?

참여자: 생각이 사실인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 그렇습니다. 생각이 사실인줄 알았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을 어떻게 바꿉니까? 사건은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사실인줄 알고 살았으니 어떻게 생각을 바꿉니까. 남편이 외도한 일은 끝까지 화가 날 일이지요.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참여자: 가볍습니다.

질문자: 또?

참여자: 시원합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질문자: 그럼 이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적용해 봅시다. 한국이 작습니까?

참여자: 작다는 것은 생각입니다.

질문자: 좋습니다. 그럼 미국은 좋은 나라입니까?

참여자: 그것도 생각입니다. 한국은 그냥 한국이고, 미국도 그냥 미국입니다. 작고 크다는 것, 좋고 나쁘다는 것은 다 내 생각입니다.

질문자: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작고 크다는 것, 또 좋고 나쁘다는 것은 다 내 생각입니다. 그럼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여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바꾸면서 살겠습니다.

질문자: 그렇습니다.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생각은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고 바꿔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꿀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사는 것이고, 모든 것들과 관계하며 살지만 항상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참여자: 너무 좋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삶이 쉽고 가벼운데 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런 세상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자: 이제는 그렇게 사십시오. 쉽고 가볍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삶을 놓치지 말고 맘껏 누리면서 주 안에서의 자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참여자: 고맙습니다.

5)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산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아니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자신은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다. 그 다른 존재가 자신인줄 알고 살고 있다. 다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준 존재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내 존재를 정의해 주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만들어졌다. 가족관계가 나를 만들었다. 직장이 나를 만들었다. 교회가 나를 만들었다. 전통이 나를 만들었고, 교육이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 또 사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대리가 된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아니다. 나라고 이름 붙여진 딱지에 불과하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름 지어진 나는 항상 상처 속에 산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받은 나, 직장에서 상처 받은 나, 교회에서 상처받은 나가 있다. 본질적인 나,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를 찾기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나를 버려야 한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의 나를 버릴 때 남는 것은 오직 본질적인 나 밖에 없다. 아니 나만 남는 것이다. 이런 본질적인 나를 찾기 위해서 관계 속에서의 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지금 여기에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혹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자신의 이름을 말한다면 “그런 관계 속에서의 당신 말고 본질의 당신을 찾으십시오.”라고 하면 또다시 “지금 여기에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혹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이 질문에 상대방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자신을 계속해서 버리게 된다. 그리고 모든 나라고 생각한 관계 속에서의 나를 버리게 되면 마침내 나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서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 과정 중 문답내용을 녹음하여 아래에 정리하였다.

녹취내용

질문자: 형제님, 형제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참여자: 참사랑교회 교육관에 있습니다.

질문자: 교육관 어디에 있습니까?

참여자: 교육관 방바닥 위에 있습니다.

질문자: 방바닥 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참여자: 방바닥 위의 방석위에 있습니다.

질문자: 방석 위가 어디입니까?

참여자: 방석 위에 바지를 입고 있는데 그 바지 위에 제가 있습니다.

질문자: 그럼 방석을 치우면 어디에 있습니까?

참여자: 다시 방바닥위에 있겠지요.

질문자: 방바닥을 치워봅시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참여자: 그럼 교육관에 있겠지요.

질문자: 교육관도 치워봅시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참여자: 교회 건물 속에 있겠지요.

질문자: 그럼 교회 건물도 치워봅시다. 어디에 있습니까?

참여자: 송파구 오금동에 있겠지요.

질문자: 계속 이렇게 해 볼까요? 나는 형제님이 그 몸이 어디에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눈이 있는데, 형제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진정한 존재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깟 아담이 숨어 있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는 것은 그의 몸뚱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묻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형제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참여자: 목사님 앞에 있습니다.

질문자: 제가 목사입니까?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참여자: 저는 집사입니다.

질문자: 목사와 집사와의 관계네요. 그럼 내가 목사의 신분을 떼어 내면 누구 앞에 있는 것입니까?

참여자: 글쎄요. 사람 앞에 있겠지요.

질문자: 그럼 형제님은 누구입니까?

참여자: 집사입니다.

질문자: 집사를 떼어내면?

참여자: 000 아빠입니다.

질문자: 아빠를 떼어내면?

참여자: 000입니다.

질문자: 그 이름을 떼어내면?

참여자: ... 글쎄요.

질문자: 그런 것들은 다 딱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름표들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름표가 아닙니다. 나는 딱지도 아닙니다. 나는 나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방석 위에 앉아 있는 형제님은 누구입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입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 아무개의 남편이고 아빠입니다. 그런 것을 ego라고 합니다. ego는 변하는 것입니다. 에고에고하면서 바뀌지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갖고 있던 부부 중에 한쪽이 죽으면 에고에고 하면서 울다가 남편은 새 장가들어 새로운 ego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친절했던 목사였는데, 어느 날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면 에고에고 보내면서 새로운 목사와 새 ego를 만듭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self라고 합니다. 이 self를 찾아야 합니다. 형제님은 무엇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참여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떼먹고 달아났습니다.

질문자: 어려운 친구에게 돈을 줄 수도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참여자: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놈인데, 나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 그냥 줬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참여자: 돈은 그냥 줬다고 할 수 있는데 배신감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 형제님 주식을 해 보셨습니까?

참여자: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주식을 사고팔다 보면 항상 이익만 봅니까?

참여자: 아닙니다. 예전에 주식하다 집 한 채를 날려서 집사람과 엄청 싸운 적도 있습니다.

질문자: 지금은 잘 되십니까?

참여자: 글쎄요. 요즘 경기가 제 멋대로 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 형제님은 참 이상합니다. 형제님의 집 한 채를 떼어 먹고, 부부관계를 나쁘게 만든 놈이 바로 주식인데 왜 아직도 주식을 합니까? 그 주식은 아주 몹쓸 놈이고,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 놈이 아닙니까?

참여자: 아니 그것은 주식이잖습니까?

질문자: 그렇지요. 주식이니까, 회사하고 상대하니까 상처가 되지 않지요. 하지만 친구하고의 관계는 그렇지 않지요. 그게 바로 ego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어떤 것이 입겠습니까? 무엇이 상처를 입습니까?

참여자: ego요.

질문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ego가 받는 것입니다. ego의 특징은 모든 것을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ego를 펼쳐보면 별의 별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물가물한 유치원 다니면서 선생님께 혼났던 기억, 친구들에게 왕따 당한 일, 부모님이 화 내셨던 일, ... 저는 지금도 어릴 적에 아버님이 머리 깎아 주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었기에 집에서 아버지가 머리를 깎아 주셨는데, 항상 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스포츠로 머리를 깎아 주셨는데 맘에 들지 않아서 바리깡있지요. 그 바리깡으로 혼자서 머리를 다 밀어버렸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까지 따귀를 맞은 적이 세 번 있는데,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두 번은 중학교 때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애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애국가가 나오면 무조건 서서 가슴을 손을 얹고 태극기 쪽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와 얘기를 하며 떠들었던 거예요. 방과 후에 집에 가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어떻게 감히 애국가가 나오는데 떠들 수 있습니까. 애국가가 끝나자마자 저 뒤에 있던 윤리주임 선생님이 다가와서는 따귀를 때리는데..... 어휴 하늘에 별이 다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기술수업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봉사부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학교 봉사부 담당선생님인데, 그때 제가 봉사부장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봉사부장은 규율부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 나갔어요. 봉사부장 임명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나가게 되었는데 나가자마자 이 선생님이 이쪽 따귀, 저쪽 따귀 완전 개패듯이 때리는데, ... 정신이 다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에서 처음 자대에 배치 받고 신고 준비하다 맞았는데, 그

빰따귀는 지금도 얼얼한 정도로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ego입니다. ego는 다 기억해요. 또 다 담아둡니다. 그래서 ego를 펼치면 별의 별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ego가 자기 자신인줄 알고 살면 항상 상처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ego를 벗어나야 합니다. ego가 아닌 self 즉 진정한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자, 다시 이 self를 찾아봅시다. 형제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참여자: ....

질문자: 아이들에게 어디에 있냐고 물으면 항상 대답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많은 아이들 말고, 적어도 4살 이전의 아이들이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참여자: 여기요.

질문자: 그렇습니다. 여기라고 합니다. 그들은 항상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아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 있어도 어디에 있냐고 물으면 "여기에 있어요."라고 대답을 하지요. 또 자기 방에 있어도 어디에 있냐고 물으면 "여기에 있어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에 있어요." "내 방에 있어요."라고 하지요. 우리는 좋게 말해서 분별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서히 ego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ego가 커지면서 self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잃어버린 self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4살 이전으로 돌아갑시다. 형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참여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웃음)

질문자: 정말 잘 하셨습니다. 형제님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대답하는 건지 그냥 대답하는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네요. 그럼 또 다시 묻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참여자: ....

질문자: 다시 묻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에 있다면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참여자: 여기요? 글쎄요. 여기가 여기겠지요.

질문자: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곳입니까?

참여자: 아닙니다. 여기는 이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OOO집사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질문자: 다시 묻겠습니다. 형제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참여자: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자: 그 어디도 아닌 여기에 있습니까?

참여자: 그렇습니다. 그 어디도 아닌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자: 그럼 여기가 이곳입니까?

참여자: 여기는 이곳이 아닙니다.

질문자: 이곳이 아닌 여기지요.

참여자: 그렇습니다. 이곳이 아닌 여기입니다.

질문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참여자: 그냥 있습니다.

질문자: 어떻게요?

참여자: 어떻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나로 있습니다.

질문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참여자: 항상 있었습니다.

질문자: 나이를 아십니까?

참여자: 모릅니다.

질문자: 공부하신 적은 있습니까?

참여자: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자: 그럼 누가 공부했습니다.

참여자: 이곳에서 000이 공부했습니다.

질문자: 돈 떼어 먹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여자: 예,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000입니다.

질문자: 형제님은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까?

참여자: 없습니다.

질문자: 돈 떼인적이 있습니까?

참여자: 없습니다.

질문자: 배신 당한적은 있습니까?

참여자: 없습니다.

질문자: 언제 죽습니까?

참여자: 죽지 않습니다.

질문자: 이곳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참여자: 00년 00일에 왔습니다.

질문자: 왜 오셨습니까?

참여자: 나의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질문자: 그렇습니다. 형제님은 여기 있음에서 이곳 나 되어감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이 당신의 일입니다. 그 일하러 오셨고,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입은 것이고,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이고, 또 그런 관계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음을 잃지 않고, 이곳 나 되어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참여자: 좋습니다.

질문자: 답답합니까?

참여자: 아니 시원합니다.

질문자: 친구에 대한 배신감의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참여자: 상처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해결이 있겠습니까?

질문자: 형제님은 무슨 도사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본래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 속에 스스로를 구겨 넣고 또 스스로 답답해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호도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언제나 자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유한 존재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듣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어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참여자: 이런 세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6) 공감해 주기

사람은 생각을 한다.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가지고 한글을 만들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가지고 전구를 만들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가지고 우주를 향해 날아가 달나라에도 갔고, 이제는 그 먼 곳까지 가려고 한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었고 더 크고 멋진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가지고 남의 회사를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처럼 생각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생각을 획일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생각을 오직 두 가지로만 나눈다. 이원론이다. 흑백논리다. 그래서 동지 아니면 적이다. 생각을 획일화시키려는 것이다. 생각이란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다. 그런 생각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것이다. 또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에 따른 느낌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미소를 짓지만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왜 웃냐고 혹은 왜 우냐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공감해 준다는 것은 이처럼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대화에 "아~ 그러셨군요." 혹은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공감이 갑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제로 하게 한다. 그런 다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어떻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것이다. 공감해주기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생각이고 느낌이기 때문이다. 공감해주기는 내 입장에서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다. 예수는 이런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의 눈에는 모두가 이해가 되었다. 예수의 눈에 비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 왔다는 여인, 사마리아 땅에서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꾸며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던 여인, 38년간 신음하며 버림받았던 환자, 그 모두가 이해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조차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기에 나를 죽인다는 그들에 대한
예수의 공감해 주기다.

공감해주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카드를 만들어 사용한다.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내어 놓고, 다른 하나는 그 생각에 대한 느낌을 말할 때 내어 놓는다. 상대방은 두 카드를 받아 들고, 그 카드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니 느낌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서 두 개의 카드를 하나씩 내어 놓는다. 이처럼 카드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상대방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도 분명하게 구별하여 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는 가운데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파악하고 인정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7) 소감 나누기

소감 나누기는 모든 과정을 마치면서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그 동안 참여했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반드시 글로 쓰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고 전교인을 상대로 수료식을 거행할 때 간증할 수 있도록 한다. 과정에 참여했던 세 사람의 소감문을 아래에 실었다.

① 거듭나기 영성훈련을 마치며

OOO집사

기대와 설레임으로 시작한 거듭나기 영성훈련!

첫 수업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도 못자고 나 자신에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아온 내 삶을 목사님은 계속해서 질문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난 깨닫지 못해 나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순간 내가 삶을 집착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집착이 얼마나 삶을 힘들고 피곤하게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 가족들과 주의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슨 일이든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게 해 달라고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의 고백을 드립니다.

거듭나기 영성훈련이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마음 졸이며 살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했던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②거듭나기 영성훈련을 마치면서

000집사

정말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거듭나기 영성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들어보지 못한 프로그램이어서 약간은 의심도 했고, 약간은 기대도 하면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처음 질문을 받고나서 나는 정말 화가 난듯했습니다. 왠지 모를 바보가 되어 버린 듯도 했고, 또 질문과 답이 너무 엇갈리는 듯해서 조금씩 답답해지기 시작했고, 괜히 먼저 오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도 했습니다.

더구나 계속되는 질문과 알 수 없는 답들을 보면서 점점 내 안에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는 성경적인 것으로 묻고 답하는 것도 아닌 깨달음을 한다니 이것은 마치 참선하고 다를 것이 없다고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곳은 교회고, 또 목사님이 지도하시는 프로그램이기에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실 리가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여전히 시간마다 참석했고, 또 하다 보니 하나 하나의 깨달음을 통해 내가 정말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생각의 틀 속에 갇혀서 살았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젠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 공감해 주는 일, 사건과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것을 통해 어떤 것에도 요동치지 않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주 안에 있으며, 나는 언제나 자유인입니다."

6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③거듭나기 영성훈련을 마치고......

000집사

거듭나기 영성훈련을 한다고 해서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참여했을 때에는 매우 기대되었고,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무슨 이런 질문이 있나?" 또 "무슨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하고 답답했고, 후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여하다보면 무언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름과 함께 답답했던 내 마음이 시원해지기 시작했고, 무엇인가 막혀있던 것들이 뻥 뚫어지는 듯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 내가 얼마나 현실에 집착하면서 살았는지, 또 얼마나 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그 동안 나의 현실을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했는지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나기 영성훈련을 하기 전과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봤습니다. 화로부터의 자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슬픔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평가

1) 긍정적인 평가

거듭나기 영성훈련은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지 않는다. 문제의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신으로 돌아가게 한다. 이 훈련을 마친 사람들은 위에서 소개한 소감문에서처럼 그 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 받았고, 답답했던 삶에 시원함을 얻었으며, 얽매였던 삶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제는 시원하다고 했다. 주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다고 했다. 또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았다고 했다. 자신들의 생각에서 벗어나 사실 즉 진리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참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고백이다. 바람 피운 남편 때문에 괴로워했던 교인은 이제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고, 한 때의 사업 실패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교인은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고 고백했다. 친구의 배신으로 괴로워했던 교인은 더 이상 괴롭지 않고 친구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교회에서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 힘들어 했던 교인은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고 고백했고, 다른 교회에서 목사와의 생각 차이로 갈등을 했던 교인은 그 목사님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남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다. 인생을 불평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또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했다.

2) 부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들이 본 연구자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이게 기독교 맞냐?”는 것이었다. 이들은 분노와 화와 한의 문제를 다루는데 기도를 통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과정이었다. 또 수년에서 십 수 년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훈련이기에 매우 생소한 느낌을 가졌다. 동시에 중간 중간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의 장로나 교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물론 모든 것을 끝마치고 그들이 고백한 소감문만 본다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의 의문점은 다른 교인들에게 특히 장로들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과정 중에 장로들이 본 연구자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화시키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본 연구자는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원인으로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 중에 사용하는 용어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분노라는 용어는 교회 내에서 시행되는 여러 내적치유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어진 용어다. 또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익히 들어 왔던 용어이기 때문 아무런 반감 없이 받아들였다. 그런데 화라는 용어나 한이라는 용어의 문제는 그렇지가 않았다. 일반적으로 화라는 용어는 불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상황이다. 한 동안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판매되었던 베트남 승려인 탁낫한의 "화"라는 책으로[110] 인해 화는 불교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착각할 정도가 오늘 한국교회에서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화라는 용어가 사용되면 이것은 마치 기독교가 아닌 불교에서 가져온 훈련방법인냥 착각을 하게 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한이라는 용어도 그렇다. 한이라는 용어는 주로 한국의 무속인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다. 그러므로 한의 문제를 치유한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영성훈련을 한다면 이것이 마치 무속신앙에서 가져온 훈련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의 문제는 민중신학에서 다루어진 용어다. 그러므로 민중신학을 진보적 신학이라 생각하는 교인들에게는 매우 거부감을 주는 단어인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쉽게 화와 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된 용어는 깨달음(覺)이란 용어다. 본 연구자는 깨달음과 거듭남을 동질용어로 사용하였다. 또 본 프로그램이 배우는 학(學)의 개념보다는 깨달음의 각(覺)의 개념이 농후(濃厚)하기에 깨달음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가령 "그것이 자신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깨달아야지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한국적 상황에서

---

110) Thich Nhat Hanh, *화*, 최수진역 (서울: 명진출판, 2002). 이 책은 발행년도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책이다.

깨달음의 각(覺)의 개념은 불교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각(覺)의 개념은 불교서적이나, 불교에 관련된 글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다. 그로인해 교인들은 본 연구자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왜 이런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사용해야 되느냐고 했다. 이러한 용어의 문제로 인해 본 연구자는 예기치 못한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동안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혹 이 프로그램이 교회 내에서 사용되어 진다면 용어의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자유자의 삶을 살려면 먼저 그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운영자가 좋아하는 용어보다는 교회에서 사용하기에 무난한 용어를 취사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화와 한의 용어는 분노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깨달음이란 용어도 사용을 자제하고 '거듭남'이나 '새로봄'과 같은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함이 좋을 것 같다.

4. 새로운 SITE TEAM의 평가

본 연구자는 프로젝터를 시행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교회를 사임하게 되어 더 이상 기존의 site team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DP를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나 LA에서 진행된 site team certification에서 부총장이며 학장인 Lester Edwin J. Ruiz 교수와 Korean D.min Associate Director인 Michelle Lim Jones 교수가 새롭게 site team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지금까지 진행된 본 연구자의 DP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그 평가서를 첨부해서 DP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아래와 같이 본 연구자의 DP에 대한 평가서를 첨부한다.

1) 박희춘목사의 평가(전 장신대 설교학교수)

첫째, 긍정적인 점

한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으로 방해가 되는 문제인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이다. 뿌리 깊은 갈등의 깊은 고리를 한국인의 문화적 정서인 한과 연관시키며 철학적 신학적 심리적 문화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훌륭하다. 이 시도에서도 다양한 서구철학과 동양철학의 대화를 시도하며 그 토대위에서 인간 공동체의 모습을 분석하는 심도 있는 논문이다. 칸트와 헤겔 그리고 토니이센의 인간이해를 본 논문에 응용한 점이 돋보인다.(칸트와 헤겔, 토니이센은 논문을 수정하면서 삭제하였다.) 저자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러한 철학적 이해를 한국문화와 잘 연결시키고 상처와 한의 상호연관성을 잘 분석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논의를 성서주해자인 이상근의 사상과도 잘 연결시키고 한국인과 한국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진수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한”과 “상처”가 부른 교회갈등을 분석하고 있고 한국 개신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칼빈주의 장로교신학을 분석하고 있다. 영성훈련의 강좌를 살펴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성도들과 대화하며 성도들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훌륭한 모델을 보이고 있다. 평가과정에서는 목사를 설교자, 리더, 행정가,

신학자, 치유자로 보면서 성도그룹들로부터 구체적인 목회자자신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자신의 독창적인 주제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다. 다양한 철학, 신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역사, 성서학을 섭렵하면서 자신의 주제를 펼쳐나가는 점이 훌륭하다. 이 논문에서 독창성을 특히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 안에 나타나는 분열과 갈등을 제고하게 해주고 구체적인 고민과 해결책 그리고 실험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교회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발전을 위한 제안들:

서론과 논문전개의 시작부분에서 저자의 독창적인 목소리와 전개가 돋보이나 그 독창성을 다른 연구 자료와 교회갈등에 대한 학문적 전개와 연결하면서 전개한다면 더욱 근거 있는 논의가 될 것 같다. 논문전개부분에서 저자의 교회를 깊이 역사적으로 분석 한 후 한국 기도원 치유운동의 하나인 할렐루야기도원의 김계화원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좀 더 논리적이었으며 하는 바람이 있다. 논문전개와 서술형식에서 다양한 사상과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한 전개를 할 때 자신의 독창적인 목소리와 다른 학자들의 사상이 좀 더 분명하게 인용되고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예를 들면 인용에서도 다른 사상가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인용하고 어디서부터 저자자신의 사상인지를 분명히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논문전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자료사용과 사상인용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사상들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다양한 사상들이 분명하고 굵은 저자의 사상전개에 이용되기보다 다양한 사상들을 밀접한 논리적 연결성 없이 연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저자자신의 주제에 대한 대표적인 사상가와 대화하면서 다른 2차 자료들을 간접인용으로 사용하면 더 선명한 논리전개가 되지 않을까 한다.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이론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용의 전개 개요(outline)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끝으로 참고적인 제언은 실제부분에서 영성훈련을 통해 성도들의 "한"과 "상처"를 치유하는 훌륭한 모델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일정기간동안의 영성훈련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교훈적이고 대화적이고 상담적인 이 방법으로 성도들의 깊고 오래된, 칼 융이

언급하는 대로 한 민족의 깊은 역사적 정서를 치유할 수 있는가 하는 원론적인 질문이다. 물론 한국교회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치유집회와 찬양집회를 통해 또는 안수기도와 축사를 통해 일시적인 치유에 대한 감정적 만족과 정서적 카달시스외에 과연 깊은 그 뿌리를 치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집회나 기도 그리고 영성훈련에 참여한 성도들의 일시적 응답만이 아니고 상당 시간 후에도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이러한 우리의 근원적인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책을 향한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였고 해결점을 향한 한 사역자의 삶의 자리에서 창조된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다.

2) 유재도목사의 평가(뉴저지 땅끝교회 담임목사)

①교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는 저자의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②교회에 형성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잘 지적하고 있다.

③교회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시기적절한 주장이다.

④“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국교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한국사람들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한 지적이다.

⑤“틀을 만들고 그 틀에 갇혀 사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틀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은 새로운 시도로서 매우 신선하고 창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⑥“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치료해야 할 교회가 이제는 스스로 상처를 입고 병원 매트리스에 누워있는 꼴이 된 것이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⑦틀과 ego, self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논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정의를 넣는다면 논문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⑧실제 실행과정에서의 다섯편의 설교는 매우 구체적이고, 쉽고, 주제와 잘 어울리는 설교들이다. 논문 내용을 자세하게 실제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서 쉽게 눈에 들어온다.

3) 배요한목사의 평가(보스톤대학교 신학박사과정)

<전체적인 감상>

신학논문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목회자들 속에서 우리 신학도들은, 그리고 목회자들은 문제파악의 도사들이 다 되었다. 왜 한국교회가 문제인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어떤 태도가 문제인지…문제를 파악하는 데 정말 탁월한 엄청난 분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빈약하다. 대부분의 신학 논문들이나 저서들이 위대하고 예리한 문제 제기 뒤에 결국 결론은 "사도적 신앙으로 돌아가자!" 혹은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등의 매우 "원론적"인 대답들을 이끌어 낸다. "위대한 서론"에 "빈약한 결론…" 내가 보아온 대부분의 신학 논문들이 실망스러운 이유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방홍석 목사의 글은 매우 탁월하다. 문제제기도 그렇거니와 (교인들의 분노와 한의 문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론적"이면서도 "실천적" 차원을 잘 다루고 있다. 특히 그 "실천"에 대한 부분이 본인이 직접 프로그램을 응용하고 실천해 본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매우 실천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느낌을 주게 한다. 물론, 목회학 박사논문이 실천적 성격을 다소 띤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목회학 박사 논문들이 목회적 차원에서 교회 성장이나 구체적인 단편적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서, 방홍석 목사의 이 논문은 "실천적" 차원을 강조하면서도 단순한 프로그램 계발의 차원에 그치지 않는 것은 그가 논문 내내 지적하듯이 단순히 "신체적 치료" 만이 아니라 "분노와 한의 근본적인 해결을 통한 영적 회복"에 노력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논문은 한국의 보수적인 장로교 분위기에서 거의 금기시되고 있는 "동양철학적 사유"와 "보수적 목회 환경"간에 하나의 새로운 다리를 놓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동양철학"을 공부하고 그를 성경이나 신학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그 내용에 관계없이 매우 "위험한" 시도로 인식되어 있다. 신학교에서도 그러하거니와 특히 "목회적 장"에서 이를 연결시키려

한다는 측면에서 이 논문의 가치는 지대하다고 본다. 어떤 면에서는 이 논문이 얼마나 잘 쓰여졌는가 이전에 이러한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어려운 작업이며, 이 작업을 본인의 주체적 시각에서 나름대로 소화해 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방홍석 목사의 이 논문은 어떤 신학교 교수나 수많은 책들이 해 내지 못한 큰 일을 해 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

또한 이 논문이 가지는 또 하나의 장점은 진솔하고 담백한 글쓰기라고 본다. 서양적 글쓰기, 특히 영어식의 글쓰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글의 논리 구조가 다소 불편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그는 본인의 프로그램, 녹취록, 본인의 설교문과 또한 여러 어려운 신학 저서들과 논문들을 인용하면서 매우 쉽게 본인의 글을 진술해 내고 있다. 그리고 군데 군데 보이는 본인의 시행착오와 이에 대한 본인의 사려깊은 반성은 읽는 독자로 하여금 방홍석 목사의 진솔함과 겸손함에서 "이해"만을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 "심비에 새겨지고 싶은" 글쓰기를 시도하는 방홍석 목사의 목회적 열정과 신학적 진지함에 충분히 공감을 갖게 하고 있다.

<생각해 볼 문제>

본인이 방홍석 목사의 글을 읽으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몇 가지를 진술하고자 한다. 이는 위의 나의 이 논문에 대한 전체적인 긍정적인 감상에 비하면 "사족" (蛇足) 에 불과한 내용이나, 앞으로 더 나은 신학자요 목회자로서 우뚝 서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를 적어 보려 한다.

① 한과 분노에 대한 사회 구조적 차원에 대한 내용

한 편의 논문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글의 앞 부분에서 이 논문의 "범위" 혹은 "한계"에 대한 한 문단 정도를 진술하면서 "이 글은 한과 분노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새로운 깨달음을 통한 회복"에만 집중한다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은 사회구조적으로 "한" 혹은 "분노"를 수없이 야기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논자는 이 글에서 때로 조선 유교의 왜곡된 전통이나 박승호, 이정용, 서남동 교수에 대한 사회 구조적 측면을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사회 구조가 "한과 분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해서 "한과 분노"와 이를 야기하는 "사회 구조적 차원"은 또 한 편의 논문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독자들에게 좀 더 분명히 이 논문의 범위를 밝힌다면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독자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나는 방홍석 목사의 말대로 "한과 분노"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긴다는 입장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바깥의 환경이 지속적으로 내면의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면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나의 감정과 생각은 주관적인 것이지만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금 먹은 후에 설탕 맛과 사탕 먹은 후에 느끼는 설탕 맛은 다를 수밖에 없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절대적 차원에서라면 모를까) "상대적" 반응에 유한한 존재가 인간이다. "상대적 존재"가 "절대적 차원"을 깨달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그렇게 쉬운 것일까? 문제는 불교처럼 산사에서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리는, 즉 행동으로 부터의 자유(freedom from action)를 추구한다면 모르되, 복잡하고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행동 속에서의 자유(freedom in action)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약한 존재인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상대적 세계"속에서 "절대적 자유"를 맛볼 수 있을까? 방홍석 목사의 논문은 이 점을 탁월하게 밝혀 주고 있으나 이 문제는 평생을 두고 씨름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더 나은 대안이 계속 나올 때 까지…

② 나쁜 행위 자체를 근절시키기 위한 생각

위의 문제와 연관해서 다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방홍석 목사가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임상적 몇 가지 예들 - 예를 들어 바람 핀 남편 문제, 친구가 돈을 떼 먹은 문제 등- 을 통해서 개인의 분노의 문제를 잘 해결했으나 다음 질문, 즉 '또 바람을 피운다면?' 혹은 '그 친구는 본인의 잘못을 모르고 그러한 짓을 또 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등의 질문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그러한 가해자가 근원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회개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가 (함께 믿는 남편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불신자-신자 간에 갈등이 있는 친구와의 금전적 문제 등의 경우) 등에 대한 내용도 상담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논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돈을

떼먹지 못하게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사회 구조적 노력"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③ "틀을 깨기"에 대해서

방홍석 목사의 지적대로 예수는 당시의 인습과 왜곡된 전통에 대항한 "틀을 깨 부순" 혁명가적 삶을 사셨다. 이 점에 충분히 동의한다. 예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틀 깨기"의 의도는 율법의 원래 정신을 망각하고, 그 "형식적 틀"만 집착하면서 사람들을 옭아매고 율법의 본래 정신을 훼손하고 잃어버린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틀 깨기"를 주장하셨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틀이 없이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고려되어야 한다. 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 경지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건 분명히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역사에서 늘 "소수"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이기심과 욕심은 늘 무언가 "틀"을 요구하고 요청한다. 그 틀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지만 그 틀은 어떤 면에서는 "차선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장철학은 참 위대한 철학이다. 그러나 노장 철학은 "너무도 통쾌하게" "절대 자유"의 경지를 말하지만, 이 세상 전체를 살리는 "구세철학"이기에는 늘 부족하다. 산사에 짱박힌 불교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노장과 불교는 늘 유교를 비판한다. 세상을 구하겠답시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답시고 그렇게 틀(禮)을 만들어 인간의 "절대 자유"를 구속하지 말라고 늘 훈수를 둔다. 일면 맞는 말이다. 사실 유교는 역사적으로 그러한 "예"라는 고상한 이름이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고약한 것으로 변해서 사람을 얽어매고 상처 주었기 때문이다. 방홍석 목사가 논문에서 살피고 있는 유교의 부정적인 면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유교의 약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늘 유교는 동시에 노장과 불교에 이렇게 반박한다. "그렇게 잘 났으면 넌 지금 뭐하냐? 너만 절대 자유 외치면서 병든 사회를 그냥 두냐? 네가 더 이기적인 거야…!"

어느 쪽이 맞는가는 상호 변증적 관계에 있으므로 여기서 상론할 수는 없다. 버스 타서 멀미 안하는 사람은 자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버스만 타면 그 시간 내내 잠만 잘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깨어있으므로 멀미할 수밖에 없다. 잠들어 버리면 좋겠지만, 목회자로서 잠이 안 와서 멀미하고 구토하는 사람들에게 "자라!"고만 할 수는 없다. "눈 감으면 된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멀미를 덜 하게 하기 위해 창문도 열어주고, 몇 가지 요령도 가르쳐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나"의 절대 자유와 "너"의 절대자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절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노력이 "목회자"이기에 "신학자"이기에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글은 그런 면에서 매우 탁월하지만 더 치열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 논문을 디딤돌로 삼아 더 나은 탁월하고 더 구조적인 방홍석 목사의 글들을 기대한다.

④ 실천적 수양론의 필요성에 대해서

방홍석 목사는 참사랑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의 화와 분노의 문제를 해결한 좋은 예를 보여 주었다. 탁월한 방법론이요 대화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말대로 그의 이러한 시도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게 되었고, 그 결과는 오해로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여기서 본인이 한 가지 제언할 점은, 방홍석 목사가 인용하는 동양철학의 경우 -유교든 불교든 노장이든 간에- 절대경지를 추구함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종류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방홍석 목사가 이 논문에서 추구하는 것은 철학적 용어로 넓은 의미에서는 “인식론적” 방법론에 속한다. 그러나 또 한편 “실천적 수양론”이 있다. 즉 유교의 용어로 하면 “궁리(窮理)”도 있으나 “거경(居敬)”도 있고, 이 양자가 온전히 서로 연결될 때 성인(聖人)이 되는 공부가 온전해 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방홍석 목사가 본 논문에서 살피는 방법론 외에 “실천적” 방법론을 그의 다음 글(아마도 그의 저서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에서 기대해 본다. “절대 자유”를 얻고 “분노와 한”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방법론으로 “기도”의 방법을 적용해 본다면 기존 교회의 “진지하지 못한” 일방적 매도를 피할 수 있을 것이요, 또한 큰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도"의 방법론을 실천적으로 재정립해 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 동양학에서는 그 전제로 "나의 주체적 자각"(깨달음)으로 "절대 자유의 경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기독교 성경에서는(적어도 나의 성경읽기에 의하면) 나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라는 것은 물론 절대로 아니다. 내가 말하는 "불가능성"은 "시도의 불가능성"이 아니라 완전한 경지에 대한 "완전한 도달 가능성"과 그 "영속성"에 대한 문제이다. 바울의 예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이 점을 방홍석 목사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연결시켜서 적용하면 훨씬 기존 교회의 오해와 편견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⑤ 작은 문제일 수 있지만 방홍석 목사가 말하는 ego와 self의 문제를 동양의 "몸", "마음"과 연결해서 좀 더 면밀한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과연 마음은 있는 것인가의 문제도 "참 나"를 "참 나"로 인식하지 못하는 "의식의 소산으로서의 마음"과 원래의 청정한 "본 마음"에 대한 좀 더 진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방홍석 목사의 학문적 진지성으로 조만간 극복될 것으로 알지만, 동양철학적인 비판과 분석을 함에 있어 동양철학에 정통한 - 더 나아가 동양철학적 전통을 극복하는 대안적 시도-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오랫만에 참 즐겁고 좋은 글을 읽었다. 나의 짧은 지식과 일천한 글 읽기로 방홍석 목사의 귀한 글에 필요 없는 오해와 불필요한 사족을 달지 않았나 심히 염려된다. 누군가의 글을 평가한다는 것이 성실성이 가장 중요함에도 그 점을 지키지 못한 것이 못내 죄송한 마음이다.

귀한 글을 통해 학문적, 실천적 치열함과 내공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신 방홍석 목사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독신호학"(篤信好學) 하는 귀한 모습을 통해 더 많은 가르침을 얻기를 기대해 본다.

4) 엄재신목사의 평가(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D.Min. 과정중)

첫째,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평가

① 다른 평가자들도 앞서 언급하신대로 이 논문의 가장 훌륭한 점은 많은 한국

교회들이 안고 있는(끊임없이 반복되어 지고 있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과 같은 '갈등의 문제'를 위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이제까지의 다른 논문들이 접근하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독특하고 신선한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저자는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깊은 상처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교회의 건강함을 위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② 저자는 본인이 섬기던 교회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공동체들이 안고 있는 갈등과 상처들을 독특한 한국적 상황의 '한'이라는 관점에서 풀어가려고 고민하였다. 특히 '한'을 관계성에서부터 비롯된 상대적이고 허상으로 분석하고,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폭력이나 복수 혹은 체념이 아닌 건강한 웃음과 익살과 문학, 그리고 음악과 놀이 등으로 끊임없이 해소하였던 점들을 지적하면서 이 논제에서도 역시 교회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한'과 '분노'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으며 그것을 극복하도록 하였던 점이 대단히 바람직하다.

③ 저자는 '분노'와 '한'을 극복하기 위하여 관계성 속에 있는 나 'ego'를 넘어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분노'와 '한'을 유발시키며, 더 나아가서 분열과 상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기에 이 'ego'를 넘어서서 원형으로서의 나 즉 'self'를 경험해야 한다는 지적은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뒷부분에 나오는 거듭나기 영성훈련 프로그램은 이러한 'ego'를 넘어서서 원형으로서의 나 즉 'self'를 경험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④ 교회에서 실시하는 기존의 대부분의 영성훈련들은 일시적인 감정적 만족과 모호한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가지는데 반해서 앞서 지적하였던 '거듭나기 영성훈련'을 보면 그 과정이 다음과 같은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다.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어떤 틀이 있어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가, 진리 안에서의 자유, 나는 누구인가, 공감해주기."

또 이 프로그램의 실시 이유를 첫째 자신의 삶에 벌어진 일들을 정확하게 듣게 하고 보게 한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한다, 세 번째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위하여 저자는 먼저 5주에 걸쳐서 설교를 통한 전 이해를 충분히 갖도록 하였고, 그 진행 방식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전달 방식이 아닌 대화를 통하여 공감하고 인식하도록 하였다. 요즘 대두되는 소그룹 중심의 사역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의 치유를 위한 참 좋은 영성훈련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⑤ 연구조사 질문 중 성서적 질문에 있어서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란 틀을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틀이 분노와 화를 만들어내고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규정하며 그 틀을 깨뜨리는 것이 진리요, 그러한 진리를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였다. 즉 인간관계속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지는 많은 갈등의 원인으로서의 '틀'을 개념화하면서, '틀'이라고 하는 외형 속에 갇혀서 서로를 정죄하고 정죄되어지며, 분노하고 상처받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그 틀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은 체면과 외형을 중시하는 유교적인 문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한국교회의 고민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발전적인 측면에서의 평가

① 논문의 서두에 위치한 배경소개 가운데 '교회가 위치한 지역 상황'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본 교회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공동체가 형성된 이래 계속해서 담임목사가 바뀌었다는 것과, 그에 따라 교인들이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의 활동 참여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것이다." 이 부분은 논리 전개상 상황 및 분석으로 이동하면 좋을 것이다.

② 본 논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논문의 배경이 되는 교회의 상황에 대한 보다 충분한 설명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예를 들어서 저자는 상황 및 분석 부분에서 담임목사가 6번이나 교체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개척자와의 갈등" 이란 짧은 한마디로 표현되고 있다. 이어서 언급되는 목회자나 교인들 등의 여러 사람들의 상처에 대한 부분이나, 그리고 교회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도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교회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창립

시점부터 최근까지의 20 여년 간의 교세 통계와 세례자 통계 등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추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③ 저자는 상황 및 분석에서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이어야 하며, 그 치유는 육체의 치유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도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계속되어지는 본 논문의 흐름상 한국 교회의 치유사역의 부정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원장의 경우 같은 육체치유 지향적인 면을 논거로 사용하기 보다는 현재 한국 교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내적 치유 사역이나 보다 균형 있는 다양한 영성운동들을 소개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④ 한 가지 더 언급해본다면, 이 논문의 제목에서 밝힌 대로 "변혁의 목회, 본질적으로 새로움과 나음으로"라고 할 때 그 변혁은 무엇에 대한 변혁인가, 무엇으로의 변혁인가, 어떠한 새로움과 나음을 추구하려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더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끊임없이 갈등을 반복하는 교회의 모습에 있어서의 변혁인지, 분노와 화로 인하여 상처받은 교인들의 모습에 있어서의 새로움인지 서두의 제목 속에 담겨져 있는 목적이 결론에 와서 조금 더 명확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무쪼록 이 논문을 통하여 한국의 교회들과 이민사회의 많은 교회들의 갈등과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

제 6 장
목회 유능성 개발

본 연구자는 사이트팀의 협조를 통해서 목회 유능성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만남이후 전장(前場)에서 언급했듯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이트팀으로부터의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단지 처음 평가한 평가서를 통해서 목회 유능성을 개발하고자 한다.

1. 설교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무엇엔가 깊이 빠지는 듯 싶어요.” 연구반원들이 들려주는 말이다. 본 연구자의 설교준비는 사색을 많이 하는 설교다. 일단 본문이 정해지면 그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색을 한다. 깊은 사색은 설교의 깊이를 더해준다. 특히 본 연구자는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깨달음(覺)을 얻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 깨달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다. 평소 본 연구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을 시로 표현해 보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땅의 가을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곳을 봐도, 또 저곳을 가도, 어디나 내설악이고, 외설악입니다.
이곳이 설악산, 내장산과 다른 것이 있다면 골짜기 골짜기 가득 메운 관광객이 없다는 것 뿐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며, 또 왼발과 오른발의 걸음걸이를 느끼며, 지그시 밟히는 낙엽과 가을과 그리고 하늘을 가슴깊이 호흡할 때 이런 가을, 이런 거리, 이런 마을, 이런 하늘, 그리고 이런 곳에서 나를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더욱이 뉴저지의 가을은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가을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가을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가올 겨울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아니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겨울이 좋은 것은 또 감사한 것은 그것이 겨울이기 때문입니다.
봄이 좋은 것도 또 감사한 것도 그것이 봄이기 때문입니다
여름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은 또 감사한 것은 여름이 여름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좋은 사람은 여름을 싫다고 합니다.
또 여름이 좋은 사람은 겨울이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위가 오면 너무 덥다며 투정부리고, 추위가 오면 너무 춥다고 불평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을을 싫어합니다. 내 인생도 저 낙엽과 같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노인들은 새 생명이 움터나는 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가을이
좋습니다. 낙엽 떨어지는 그 길가를 연인과 함께 다정히 걸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는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습니다.
봄은 봄이라서 감사하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감사하고, 가을은 가을이라서
감사하고, 겨울은 겨울이라서 감사합니다.

미국에 온지 두 달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합니다. 마치 내 인생에 겨울이 찾아온 듯 모든 것이
춥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낯설고 불편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밤마다 이불을 적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봄을
봄으로 주시고, 여름을 여름으로 주시고, 가을을 가을로 주시고, 겨울을 겨울로
주시면서 이 소중한 것들을 맘껏 누리라고 하셨듯이 인생의 겨울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가온 가을이 참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올 겨울도 기대가 됩니다.
그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면 봄은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온다면 그 여름은 더 황홀한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참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앞에 겨울이 찾아와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겨울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대할 것입니다.
그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면 부픈 마음을 가지고 더 정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온다면 내 인생은 더 황홀하고 더 짜릿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 심비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111]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의 표현이다. 나는 더위를 타기 때문에 여름이 싫다거나 난 추위를 타기 때문에 겨울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여름도 좋고 겨울도 좋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 생각의 기준으로 좋은 일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체(一體)가 은혜(恩惠)고 감사(感謝)라는 말이다. 본 연구자는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이런 깨달음을 얻어 자신이 행복한 존재임을 알아차리게 하고, 동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자신들은 고통이, 고난이 불행인 줄 알았는데, 설교를 듣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물질만능주의의 결과다. 그래서 물질이 많아지면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모든 교인들이 행복과 감사 속에 살도록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리더십

"목사님은 천의 얼굴을 가지셨어요." 평상시에는 온화한데 한번 몰아칠 때는 무서울 정도라고 한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되고 괜찮은데 당시에는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 가는 데는 필요한 모습이라고 조언하였다.

본 연구자는 화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에너지라고 생각한다. 에너지기 때문에

111) 방홍석, "봄 여름 가을 겨울." (*땅끝교회 16주년 기념 신앙의 글 모음집*, 2006), 11.

잘 이용하면 득이 되고,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되기도 한다. 마치 불과 같다. 잘 이용하면 음식을 만들고, 난방을 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재해를 입게 된다. 또 화는 에너지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 화를 단순히 감정으로 생각한다면 그 감정에 묶여지게 된다. 그러나 화를 에너지로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화라는 에너지를 어느 때는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치 에너지를 사용하고 혹은 사용치 않고 비축만 하듯이 내 마음대로 조종을 하는 것이다. 이런 화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교인들과의 관계를 갖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고요한 상태지만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매우 강하게 몰아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에 의해서 몰아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감정에 의한 화는 스스로 억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감정이 감정을 불러 일으켜서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리더쉽의 문제는 결국 화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큰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것을 잘못사용하면 큰 재해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듯 화 에너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베풀지만 잘못사용하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키게 된다.

3. 행정가

본 연구자는 3년간의 군 생활을 행정병으로 근무했다. 이런 군생활의 경험이 교회사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교회 행정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나 보관하는 일, 교회 조직을 체계화시키는 일과 같은 것에서 행정병 출신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교인들이 본 연구자에게 꼼꼼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

행정학에서는 행정의 근원을 성경에서 찾고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당시 백성들의 문제를 일일이 해결해 주느라고 힘들어 할 때 그의 장인이 이드로가 그에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제도를 조언해 준다. 모세가 그의 말을 듣고 조직을 만들었을 때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112] 이 제도가 바로 행정이다. 그러나 오늘 날 교회는 이런 행정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도리어 사회 행정과 비교할 때 매우 낙후해 있다.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이다. 단편적으로 교인 명부 조차 제대로 기록 및 보관되어 있지 못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회는 유기체다.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린다. 유기체고 움직인다는 말은 조직이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움직인다는 말이다. 교회의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 땅에 성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면 안된다. 오합지졸(烏合之卒)의 조직체를 가지고는 결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말한다.[113] 그래서 이 땅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전장의 군인들처럼 잘 짜여진 조직이 필요하고, 유기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지만 동시에 행정적인 조직체가 되어야 한다. 또 목회자는 그런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므로 행정적인 마인드와 지도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무조건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무 방임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행정가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그 역할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하고자 한다.

4. 신학자

"목사님과 성경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하지만 듣고 나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성경공부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다. 설교를 하거나 성경공부를 한다는 것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지고 성경공부가 달라진다.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기준이 생기게 되니 해석은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출발점이다.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쓰인 책이 아니다. 2천년 3천년 아니 그 이전에 쓰인 책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오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반드시 해석이 되어야 한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112) 출애굽기 18장 21-27절.
113) 에베소서 6장 12절.

사건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새롭게 해석되어질 때 그 말씀은 내게 살아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 그 해석은 마구잡이식의 해석이 되어서는 안된다. 분명하게 정립된 신학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한다. 기독교에는 이단과 사이비가 많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성경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세대주의 종말론이 나와서 재림하는 예수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다.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은 분명한 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계속해서 신학적 수업이 있어야 한다. 신학적 수업을 통해 성경을 바로 해석하여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향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자는 신학적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 책과 씨름을 한다. 또 세미나에 참석하고, 학위를 위한 공부가 아닌 공부를 위한 학위를 한다. 현대는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자가 공부하고 있는 뉴욕의 맨해튼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세계의 모든 인종이 모여 사는 곳이다.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은 단일민족이기에 절대적인 기준들이 많다. 그러나 맨해튼은 기준이 없다. 다인종, 다민족이기에 또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에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뉴욕 맨해튼은 기준이 없다. 누가 “왜 그랬냐?”라고 하면 “It's New York!”라고 한다. 여긴 뉴욕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시대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뉴욕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전세계에 파급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때에 구시대의 산물과도 같은 성경을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려면 분명한 신학적 견지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도 “It's New York!"이라는 말 속에 묻히는 하나의 가지가 되고 말 것이다.

5. 치유자

“목사님의 조언은 가슴을 시원해 줍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의 심성에 있는 분노와 한에 대한 감정을 다루고, 해결해 줄 때 듣는 말이다. 특히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교인들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또한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듣는 말이 것 같다. 목회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는 영적 치유자고 또 하나는 육적 치유자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육적 치유에 지나치다싶을 정도로 치중해 왔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병을 고쳤다."더라. "어느 기도원에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라고 하는 말들이 많았다. 논문 서두에서도 논지하였듯이 이러한 문제가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병폐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육적인 병을 치료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예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는 가는 곳마다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었다. 심지어 당시에 불치라고 했던 한센병, 중풍, 시각장애인 등과 같은 사람들을 한 순간에 치유해 주었다. 그러므로 오늘 목회자들도 이러한 능력을 사모하고 또 그러한 사역을 교회에서 행해야 한다. 동시에 목회자는 교인들의 영적상태를 잘 파악하고 치유해 주어야 한다. 영적치유는 영적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는 치유할 수 없다. 병을 치료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없고서는 치료할 수 없듯이 목회자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는 결코 그들의 영적문제를 치료해 줄 수 없다. 영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인들과의 접촉이 필요하다. 만나지 않고, 눈과 눈을 마주 대하지 않고는 그들의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남은 첫째로 심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와 같은 일을 게을리 한다면 교인들의 영적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또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해 줄 수 없다. 교인들은 영적인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 교회는 병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 허약한 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도 건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측면에서 첫째 심방을 게을리 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심방을 하고 그 심방을 통해서 교인들의 영적상태를 파악했어야 했는데 단순히 요청에 의한 심방만 진행했다. 그래서 숨어있는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없었고, 또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치료해 주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자는 중보기도에 게을렀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상태를 점검했어야했는데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 주로 새벽기도 시간에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 정도의 중보기도로는 많은 교인들의

영적상태를 파악하기에 부족하다고 본다. 새벽기도는 물론이고, 저녁중보시간을 만들고, 일주일에 하루는 한적한 곳에 가서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교인들과 함께 중보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면 그들의 영적상태를 잘 파악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그들을 치유하여 건강한 교인,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제 7 장
자기 평가

1. 설교자

"과연 내 설교를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가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다. 내 설교가 너무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설교가 아닌가? 깨달음을 강조하다보니, 또 평소 동양철학에 관심을 갖다보니 설교가 교인들의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철학적이고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설교로 흐를 때가 많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과연 여기에 앉아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 뉴저지 땅끝교회에서 영어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설교를 할 때가 있었다. 그들은 실생활에서 쓰는 아주 쉬운 한국어만 이해할 뿐 모든 말은 영어로 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국어로 설교를 하려고 하니 계속해서 쉬운 단어를 찾아야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쉬운 단어로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설교를 이해하고, 또 은혜를 받는다. 그들에게 몇 번의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것은 쉬운 단어만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성경의 깊은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설교가는 설교준비를 하고 제일 먼저 집안의 하인에게 설교를 했다고 한다.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없는 단어만을 가지고 깊은 성경의 진리를 전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사색은 깊게 하지만, 철학적 깊이는 깊지만 그러나 그것을 설교로 만들어질 때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화되었듯이 쉽게, 또 재미있게 전해져야 하겠다. 이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신학서적이나 철학서적과 함께 아이들이 즐겨 읽는 동화책을 함께 읽는다. 동화책은 매우 쉬운 단어로 구성된 책이다. 그곳에 쓰여 지는 단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성경의 깊은 진리를 쉽게 전하는 설교자로

거듭나야겠다.

2. 리더십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서 3년을 지냈는데, 16년 동안에 6번의 목회자가 바뀌는 가운데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은 교회에 대해 적극적성이 결여 되어 있고, 능동적인 면은 없고, 모두가 수동적이었다. 이런 상처와 수동적인 면은 어떤 행사를 해도 참여하지 않게 만들었다. 예배를 새롭게 변형하고, 또 새로운 예배를 시도해도 참여하지 않았고, 기도회를 새롭게 운영하고, 장소를 바꿔어도 역시 참여도는 현저하게 떨어졌다. 1년간의 이런 과정은 본 연구자에게도 심각한 영향이 주어졌다. 목회자의 의욕 상실이다. 그때부터 본 연구자는 새로운 일을 창출하기 보다는 기존의 일을 답습하는 것에 만족하게 되었다. 동시에 그런 교인들을 보듬어 주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학문 연구에 더 열의를 내고, 선교지나 외부행사에 참여하는 것에 더 흥미를 갖게 되었다. 목회자가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그들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해결하는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끌고 가야 하는데 목회자 스스로 리더십 발휘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원인을 계속 바깥에서 찾고, 또 바깥을 탓할 수도 있지만 결국 문제의 원인은 본 연구자 내부에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더 열심을 내고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한국의 격언처럼 변화가 일어났을텐데 아쉽게도 그러한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의 경험이 새로운 사역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바깥을 탓하지 말고, 나의 내부를 끊임없이 알아차리며 리더십을 개발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겠다.

3. 행정가

무엇을 조직하고, 세분화시키고, 또 문서화시키는 일은 잘하였지만 그것을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본 연구자가 미흡하였다고 본다. 조직은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굳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다. 굳으면 즉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공룡과 같아서 덩치는 커다랗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없게 된다. 기관의 장이나 그 분야의 대표들과 적극적인 만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직을 유기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기관장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물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도도 없었지만 본 연구자 스스로도 그 일에 적극성을 많이 두지 못했다. 그 모임이 교회 전체의 조직을 움직이는데 매우 중요한 것인데도 말이다. 참여를 독려하고, 혹 참여하지 않으면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행정의 리더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조직은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딱딱하게 죽은 조직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4. 신학자

신학은 계속적인 연구와 묵상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다. 또 그 신학이 오늘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면 그것은 탁상공론(卓上空論)에 불구하다. 그러므로 신학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사람에게 알맞은 모양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자는 게으른 신학자였다. 내가 좋은 대로 해석했고, 또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전장(前場)에서도 언급했듯이 용어의 사용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즉 본 연구자가 담임하고 있는 목회현장을 고려하고 그들에게 맞는 용어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반감을 갖고 대항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서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내 것만이 옳다는 비타협적인 용어들과 방법들을 그들을 인도하였다. 신학자는 해석하는 사람이다. 성경을 해석하고, 정치를 해석하고, 경제를 해석하고, 사회현상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사람이다. 또 그 해석을 적용하기 위해 교회와 교인들의 삶을 해석하는 능력도 배양해야 한다. 그러할 때 해석된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자는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정치를 해석하고, 경제를 해석하고, 사회현상을 해석하는데 그치고, 교회와 교인들의 삶의 자리를 해석하는 데는 게을렀다. 아니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것은 결국 본 연구자의 해석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도리어 튕겨져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5. 치유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 중에 인내(忍耐)가 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기 보다는 속으로 참아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감춰진 분노와 화와 한이 항상 도사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본 연구자는 교인들의 감춰진 분노와 화와 한을 찾아내는데 부족했다. 이것은 그들과의 만남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지지 못했다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적극적인 만남은 심방이다. 그러므로 심방은 목회자가 치유자의 자리에 서게 하는 최첨단의 자리라 할 수 있다. 한국인은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는데 매우 미흡하다. 그러나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에서는 매우 적극적이다. 그래서 한국의 대화 문화를 사랑방문화라고 한다. 사랑방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속내까지 꺼내놓고 대화하는 것이다. 사랑방문화는 심방과 연결된다.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에서는 못할 말도 심방을 가서 사랑방에 앉으면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내어 놓는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교인들의 영적, 육적 상태를 파악하게 되고, 그런 진단을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자는 부족한 치유자다. 첫 번째는 진단을 위한 검진을 제대로 못한 의사였고, 검진을 제대로 못했으니 진단을 옳게 못했고, 진단을 옳게 못 했으니 바른 치료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제 8 장

결론

한국교회는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마치 분열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열을 해 왔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상처가 있다. 아픔이 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에는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한이 있다. 분노와 화와 한이 있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병들어 있는 상태다. 예수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선포한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살린다는 것이다. 교회는 빛을 비춰서 세상을 살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을 살려야 한다. 예수는 만약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다고 말한다. 나아가 밖에 버려진다고 말한다. 분노와 화와 한으로 건강치 못하다는 것은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예수가 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즉 건강을 찾기 위해서, 또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기도운동, 예배의 회복, 성경공부, 경배와 찬양 등등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교회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 수고를 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상태를 보면 그런 교회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대형교회들의 부자간 목회직을 세습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후임자문제로 계속해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있다.[114] 이러한

114) 강영안, “담임목사직 세습: 무엇이 문제인가?,” http://saegil.or.kr/quaterly/sg01f/01fchurch.html (accessed Jan. 8, 2007). 한국교회는 목사가 처음부터 시작한 교회일수록 어느 새 담임목사에 의해 '사유화'되기 시작하였다. 교회예산, 교회 행정, 교회 인사 등 모든 부분에서 담임목사는 거의 절대권을 행사하며 담임목사와 가까운 장로와 집사와 권사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명예와 영향력을 확장해 가도록 구조화되었고 다른 교회와의 공동체적 의식이 없이 오직 '내 교회', '우리 교회'를 내세우는 개교회 주의에 빠져 버렸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담임목사직 세습은 담임목사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사유화된 결과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 수순이고 절차가 아닐 수 없다. 한국교회 특유의 이런 배경으로부터 담임목사직 세습을 보아야 문제가 바로 보인다.

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라는 것이다. 도리어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밝음을 잃은 빛이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 것이다.

교회는 변해야 된다. 변화는 살아있음의 증거다. 이 땅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계속해서 변화를 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교회도 변해야 된다. 변하지 않는다면 죽었다는 증거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따라 흘러 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친 물줄기를 타고 강위로 올라간다. 살아있기에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장애들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교회도 그렇다. 비록 수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변할 수 있다면 소망이 있다. 그러나 인위적인 변화는 잠깐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변화는 억지로의 변화가 아닌 저 절로의 변화가 일어나야한다. 저 절로의 변화는 개조(改造)의 변화가 아니다. 개조(改造)의 변화는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파생(派生)된다. 이 땅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관계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다른 한 사람은 관계가 나빠지게 된다. 누군가 돈을 번다는 것은 누군가 돈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편하게 살고 있다면 누군가 그의 편함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는 관계적 변화인 개조의 변화가 아니라 절대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절대적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나 절대적 변화는 필요하지 않다. 변화는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는 말과 상통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보겠다고 동분서주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분서주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만드는 것이 아니다. 보는 것이다. 이미 이루어져 있음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 나라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변화된 내 눈으로만 볼 수 있다. 예수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듯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변화된 내 눈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만드는 세계가 아니라 봄(見, *seeing*)의 세계다. 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세상이고, 봄을 통해서만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세계다.

예수는 늦은 저녁에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115]"고 말한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중생(*born again*)이다.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만약 다시 태어나지 않고 지금의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한다. 그 말은 들은 니고데모는 의구심의 눈빛으로 예수에게 묻는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116] 예수의 거듭남에 니고데모는 어머니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예수는 다시 니고데모에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117]

물과 성령은 인간을 어머니의 자궁으로 집어넣지 않는다. 물과 성령은 인간에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준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남(*born again*)은 새로 봄(*new seeing*)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에 와 있다고 한다. 이미 와 있는데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이다. 보지 못하니 살지도 못했다. 살지 못하니 그 살지 못함을 미래에 투자해서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한다. 이런 부류(部類)의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져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한다. 오늘 일그러진 나의 삶, 즉 분노와 한과 화로 가득 차 있는 지금의 삶을 다가올 미래에 던져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느끼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위로일 뿐이다. 깊은 상처로 몸이 아프지만 미래를 생각하며 그 고통을 참으라는 것이다. 병원에 가서 살을 째고 고치면 살 수 있는데, 병원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투여(投與)해서 고통을 잊으라는 것이다.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서 새로운 봄(見)을 가지고 이미 와 있는 그리고 이미 이루어져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滿喫)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본대로 산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마찬가지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

115) 요한복음 3장 3절.
116) 요한복음 3장 4절.
117) 요한복음 3장 5절.

된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삶은 가짜의 삶이다. 거듭나서 새로운 눈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은 속아서 사는 삶이다.

왜 인간은 진짜 삶을 살지 못하고, 가짜의 삶, 속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분노와 화와 한은 각종 틀을 인간에게 가져다주었다. 틀은 감옥이다. 틀은 지옥이다. 틀을 가진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없다. 틀은 인간의 눈을 철저하게 가려버렸다. 가려진 그 눈은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한다. 보지 못하니 살지도 못하게 한다. 여기가 천국인데 천국이 어디 있냐고 묻게 만든다. 그 천국이 없으면 죽어서라도 가겠다고 한다. 그래서 틀이 깨어져야 한다. 틀이 깨어짐은 감옥이 깨지는 것이고, 지옥이 깨지는 것이다. 이런 틀이 깨질 때 틀을 거쳐서 보았던 세상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의 세계를 보게 한다. 틀은 생각이다. 틀이 깨어져서 사실의 세계를 보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일이고, 한 맺힌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깨지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보게 하는 것이다. 생각의 틀이 깨어지고 사건을 사실로 보면 더 이상 거기에는 분노가 없다. 한도 화도 없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만이 있을 뿐이다. 생각의 틀이 깨지고, 사건을 사실로 본다는 것은 새로운 봄(*new seeing*)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봄(*new seeing*)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에의 삶을 살게 한다. 천국에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잘못도, 원망도, 탓도, 분노도, 한도, 화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봄(見 *seeing*)은 그 누구의 잘못도, 그 누구의 원인도, 그 누구를 향한 원망과 탓과 분노와 한도 사라지게 한다. 그것은 지금부터 없애겠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봄(*new seeing*)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한 그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다.

분노와 화와 한은 새로운 봄(*new seeing*)을 통해서 없어진다. 분노와 화와 한은 실상이 아니다. 허상이다. 과거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허상이다. 과거에만 있지 지금은 없다. 인간은 과거를 살지 못한다. 미래도 살지 못한다. 과거를 살고 미래를 사는 것은 기억이다. 생각으로 사는 것이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 지금 속에는 기억이 없다. 분노도 없고 화도 없고 한도 없다. 그러나 기억과 생각으로 점철된 인간은 지금을 보지 못한다. 지금을 살지 못한다. 항상 과거를

본다. 살 수 없는 과거를 산다. 또 그 과거가 투사된 미래를 본다. 미래를 살려고 한다. 진정한 봄(見)을 갖지 못하니 기억과 생각에 붙들려서 실상이 아닌 허상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붙들린다. 또 미래에 붙들린다. 과거와 미래에 붙잡히는 것은 분노와 화와 한에 묶이는 것이다. 미래는 과거의 투사다 그러므로 미래에 붙들리는 것도 분노와 화와 한에 묶이는 것이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지금을 살면 더 이상 분노와 화와 한에 묶이지 않는다. 지금을 살려면 지금을 봐야 한다. 지금은 기억과 생각이 아닌 사실을 보는 것이다. 사실은 진리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절대의 진리다. 그 진리를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듯이 사실과 생각이 갈라진다. 사실을 사실로 보게 되고, 생각을 생각으로 보게 된다. 사실과 생각이 분리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사실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생각으로 사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 깨닫는 것은 내가 그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것이다. 내가 허상의 세계인 생각의 세계에 붙들려서 있지도 않는 분노와 한과 화에 묶여 살았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봄(*new seeing*)은 깨어남이다. 잠에서 깨는 깸이다. 분노와 화와 한에 사는 것은 깸이 아니다. 잠을 자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의 기억과 생각에 붙들려 잠자고 있는 것이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지금을 보지 못한다. 사건과 사실을 보지 못한다. 지금을 즉 사건과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허상 속에서 사는 것이다. 잠을 자고 있으면 도둑이 들어온다. 들어와서 나를 헤치고, 죽이고자 한다. 그러나 깨어있으면 도둑이 들어올 수 없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분노와 화와 한의 도둑이 들어와서 나를 헤친다. 죽인다. 그러나 깨어 있는 사람은 분노가 화가 한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새로운 봄(*new seeing*)은 또한 깨달음이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내가 어디에서 살고 있었나를 알게 한다. 깨달음이 없으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깨달음이 없으면 허상에 메여 있어서 그곳이 어디인지 모른다. 분노가 사로잡아도, 화에 붙들려 있어도, 한에 맺혀 있어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 깨달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다. 깨달으면 내가 있는 곳이 허상임을 알고, 분노와 한과 화의 허상에서 빠져 나와 지금

여기로 빠져 나온다. 허상에서 나오면 분노와 한과 화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의 논문은 봄(見)의 신학이다. 나아가 거듭남(*born again*)의 신학이고, 깸의 신학이고, 깨달음의 신학이다. 본 연구자는 깊은 상처로 인해 분노와 화와 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봄(見)을 줄 수 있는 있는가에서 논문을 전개했고,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한 가지 아픔이 있었다. 본 연구자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중에 교회를 사임해야 했다. 본 연구자의 프로젝트는 변혁(transformation)을 위한 변혁이론에 근거한 연구논문이다. Luiz는 변혁의 이론 중 위험(risk)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변혁의 이론으로 가르치다보면 목회지를 잃을 수도 있다."[118]고 했는데 그 말이 본 연구자에게 나타났다.

본 연구자는 변혁의 이론이 추구하는 "New and Better" 을 위하여 그 동안 분노와 화와 한 속에 살고 있던 교인들에게 새로운 봄(*new seeing*)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세계 즉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계"로 인도하고자 했다. 논문 중반에 참여한 교인들의 소감문에 나타나고 있듯이 그들은 그 동안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던 분노와 화와 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들을 삶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런 변혁에의 모습을 보면서 프로젝트를 연이어 진행하여 개인의 변혁을 통해서 그 동안 15년이란 교회의 역사 뒤편에 목회자가 다섯 명이나 바뀌는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프로젝트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다. 그 동안 고질적으로 생겼던 교회 평신도 리더들과 목회자와의 갈등이 재연되었기 때문이다. 변화를 추구하는 목회자와 변화가 일어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구조 속에서의 힘을 목회자에게 빼앗기거나 행할 수 없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변화를 원치 않는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 간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갈등의 관계는 부임 초부터 계속 있어왔는데, 본 연구자가 시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의 조짐을 일으키자 더욱 강력해지게 되었다. 그들은 특히 본 연구자가 시행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기독교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논문 중반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용어의 문제 즉 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불교적인 선문답 방법을 사용하는 것,

---

[118] Lester Edwin J. Ruiz, "Transformation," (강의,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Summer 2005, in New York City).

깨달음이나 깨어남이란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 또 그들은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기도나 성령의 역사와 같은 방법만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문제 삼아 사임을 종용하였고, 본 연구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도중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변혁의 이론에 근거하여 교인들과 교회를 "New and Better"의 세계로 인도하고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 변혁의 이론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본 연구자는 많은 고민을 하였다. 과연 이런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변혁의 이론을 시행하여야 하는가? 많은 고민 그리고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의 Lester Edwin J. Ruiz 교수와 Michell Lim Jones 교수의 위로와 용기를 통해 변혁의 이론은 그러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계속 시행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제 새로운 봄(*new seeing*)으로 나아가야 한다. 새로운 봄(*new seeing*)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봄(*new seeing*)은 모두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의식에의 변화를 일어나게 하고, 관계를 관계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일어나게 한다.

예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손짓하였다. 아니 간절히 부르고 있다. 새로운 봄(*new seeing*)을 가지고 있는 예수는 바로 여기에 그런 쉼터가 있다는 것이다. 예수는 그런 쉼터를 보고 있기에 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짓하며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내가 새로운 봄(*new seeing*)을 갖지 못하면 그 쉼터에 나아갈 수 없다. 아니 그곳에 간다 해도 그 쉼을 누릴 수가 없다.

한국교회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 속에서 살고 있다. 전통과 문화의 틀에 갇혀서 화가 나있고, 사회구조적인 불균형에 갇혀서 한에 맺혀있다. 이제 분노와 화와 한은 그들을 지칠 대로 지치게 만들었다. 그런 그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길은 새로운 봄(*new seeing*))이다. 그 새로운 봄(*new seeing*)이 쉼을 주고, 자유를 준다.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다.

예수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한다.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으려고 하면 헌 부대는 터져서 새 술을 버리게 한다. 새 술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부대다. 새 부대만 있으면 새 술은 언제든지 소유할 수 있다. 감겼던 눈이 떠져 새로운 봄(*new seeing*)이 이루어질 때 헌 부대에서 새 부대로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을 수 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늘로부터 온 존재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집나간 탕자처럼 이 땅에서 수많은 고통을 맛본 후에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깨닫듯[119] 우리에게 고통을 맛보게 한 후에 죽어서 돌아갈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갈망하게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총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맛보고 누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가장 완벽한 선물이다. 그러나 인간은 관계 속에서 형성된 자아(ego)와 생각으로 점철된 기억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은총으로 절대세계를 보지 못하고 분노와 한과 화에 붙들려서 스스로 집나간 탕자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런 쉼 없는 고통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봄(*new seeing*)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을 선포해야 한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외치며 이 땅에서는 고통 받으며 살아도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포해야 한다.

예수는 회개하라 했다. 생각으로 점철된 기억에 붙들려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모르는 것은 예수가 말했던 사단에 메여있는 것이고, 회개해야 할 모습들이다. 이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그것은 예수가 말한 거듭남이다.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다. 중생(*born again*)이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

119) 누가복음 15장 11-32절. " ...그 재산을 다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런 세계를 갈망(渴望)한다. 부족한 논문이지만 이 논문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봄(*new seeing*)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이 땅에서 천국에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작은 초석(礎石)될 수 있기를 원한다.

첨(添)하여 본 연구논문은 새로운 site team인 배요한목사의 분석과 평가처럼 "분노와 한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새로운 깨달음을 통한 회복에만" 집중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박승호, 이정용, 서남동을 통해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의 한의 문제를 약간은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의 분노와 한의 문제를 더 이상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분노와 한의 문제 그리고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의 분노와 한의 문제를 다루기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본 연구자가 동시에 두 가지 문제를 다루기는 너무나 벅찬 과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의 분노와 한의 문제를 시작하였으니,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분노와 한의 문제는 숙제로 남겨두고, 향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계속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남긴다.

참고문헌

1) 외국 서적

Bagby, G Daniel. *Understanding Anger in the Church*. Nashville: Broadman Press, 1979.

Boers, Arthur Paul. *Never Call Them Jerks: Healthy Responses to Difficult Behavior*. Washington, D.C.: Alban Istitute, 1999.

Cobb, B John. *Theology and Pastoral Care*. Philadelphia: Fortress, 1971.

Corey, Gerald.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acific Grov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96.

Goodykoontz, G Harry. *The Minister in the Reformed Tradition*. Virginia: John Knox Press, 1963.

Hulme, H William. *Managing Stress in Ministry*. Sanfrancisco: Harper and Row, 1985.

Irvin, Dale T. *History of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2001.

_______. *Christian Histories, Christian Traditioning*. 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98.

Volf, Miroslav. *Exclusion and Embrace*.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_______. *The End of Memory*.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06

2) 번역 서적

Bhagavan, Sri Ramana, Maharshi. *무엇이 깨달음인가*. 김병채역. 경남: 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 2005.

Cameron, West. *다중인격*. 공경희역. 서울: 도서출판 그린비, 2002.

Cialdini, B Robert. *설득의 심리학*. 이현우역. 서울: (주)북21, 2003.

Cosgrove, P Mark. *분노와 적대감*. 김만풍역. 서울: 도서출판 두난노, 1996.

de Mello, Anthony. *하느님과의 만남*. 송형만역. 경북: 분도출판사, 2003.

_______. *일분지혜*. 이미림역. 경북: 분도출판사, 2002.

_______. *종교 박람회*. 정한교역. 경북: 분도출판사, 2003.

________. *깨어나십시오*. 김상준역. 경북: 분도출판사, 2003.

de Saint-Exupery, Antoine Marie-Roger. *어린왕자*. 안응렬역. 서울: 학원출판공사, 1985.

Erich, Fromm. *인간의 마음*. 황문수역. 서울: 문예출판사, 1977.

________. *소유냐 존재냐?*. 장현수역. 부산: 민일사, 1988.

Homi, K Bhabha. *문화의 위치*. 나병철역. 서울: 소명출판사, 2002.

Lama, Dalai. *달라이 라마 예수를 말하다*. 류시화역. 서울: 나무심는사람, 2001.

Kubler-Ross, Elisabety & David Kessler. *인생수업*. 류시화역. 경기: 도서출판 이레, 2006.

Gakichi, Gadowaki. *선과 성서*. 김윤주역. 경북: 분도출판사, 2000.

Homik, K Bhabha, *문화의 위치*. 나병철역. 서울: 소명출판사, 2002.

Hawkins, David. *의식 혁명*. 이종수역. 서울: (주)한문화 멀티미디어, 2000.

Henri, J. M. Nouwen. *상처 입은 치유자*. 최원준역. 서울: 두란노, 1999.

Jiddu, Krishnamurti. *자기로부터의 혁명1*. 권동수역. 서울: 범우사, 1999.

________. *자기로부터의 혁명2*. 권동수역. 서울: 범우사, 1999.

________. *자기로부터의 혁명3*. 권동수역. 서울: 범우사, 1999.

________. *크리슈나무르티의 명상*. 김영호역. 서울: 중명출판사, 2003.

________.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김선경,고명선공역. 경기: 도서출판 물푸레, 2005.

Karl, Rahner. *교회의 미래상*. 정한교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1.

Kundera, Milan.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송동준역. 서울: 믿음사, 2004.

Küng, Hans.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4.

________. *신은 존재하는가 I*. 성염역. 왜관: 분도출판사, 1994.

Leong, S Kenneth. *예수 선을 말하다*. 진현종역. 서울: 지식의 숲, 2005.

Loder, E James. *삶이 변형되는 순간*. 이기춘 공성민공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8.

Michud, Yves. *문화란 무엇인가1*. 강주헌역. 서울: 시공사, 2003.

________. *문화란 무엇인가2*. 강주헌역. 서울: 시공사, 2003.

Mimei, Sakamoto. *칼. G. 융 우리 마음의 심층구조* 노지연역. 서울: 현실과 미래, 1999.

Niebuhr, H Richard.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3.

Norman, H Wright *행복한 부부대화의 열쇠.* 차호원, 차혜숙공역. 서울: 두란노, 1983

Norman, Malcolm. *마음의 문제.* 류의근역. 서울: 서광사, 1987.

Oden, Thomas C. *목회신학.* 오성춘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Osho, Rajneesh. *삶의 길 흰구름의 길.* 류시화역. 경기: 청아출판사, 2005.

Sledge, Tim. *가족치유, 마음치유.* 정동섭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8.

Stevens, R Paul.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김성오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2.

________.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홍병룡역.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3.

Thompson, J Marjorie. *영성훈련의 이론과 실천.* 고진옥역. 서울: 은성, 1996.

Thich, Nhat Hanh. *화.* 최수민역. 서울: 명진출판, 2002.

________. *힘.* 진우기역. 서울: 명진출판, 2003.

Tolle, Eckhart.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노혜숙, 유영일공역. 서울: 도서출판 양문, 2002.

________. *고요함의 지혜.* 진우기역. 경기: 김영사, 2004.

Zin, Jon Kabat. *당신이 어디를 가든 거기엔 당신이 있다.* 고명선역. 서울: 도서출판 물푸레, 2002.

Zohar, Donah & Ian Marshall. *SQ.* 조혜정역. 서울: 룩스, 2001.

3) 국내 서적

강준만. *한국인 코드* 서울: 인물과 사상사, 2006.

김계현. *상담 심리학* 서울: 학지사, 1998.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Ⅰ.*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9.

________. *기독교조직신학Ⅱ.*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9.

________. *기독교조직신학Ⅲ.*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9.

김리관. *한미교회 분열사.* 서울: 기독교문사, 1995.

김소월. *진달래 꽃.* 서울: 미래사, 2004.

김연수. *깨달음도 버려라.* 서울: (주)한언, 2002.

________. *내 안의 신을 보라.* 서울: (주)한언, 2003.

김용석, 이승환. *서양과 동양이 127일간 e-mail을 주고받다.* 서울: 휴머니스트, 2001.

김용준. *과학과 종교 사이에서.* 경기: 돌베개, 2005.

김지철, 조성노. *복음과 문화*. 서울: 현대신학연구소, 1992.

김철원.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마음여행*. 서울: 도서출판 한 생명, 2005 .

김흥호. *제소리*. 서울: 솔 출판사, 2002.

_______. *양명학 공부1*. 서울: 솔 출판사, 1999.

_______. *양명학 공부2*. 서울: 솔 출판사, 1999.

_______. *양명학 공부3*. 서울: 솔 출판사, 1999.

_______. *연꽃이 피기 까지는: 벽암록 해설*』 서울: 풍만, 1983.

도 법.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서울: 도서출판 아름다운인연, 2004.

배요한. *흐름으로 보는 서양사상*. 서울: 동인서원, 1998.

신영복.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 경기: 돌베개, 2004.

_______. *신영복 함께 읽기*. 서울: 돌베개, 2006.

오강남. *예수는 없다*. 서울: 현암사, 2001.

_______. *예수가 외면한 그 한 가지 질문*. 서울: 현암사, 2003.

우 명. *하늘이 낸 세상 세상 구원의 공식*. 서울: 참 출판사, 2005.

유동식. *한국 종교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유해룡. *하나님 체험과 영성훈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88.

장길섭.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서울: (주)한언, 2002.

_______. *삶으로 깨어나기*. 서울: 요단출판사, 2000.

_______. *하늘이 시작되는 자리*. 대전: 살림마을, 1997.

장일순. *노자 이야기*. 서울: (주)도서출판 삼인, 2005.

장휘옥, 김사업. *길을 걷는 자, 너는 누구냐*. 서울: 더북컴퍼니, 2005.

정창덕, 박호용. *암 정복 길라잡이*. 서울: 태웅출판사, 1999.

정혜신. *남자 VS 남자*. 서울: 개마고원, 2001.

조태연. *뒤집어 읽는 신약성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_______. *예수운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_______. *신약성서 개론-한국인을 위한 최신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_______. *예수 이야기 마가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_______. *예수 이야기 마가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주재용. 서광선편. *역사와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차원태. *해석에서 행동으로*. 서울: 정암문화사, 1998.

한숭홍. *존재와 의식*.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89.

한자경. *일심의 철학*. 서울: 서광사, 2002.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서울: (주)도서출판 한길사, 2003.

NCC 연구회편. *민중과 한국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4) 잡지, 신문, 아티클

강사문.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의 분노." *빛과 소금*. 1986년 8월호. 서울: 두란노서원, 1986.

방관덕. "인간관계로 갈등으로 인한 탈진과 회복." *목회와 신학*. 53호. 서울: 두란노서원, 1993.

안석모. "불안을 내어 쫓는 믿음을 어떻게 얻는가." *월간목회*. 1992년 3월호. 서울: 월간목회사, 1992.

이성희. "한국교회 미래 목회 패러다임의 변혁." *장신논단 제12집*. 서울: 장신대출판사, 1996.

차호원. "가정안에서의 분노." *빛과 소금*. 1986년 8월호. 서울: 두란노서원, 1986.

최영민. "심리적인 문제인가, 영적인 문제인가." *목회와 신학*. 1994년 12월호. 서울: 두란노서원, 1994.

5) 학위 논문

구준림. "그리스도교 인간관에 대한 동양적 해석." 대전: 목원대학 석사학위논문, 1987.

김성년. "루돌프 불트만의 신학에 나타난 인간이해에 대한 연구." 경북: 영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재형. "상한마음의 내적치유에 관한 연구." 부산: 고려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박종남. "키에르케고르의 실존론적 인간이해." 서울: 장로회신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배요한. "유교와 기독교의 인간관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이은우. "상처난 마음으로 부터의 회복에 관한 연구." 부산: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최영근. "한국의 다종교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학의 방향성 모색."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6) 인터넷 자료

Park Andrew Song. 민중신학에서 죄와 한의 문제. http://www.theology.or.kr/wwwb/CrazyWWWBoard.cgi?db=jhdiscussion&mode=read&num=120&page=9&ftype=6&fval=&backdepth=1 (accessed Oct. 1, 2006).

Yahoo 백과사전. "가부장권." 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search/dictionaryp?p=가장-권&subtype= enc&prop=&target= (accessed Oct. 18, 2006).

Platon21, "남녀차별." http://report.empas.com/report/view.hcam?no=2662418&PHPSESSID=4b4172c9b3d96d0d86f464da8d9ab6cc#(accessed Oct. 18, 2006).

강영안. "담임목사직 세습: 무엇이 문제인가?." http://saegil.or.kr/quaterly/sg01f/01fchurch.html (accessed Jan. 1, 2007).

김윤환. "죄의 희생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 한의 신학." http://www.shbs.net/news/read.cgi?board=culture_love&y_number=20&nnew=1 (accessed Oct. 1, 2006).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포천할렐루야 기도원 문제." http://pck.or.kr/PckCommunity/NoticeView.asp?TC_Board=7823&ArticleId=60&page=6 (accessed Oct. 1, 2006).

박선균. "칸트와 헤겔의 진리개념." http://maincc.hufs.ac.kr/~phila/active/journal/ph02/ph02_06.htm (accessed Oct. 15, 2006).

암장. "남아선호." http://mediamob.co.kr/syk5117/frmView.aspx?list=blog&id=94382&page=1 (accessed Oct. 18, 2006).

양용의. "안식일 규정." www.sul9191.com/imrtj/2002-4/5신학자료/구약에%20나타난%20안식일(3)%20바리새인들.htm (accessed Oct. 16, 2006).

위키낱말사전. "남존여비." http://www.google.com/search?hl=ko&q=%EB%82%A8%EC%A1%B4%EC%97%AC%EB%B9%84&lr= (accessed Oct. 18, 2006).

위키백과사전. "칠거지악." http://ko.wikipedia.org/wiki/%EC%B9%A0%EA%B1%B0%EC%A7%80%EC%95%85 (accessed Oct. 20, 2006).

초록불. "고려장." http://orumi.egloos.com/2523096 (accessed Oct. 17, 2006).

한림대학교 생사학 연구소. 죽어가는 사람의 9가지 유형. http://www.huspc.or.kr/main.php?oxid=31 (accessed Oct. 12, 2006).

하덕규, http://www.4rest.org/albums/rest/index.htm (accessed Nov. 15, 2006).

이유명. "현대판 고려장." http://news.chol.com/index.php?cmd=doc&sd=20061027&ed=20061027&cat=SOCIAL&newsid=NEWSIS_515874 (accessed Oct. 17, 2006).